

곽명희 제8대 포교사단장
'직지인심' 포교는
자신 낮추는 수행
16 · 17면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1월 13일) · 주간

제979호 2014년 2월 12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잡아함경〉

마음은 모든 성자와 만악의 주인이다
해탈의 즐거움도 마음에서 오고
윤회의 자신의 마음에서 온다.

20대 불교 신뢰도 증가 "청년 포교 여세 몰아야"

조계종 불교사회硏 · 기윤실 대국민 여론 조사 비교

한국의 20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가장 신뢰를 주고 있는 종교는 불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월 5일 발표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의 201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기초보고서와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이 2012년 11월 발표한 '한국의 사회 · 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기윤실의 조사 중 가장 신뢰하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 만19세~29세의 33.4%가 불교를 가장 신뢰한다

20대 국민 종교 신뢰도
두 조사 모두 불교 '최고'
30대 낮은 이유 분석해야

고 답했다. 가톨릭은 50대에서 32.4%로 가장 높은 신뢰도를 자랑했다. 개신교는 전 연령에 걸쳐 가장 높은 신뢰도를 얻지 못했다.

이 같은 결과는 2012년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 · 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와도 동일하다.

당시 한국사회에서 가장 믿음이 가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 20대의 26%가 불교를 가장 신뢰한다고 꼽았다. 가톨릭은 전 연령대에 고루 높은 신뢰도를 기록했지만, 개신교는 모든 연령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불교와 개신교의 연구 기관이 다르기는 하나 동일 선상에서 놓고 본다면 20대 미만 청년들의 불교에 대한 신뢰도는 26%에서 33.4%로 증가 추세다.

2012·2013 한국사회에서 가장 믿음이 가는 종교 (단위 : %)

		사례수	가톨릭교	불교	기독교
전체		1000	29.2	28.0	21.3
연령	만19~29대	196	26.6	33.4	18.9
	30대	208	29.4	21.0	24.2
	40대	245	29.1	30.4	19.7
	50대	22	32.4	27.3	21.0
	60대 이상	128	27.7	27.9	23.8

2013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례수	가톨릭교	불교	기독교
전체		1000	27.1	23.8	11.2
연령	20대	215	19.1	26.0	9.3
	30대	251	26.7	18.3	9.6
	40대	235	29.8	18.7	9.4
	50대	104	36.5	24.0	12.5
	60대 이상	195	28.2	34.4	16.9

2012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두 조사 모두 동일하게 전체 신뢰도는 가톨릭이 가장 높고 불교는 2위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10~20대 청년들이 불교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일이다.

이는 최근 불교가 적극적으로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사회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륜, 마가, 혜민, 정목 스님 등이 한국 사회의 힐링 열풍을 주도하며 국민 멘토로 자리매김한 것도 크게 작용했다.

20대 청년들이 불교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들을 불교 안으로 포용할 수 있는 포교 방안도 요구되고 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20대 청년들이 불교를 신뢰하는 것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이것이 직접적인 불교 수행과 신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서 "포교 차원에서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이어 "더 이상 기존 포교 방식인 조직화와 계몽적 교육 프로그램만으로 10, 20대를 포교하기는 어렵다"면서 "문화, 힐링 프로그램이 접목된 새로운 방식의 포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예비 초등학생 아동들에게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 스님(사진 가운데)이 직접 선재의 선물인 책가방과 학용품을 전달했다. 사진은 전달식 직후 선물을 받은 학생, 학부모들과 자스님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선재의 선물'로 몸과 마음을 따뜻이

아름다운동행, 예비 초등생 508명에 책가방 · 학용품 지원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선재의선물-책가방 보내기' 전달식을 진행했다.

2014년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전국의 저소득가정의 조손, 한부모, 다문화 가정의 아동을 위한 책가방 보내기 포장식 및 전달식에는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사무총장 자공 스님, 아름다운 동행 지원단,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장 및 전달식은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진행됐다. 11시에는 선정된 예비 초등학생 아동들에게 이사장 자승 스님이 직접 선재의 선물인 책가방과 학용품을 전달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고 있는 '선재의 선물 책가방보내기'는 아름다운동행의 대표적인 국내지원사업이다.

아름다운동행은 "선재의 선물 책가방보내기는 지난해 연말부터 약 3개월 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모금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약 3300만원이 모금됐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오현 스님 시조, 세계가 주목하다

〈문학사상〉 2월호 "오클라호마大 문예지 등에 집중 소개"

미국 문학지에 오현 스님의 시조가 집중 소개돼 화제다.

문학 월간지 〈문학사상〉 권영민 주간은 최근 발간한 2월호 '이달의 말'에서 "美오클라호마 대학에서 발간하는 전통문예지 〈WORLD LITERATURE TODAY〉가 지난해 9월호에 오현 스님의 시조 '오늘', '달마', '고목의 소리' 등을 번역해 집중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927년 창간된 이 문예지는 미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잡지 중 하나로 주로 영어권에서 활동하는 유명 문학인들의 신작을 소개하고 있다.

오현 스님의 산문시인 '갈매기와 바다-절간 이야기 2', '다람쥐 두 마리-절간 이야기 3', '청개구리-절간 이야기 29' 등도 지난해 온라인 계간 문예지인 〈THE ADIRONDACK REVIEW〉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 같은 오현 스님의 문학작품들이 미국에 집중 소개할 수 있게 한 것은 하인즈 펜클(Heinz Insu Fenkl) 미국 뉴욕 주립대학 영문학과 부교수다. 불교의 선의 세계를 시조와 산문시를 통해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오현 스님의 작품에 주목하고 2012년부터 아시아 문학을 세계에 소개하는 〈ASIA LITERARY REVIEW〉에 〈바위 소리〉 등의 시조를 번역하며 알리기 시작했다.

또한 펜클 교수는 세계 불교시 전문지인 〈BUDDHIST POETRY REVIEW〉의 2012년 12월호에 시조 '춤 그리고 법뢰(法雷)', '떡느릅나무의 달' 등을 번역 수록했으며 생태주의 시전문지인 〈WRITTEN RIVER〉의 2012년 겨울호에 '허수아비' 등을 집중 소개 했다.



오현 스님



하인즈 펜클 교수

1927년 창간 유명 문예지
'WORLD LITERATURE…'
'오늘', '달마' 등 시조 수록
하인즈 펜클 교수 번역
스님 문학 전집 영역 준비중

이와 함께 권 주간은 현재 펜클 교수가 집중하고 있는 작업이 ㈜문학사상이 발간한 〈적멸을 위하여-조오현문학전집〉의 영역본이라고 밝혔다. 특히 펜클 교수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오현 스님의 시조가 선 사상의 중심인 '공(空)'이나 '심(心)'과 같은 추상적 요소를 짧은 시작 형식에 담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점이다.

펜클 교수는 "오현 스님의 시조는 시 형식과 불교 정신이 교묘한 조화를 보여주며, 세계적인 '불교 시'로서 최고의 시적 성취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널리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권 주간은 "펜클 교수의 번역 작업을 통해 〈적멸을 위하여-조오현문학전집〉의 영역본이 출간되면 세계의 독자들이 오현 스님의 문학 세계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2014 연등회 일정 확정… 4월 26일 연등행렬

연등회 보존위, 연등회 노랫말도 공모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행사 일정이 확정됐다.

연등회 보존위원회(위원장 자승)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4 연등회 일정을 공시했다.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기 위한 연등회 어울림마당은 오는 4월 26일 동국대 운동장에서 열리며, 수만 연등이 종로 일대를 수놓는 연등행렬은 26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이어 종각사거리에서는 제등행렬을 마무리하는 회향한마당이 성대하게 열린다.

4월 27일 정오부터 조계사 앞길 우정국로에서 전통문화마당이 열리며, 오후 7시부터는 흥겨운 노래 속에서 연등놀이가 진행된다. 전통등 전시회는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조계사와 봉은사 일대에서 만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등회 보존위는 불교 전통과 현대음악의 창조적 조화를 바탕으로 불교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연등회 노랫말'을 공모한다. 연등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느낀 마음을 정리해 노랫말로 출품하면 된다.

접수 마감은 오는 5월 30일까지다.

신중일 기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독송용)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지금 우리 절에서는 –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한마음선원은 분원 중창불사와 함께 어린이 · 인터넷 포교를 통해 불법 홍포를 하고 있다. 안양 본원 도량에서 탑돌이를 하고 있는 불자들.

대행 스님 추모사업 · 포교 다각화

1971년 경기도 안양 석수동에 세워진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현재 15개의 국내지원과 10개의 해외지원이 설립돼, 25만여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수행 정진하며 불법 홍포와 생활선 수행도량으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2012년 5월 선원장이었던 대행 스님 원적 후, 한마음선원은 스님의 한마음 큰 뜻을 새기면서 내외실을 다지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선 한마음선원은 2012년 11월 부산지원 대법당을 준공하고, 2013년 4월에는 LA지원 새법당을, 6월에는 충북 음성 광명선원 대웅전을 완공해 불교문화도량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가졌다. 또한 지난해 10월 통영지원 새도량 기공식 거행하고 통영시민들이 오갈 수 있는 마음도량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마음선원은 포교 영역을 다각화 해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린이 포교지 '마음꽃'을 출간해 어린이 포교에 주력하는 한편, 인성교육을 활용한 포교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 1월에는 한마음과학원에서 진행하는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에서 주최하는 우수인성교육프로그램 공모전에서 학교부문에서 가장 탁월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군포교와 문화포교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12년 연말에는 파주 제1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한마음음악제'를 열어 군인장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 10월 월정사에서 개최한 '오대산 문화축전'에 참가해 한마음선원선법합창단이 '탄허대종사탄신 100주년 기념대합창제'를 열어 탄허 스님의 일생을 노래와 공연으로 표현해 참가자들 법열을 느끼게 했다.

대행 스님의 추모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 해 5월에는 대행선사 추모 1주기 다례자와 부도탑 제막식을, 12월에는 한마음선원 본원 내에 대행선사 동상 건립을 목표로 심주석을 세우는 화합재를 거행했다.

한마음선원은 갑오년 설날을 기점으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대행선사 온라인 박물관(www.daehaeng.org)과 한마음TV(www.hanmaum.tv)도 신규 개통해 온라인 포교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한마음선원 2~3월 캘린더

2월 8일	한마음 아버지마당 시작
2월 14일	정월대보름 정진
2월 16일	대행 장학 증서 수여식 및 기록관 설립 화합재
2월 28일	불교문화회관 문화강좌 마감
3월 2일	문화강좌 개강

"과세, 각 종교별 특성 반영 필요"

종교인 과세 2월 국회 논의… 종교들 각각 입장 달라

현재 기타소득으로 安 상정
세부적 규정 없어 혼선 예상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스님부터
올해 중 근로소득세 납부 계획
보수 개신교 단체들 반대 고수

종교인 과세가 2월 임시 국회의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월 23일 "2월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마무리 짓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현재 종교인 과세 등 세제 관련 임시 국회 일정도 어느 정도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여야 간사는 오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으며, 14일 오전 10시에는 조세소위원회와 경제재정소위가 예정돼 있다. 종교인 과세는 14일 열릴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올린 종교인 과세 세제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즉 사례금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기타소득은 비정기적으로 생기는 소득을 말하며, 상금, 복권 당첨금, 원고료, 강연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보수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되, 소득공제 없이 4.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기존의 과세관행과 신고 · 납부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5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에 대해 종교 간 이견 차는 상당하다. 사찰과 교회 등 종교단체에서 제공받은 금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고 불교의 경우 해제비와 법문비 등을 어떻게 소득으로 부과할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과 달리 세금을 내고도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을 볼 수 없는 문제도 있다. 기타소득 과세는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보수 기독교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고신, 합신 등의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는 2월 5일 모임을 갖고 "종교인 과세가 종교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 납세나 사회 섬김 · 봉사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교단과 단체는 교단 임원회 등 내부 논의를 거쳐 2월 초 · 중순경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회에도 공식 전달키로 했다.

현재 불교계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불교의 특수성을 감안해 조세 정책이 결정되길 요구하고 있다.

조계종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일부 교역직 스님에게 제공되는 '보시'가 근로 개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불교 특성에 맞는 조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전 조세 관계자들이 총무원에 와서 설명을 하고 갔는데, 대부분 개신교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많았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각 종교의 특수성을 감안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교역직 스님들의 근로소득세 납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2월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의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며 "올해 예산 편성도 끝마친 상황이다. 자세한 것은 정부와 국회 결정을 살피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불교계와 각 종교의 입장에 대해 박춘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현재 정부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라며 "국회에 결의 후에도 더 좋은 과세 방안이 있다면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희망 주는 불교 되도록 노력하자"

조계종, 5일 중앙종무기관 신년 하례 법회

조계종은 2월 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신년하례 법회를 봉행했다.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교역직 · 일반직 종무원 300여 명이 참석한 법회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4대 집행부 과제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새해에는 34대 집행부의 과제들을 정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불교가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2월 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제공= 조계종 총무원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종단의 자성과 쇄신 노력에 종무원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새해에는 친절한 마음과 미소로 이웃과 함께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제안했다.

신중일 기자

행자교육 거부 놓고 조계종 · 선학원 '설왕설래'

조계종 46·47 사미 사미니계 교육 선학원 행자 5명 입교 예정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선학원 수계 교육이사에 선임된 철오 스님의 교계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교육원은 불교닷컴과 BTN불교TV에서 보도된 철오 스님 인터뷰 중 "새해 들어 조계종 교육원이 사미 사미니 수계교육을 하는데 미등록 사찰이라는 이유를 들어 선학원 도제의 행자등록신청을 거부했었다"라는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2월 3일 밝혔다.

교육원은 "선학원의 행자등록 신청에 대해 거부하지 않았으며, 행자등록 거부로 인한 항의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지난해 3월 중 중앙종회에서 선학원대책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으며 선학원의 도제 양성에 대한 종단 방침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기관지인 '불교저널'을 통해 재반박했다. 불교저널은 경북의 소속 사찰에서 벌어져 은사 스님은 행자와 이연할 수 밖에 없었다고 기술했으며 1월 13일 선학원 종무원이 교육원에 관련 사실을 따져물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월 18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되는 교육원의 제46기 사미 사미니계 수계교육에 선학원 행자 2명이 입교하며, 제47기 사미 사미니계 수계교육에 선학원 행자 3명이 등록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소식지 · 기념관 건립 추진
10.27법난위 정상화 '박차'

소관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전한 10.27법난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위원장 정만, 이하 법난위) 소식지 〈귀정〉을 발간하고 조직정비를 통해 명예회복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식지 〈귀정〉은 바른 것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10.27법난에 대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의 의지가 담겼다. 소식지에는 위원회의 소개, 피해신청 접수 및 처리, 주요 활동 일지 등을 싣고 피해자인 신원사 중하 스님의 인터뷰도 담았다.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신청은 총 178건이며 이 중 명예회복 110건, 의료지원금 32건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31건에 대해서는 약 5억 4천만원의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명예회복의 경우 피해 당사자의 직접적인 신청이 필수다.

법난위는 "1년에 2회 정도 소식지를 발간해 사부대중에게 법난위의 활동을 알리고 피해자들과는 관련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난위는 지난해 법률 개정을 통해 소관부처를 국방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하고 지원단을 사무처로 개편해 조직의 안정화를 꾀했다. 법난위는 "국방부 소속으로 발생했던 혼란스러웠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현재는 문광부 직원들이 사무처로 파견돼 조직은 안정을 찾은 상태다. 여기에 민간 전문직 사무원을 채용하고 피해자 의료심사 기념관 건립 등 핵심 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혜숙 기자

2014년도 대한불교원효종 승려증 갱신 및 사찰등록증 갱신 공고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2014년도 승려증 갱신 및 사찰등록증 갱신을 실시 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4년 2월 1일 ~ 3월 15일
◆ 대　　상 : 대한불교원효종 소속의 모든 승려 및 사찰
◆ 구비서류 : 승려 – 주민등록등본, 구 승려증 사본, 사진 3매 / 사찰 – 구 사찰등록증 사본, 주지임명장 사본
◆ 접수장소 :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 (경북 경주시 서라벌대로 322-10 / 전화 054-743-0700 팩스 054-741-9002)

위 기간에 승려증 및 사찰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적의 대상이 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주시거나 전화 054)743-07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하례법회 겸 종단간부 임명을 2014년 2월 21일 오전 11시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에서 거행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8(2014)년 2월 7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우석

직인 변경 공고

대한불교원효종은 아래와 같이
직인 변경공고를 하오니
종도 여러분은 참조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직인]



2014년 2월 7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우석

근대문화유산 동국사 '산문폐쇄' 이유는

군산시, 근대문화도시조성사업서 동국사 누락 '논란'

국내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주지 종걸)가 일반관광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산문폐쇄'를 단행했다. 동국사는 설날연휴를 하루 앞둔 1월 29일부터 동국사 신도와 사전 허락을 받은 문화재 연구자 외에는 일체의 관광객과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산문폐쇄 조치로 연휴 동안 동국사를 찾은 관광객들은 사찰 입구에서 발길을 돌렸다.

동국사 산문폐쇄의 표면적인 이유는 밀려드는 관광객을 수용할 시설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지만 속사정은 군산시가 추진하는 근대문화도시조성사업에 동국사와 주변지역이 제외된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군산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군산시 월명동 365,000㎡의 지역에 총사업비 1,714억 원을 투입해 일제시대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근대 건축물을 매입, 역사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동국사는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일본 양국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사찰로 일본 조동종 이치노헤 쇼코 스님을 초청해 일본 조동종의 참사문비를 경내에 건립한 바 있다. 당시 국민적 관심을 받은 이 행사 이후 동국사가 일제의 조선 수탈사를 증명하는 자료 전시회를 비롯해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해왔다. 또 연구자료를 군산시에 제공해 일제당시의 건물 복원 및 당시의 시대상 재현에도 기여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와 문동신 군산시장도 "국내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를 비롯한 근대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론에 홍보해 왔다.

늘어난 관광객에 몸살 앓는 동국사

현재 동국사는 전국적인 명소로 부각되며 평일 500명, 주말 최대 3,000명의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관광객의 증가에 비해 사찰시설 정비는 더디다.

오래된 화장실을 관광객들이 사용하며 잦은 고장과 동파가 이어지고, 경내로 진입하는 관광버스와 쓰레기 처리로 동국사 측은 몸살을 앓고 있다.

한계를 느낀 동국사는 수년전부터 문동신 군산시장과 관련 실국장들에게 문화재 보호를 위한 CCTV 설치와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확충 및 공용화장실 설치를 요구했으나 군산시는 예산확보를 핑계로 이를 거부해왔다.

문화재 보호 CCTV 요청 거절

낙후 화장실 · 주변 시설에 고충

市 홍보에만 관심… 지원 '無'

동국사 결국 '산문폐쇄' 단행



근대문화유산이자 한국불교 유일 일본식 사찰인 군산 동국사는 1월 29일부터 산문폐쇄에 들어갔다. 산문폐쇄의 이유는 군산시가 추진하는 근대문화도시조성사업에 동국사와 주변지역이 제외된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그동안 시설정비 요구를 거부당한 동국사 측은 약 1800억 원에 달하는 근대역사문화사업에 동국사가 누락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

동국사 신도회를 비롯한 지역불자들은 1월 29일 성명을 통해 △근대역사문화사업에 동국사가 누락된 경위에 대한 해명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동국사 측은 동국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와 근대사 자료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와 몰려드는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버스 주차장과 화장실, 도로 표지판 등을 시 측에서 정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동국사는 이러한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시 △동국사가 근대문화재로 포함된 군산시 홍보물의 폐기 △언론보도 시 동국사 언급 배제 △동국사 입장의 군산시 홈페이지 게시 등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지자체 측이 사태를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종걸 스님은 "오죽하면 산문을 폐쇄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느냐"며 "밀려드는 관광객 때문에 수년째 사찰 환경이 너무나 훼손돼 군산시 측에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시는 지원을 미루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군산시 근대문화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동국사"라며 "조성사업에 다른 근대문화재가 모두 포함됐지만 동국사가 누락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더군다나 동국사는 사찰로 신행공간이기도 하기에 문화재보존과 관광사업을 위해서는 다른 문화재보다 더욱 정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군산시 "정비 나설 것"… 지역불심 싸늘

군산시는 동국사의 강한 반발에 설 연휴기간 동국사를 방문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2월 4일 동국사를 방문한 군산시 관계자들과 지역 시의원은 "동국사 측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CCTV 설치, 임시 화장실 설치, 도로표지판에 동국사 표기, 2명의 문화유산 해설사를 배정하겠다"고 해명했다.

군산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도 "근대역사경관지구 조성사업의 해당지역이 아직 미정"이라며 동국사와 주변지역이 사업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군산시의 이러한 해명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를 바라보는 동국사와 지역불교계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동국사에서 만난 한 불자는 "이번 사태는 무엇보다 지역에서 교세가 약한 불교계를 하찮게 보고 있는 증거"라며 "그동안 지역에는 불교계를 무시하는 시선과 종교편향 사례가 많았다. 지역 스님들과 불자들이 합심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찰재산 처분 '운영위' 필수 결의

조계종 사찰운영위法 · 시행령 전면 시행

조계종 소속 사찰이 토지 등 재산을 처분하고 기채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사찰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종단 쇄신법안인 '사찰운영위원회법'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기 때문이다.

조계종 총무부는 2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사찰운영위원법과 동법 시행령 적용안내를 공고했다.

이에 따라 종단 소속 사찰은 이달부터 사찰의 예 · 결산서 제출 및 사찰 예산 외 특별불사와 수익사업의 승인신청, 사찰부동산의 처분(매각, 임대, 사용승낙, 증여, 교환, 담보제공 등) 및 기채 승인 시 반드시 사찰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후 관련 회의록을 첨부해 종단 총무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찰운영위원회는 주지를 비롯해 스님과 신도 등 5~30인 이내로 구성된다. 신도 운영위원은 사찰에 정기적으로 기도금을 보시해야 하며, 개인적인 영리 목적으로 지위를 남용해선 안 된다. 아울러 주지스님은 사찰의 세입세출 및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사찰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찰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부대중의 공의를 통해 종단과 사찰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33대 집행부가 마련한 종단 쇄신법안 가운데 하나인 이 법은 지난 2012년 제190회 임시중앙종회에서 통과됐다. 이어 이듬해 8월 사찰운영위원회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토대가 마련됐다.

조계종은 "의결기구로 격상된 사찰운영위원회는 종무행정과 포교의 실질적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기준 강화된다

문화재청 3일 관련 기준 고시

앞으로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시 적격업체 선정이 보다 까다로워진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3일 매장문화재 조사의 품질 향상과 관련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제정 · 고시했다.

이번에 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격업체 선정 시 단순 가격보다 기술능력과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는 합리적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 적정한 대가 보장을 위하여 낙찰하한율을 현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매장문화재 조사의 수요와 공급간 불일치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인해 매장문화재 조사 품질의 저하와 매장문화재 훼손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데 따른 보완조치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은 특수한 전문적인 분야이지만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의 기준이 다양하게 적용되어 왔다"며 "이번에 매장문화재 분야에만 특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적격심사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의 품질 향상과 관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화재청은 제도개선 방안과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을 위해 2012년 1월부터 고고학계, 사업시행자, 조사기관 등과 함께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전위원회에서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년여에 걸친 연구와 공청회,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번 기준이 마련됐다.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사업시행자와 매장문화재조사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고시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신중일 기자

올해 4급 승가고시 일상수행평가 반영

조계종 고시위, 오는 21일까지 접수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는 "3월 7일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열리는 조계종 4급 승가고시를 2월 2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4급 고시 출제 경향도 발표했다.

고시위원회에 따르면 논술문제는 선, 정토, 계율과 윤리, 화엄 등 4개 분야에서 각 1문제씩 총 4문제가 제시되며, 고시 당일 이중에서 2문제가 출제되며, 응시하는 스님은 출제된 2문제 중 1문제를 선택하여 서술하면 된다.

나아가 올해 4급 승가고시부터 각 기본교육기관에서 평가한 개인별 '일상수행평가'를 승가고시 점수에 반영한다.

신중일 기자

문화재 보수 '자격증 대여' 대거 적발

무자격업체 입건…수덕사 대웅전 등 사업 155건 추가 조사

문화재 보수 자격증을 빌려 공사에 나선 업체들과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기술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이 진행한 예산 수덕사 대웅전(국보 제42호) 등 보수사업 155건에 대한 추가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월 4일 보수기술자 15명과 자격증을 불법 대여 받은 업체 19곳의 대표 등 총 34명을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자격증을 대여한 기술자들은 주로 문화재연구소 연구원, 문화재 관련 협회 이사, 대학교수 등으로 이들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자격증 대여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은 총 4억 6350만원에 달한다.

이들 중에는 숭례문 복원 공사 단청을 맡았던 홍창원 단청장도 포함됐다. 홍 단청장은 2013년 7월 군산시 문화재 전문 보수업체인 A종합건설로부터 선금 1500만원과 매월 1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단청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혐의다. 홍 단청장은 2010년 2월부터 최근까지 3개 업체로부터 총 37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국 문화재 수리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문화재 수리업체로 등록하려면 해당 자격증 보유자를 4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수리업체들은 등록 조건을 맞추기 위해 자격증을 대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격증 대여기간과 공사기간이 겹치는 예산 수덕사 대웅전, 순천 송광사 대웅전 등 전국의 국보 · 보물 · 중요민속문화재 155건을 대상으로 무자격 상태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했는지를 추가 조사 중이다. 또 2010년 이전에도 관행으로 자격증 대여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전국의 문화재 수리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사실 몇십 년 동안 관행이었다. 보수기술자 면허증을 빌려온 대가를 메우기 위해 공사 때 질이 떨어지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부실공사의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관련 칼럼 31면

"남북 이산가족 상봉 합의 환영한다"

조계종 민추본, 5일 환영 논평 발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이하 민추본)은 2월 5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 합의에 대해 환영논평을 발표했다.

민추본은 "남북은 오늘 5일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2월 20일~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합의를 적극 환영하며,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두손 모아 기원한다"고 전했다.

민추본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입장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추본은 "이번 합의가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원만히 성사됨은 물론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남북간 대화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남북불교 교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콘크리트 법당!

정밀하고도 엄격한 공정을 거쳐 최고의 작품으로 완성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도 金(금)과 銀(은)의 가치는 분명 다릅니다.

공포 및 자재는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 시공됩니다.

- 특허 제10-0572820 (사찰의 조립식 공포의 설치방법)
- 특허 제10-0572821 (사찰의 조립식 공포)
- 본 제품은 특허제품이므로 유사하게 만들어 시공하게 되면 특허법 제225조 1항에 저촉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 징

- 화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 최소한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스님께서 직접(직영) 완공하실 수 있도록 자재 및 기술지원 해 드립니다.


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사찰 목조문화재 '썩고 있다'
백태 끼고 뒤틀림 현상 전국 확산
"방염 방충 작업 오히려 훼손" 여론
문화재청 "원인분석 의뢰"
외규장각
서명운동

(1)기초 ⇒ (2)기둥, 창방 및 평방 ⇒ (3)주두 및 공포 조립 ⇒ (4)불벽 및 도리 ⇒ (5)추녀 및 사례

설계(허가)에서 시공(준공)까지

(6)귀포작업 ⇒ (7)서가래 및 부연 ⇒ (8)지붕 합작 ⇒ (9)골조


불사완공

※ 취급품목 :
대웅전, 요사채, 일주문,
산신각, 종각, 누각

(주)한국고건축공예
주 소 : 서울시 중랑구 망우본동 357-15 (4층)
전 화 : 010-5530-6814. 02)494-4890
협력회사 : 신아건업. 신동방건축설계

일 주 문



탄허대종사 101주년 탄신다례재

평창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스님은 2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월정사 적광전에서 탄허대종사 101주년 탄신다례재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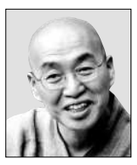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

불교인원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은 2월 11일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 창립총회를 열고 상임단장으로 기획단을 창단했다.



실천불교승가회 정기총회

실천불교승가회 대표 퇴휴 스님은 2월 20일 서울 조계사 안심당에서 2014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정토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2월 28일까지 정토불교대학 2014년 신입생을 모집한다. (02)587-8990



동두천불교연합회장 취임

동두천 자재암 주지 혜만 스님은 2월 12일 유림호텔에서 동두천불교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031)865-4045



현대불교연구원장 취임

부산 범어사 재무국장 무관 스님은 2월 7일 현대불교연구원 제3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불교학연구회 겨울워크숍

조은수 불교학연구회 회장은 2월 15~16일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현대 한국수행의 현장과 활용'을 주제로 겨울 워크숍을 연다.

〈인사〉 동국대 서울캠퍼스 2월 3일자 발령

△전략기획본부 경영평가실장 김갑순 △다르마칼리지 학장 겸 창의혁신소통센터장 황종연 △다르마칼리지 교양외국어센터장 전승우 △학사지원본부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김대영 △산학협력단 창업지원센터장 이광근 △미래인재개발원 역량개발센터장장환영 △학생심리상담센터장 조윤오 △청년기업가센터장 전병훈

〈인사〉 문화재청 2월 4일자 발령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 서기관 전기선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장 서기관 김계식 △문화재정책국 안전기준과장 서기관 우경준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장 서기관 도중필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장 학예연구관 이난영

'종책 길라잡이' 자임…"연구 현실화 주력"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재임명된 법안 스님



"조계종의 종책연구기관으로서 불교사회연구소가 해야 할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종책과 사회 의제에 대한 길라잡이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연구 사업이외에도 연구 성과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출판, 교육 사업들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대 소장으로 재임명된 법안 스님(사진, 중앙종회 부의장)은 2월 5일 임명식 수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연구소의 역할과 기조는 확고했다. 이에 대해 법안 스님은 "종책에 대한 연구 의제를 양산하고 대사회적 문제를 불교적 시각에서 해석해 실천적 방안을 내놓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불교가 사회 여론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지난 2011년 조계종 종책과 주요 의제를 연구하고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됐다. 법안 스님은 초대 소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연구 사업을 진행했다. 실제 종단 사상 처음으로 종교 · 사회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매년 실시해 불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 변화를 살폈으며, 다문화 · 양극화 등 사회 의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 마련부터 호국불교 · 직할교구 분구 등 종단 현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됐다. 지난해에도 종단쇄신위원회와 함께 교구중심제와 법계직무제도에 대한 연구와 제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법안 스님은 "교구본사는 단위 사찰의 역할에 그쳐서는 안된다. 지역불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교구중심제의 취지"라면서 "법계직무제도는 법계에 맞는 의무 이행과 신분보장,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연구소가 다양한 연구 성과를 내놓는 데 주력을 했다면 앞으로는 불교 내 의식들이 고양될 수 있도록 내실화하는 작업을 시행하겠다는 게 법안 스님의 계획이다.

대표적인 것이 불교의 양극화 문제다. 법안 스님은 "불교 내부에도 교구부터 지역사찰, 스님 간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면서 "더 이상 간과하고 있을 수준이 아니다. 종단 차원에서 이를 연구해서 해소 방안을 어떻게 종책으로 만들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대적으로 미약한 불자들의 사회 인식 제고를 위한 불교사회윤리교재와 재가자들의 수행지침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스님은 "인권, 환경 등 사회적 의제에 대한 불교적 해석을 담긴 사회윤리교재를 준비 중"이라며 "스님뿐만 아니라 신도들의 의식교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계종은 참선 수행을 표방하는 종단이지만 지난해 설문조사를 보면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재가자들이 올바른 수행을 유도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발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2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법안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임기는 3년이다. **신중일 기자**

불교 콘텐츠 한자리에 모았다

WTR-선원사
전자 불경 '연인' 출시



WTR 김연식 대표는 강화도 선원사 주지 연승 스님(사진 오른쪽)과 손잡고 연인(蓮人)을 개발 2월 6일 마포구 불교방송 지하 1층에서 제품 설명회를 가졌다.

실용경전 50편 등 PMP에 담아
휴대성 검색 기능 높여



불경 대전집, 불교성전, 찬불가 등을 PMP에 담은 전자불경이 출시됐다. WTR 김연식 대표와 강화도 선원사 주지 연승 스님이 손잡고 전자불경 연인(蓮人)을 개발 2월 6일 마포구 불교방송 지하 1층에서 제품 설명회를 가졌다.

WTR 김연식 대표는 무역업을 하면서 얻은 아이디어로 이번 제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업무 때문에 자주 미국 출장을 가는데 재미교포들에게 불경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자주 받았다. 하지만 불교 콘텐츠라는 것이 워낙 분량이 방대해 전달의 어려움이 많았다. 이들을 전자 콘텐츠로 만들어보자고 마음 먹고 강화도 선원사 연승 스님의 조언을 구해 전자불경 연인을 공동개발하기에 됐다"고 제품 개발 동기를 밝혔다.

여기에는 불경 대전집, 불교성전, 연승 스님의 저서 〈좋은 연 이야기〉, 찬불가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수록했다. 정전식 터치 패널을 장착 경전구절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글자크기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스마트폰 어플로도 불경을 만날 수 있지만 어르신들에게는 기기의 활용이 쉽지 않을 것이다. 전자불경 연인은 방대한 양의 불교 콘텐츠를 한 자리에 담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고 글자 크기 조절도 가능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찰이나 개인 성향에 따라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고 설명한다.

앞으로 WTR은 △불교 전자책 서비스 개발 △불교 문화 콘텐츠 제작 △불교문화 관련 온라인 서비스 등의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정우 스님, 국방부 감사패 수상

핫팩 22만개 등 위문품 지원과 사기 진작 공로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이 1월 29일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킨 공로로 국방부장관 감사패를 받았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이날 "정우 스님이 필리핀 태풍피해 특별 성금기탁을 비롯해 전방부대 경계작전에 도움을 주는 물품 기증 등을 통해 국군장병 사기진작과 신앙 전력화에 기여한 공을 높이 사 국군 전 장병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정우 스님은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을 돕기 위한 성금을 모아 지난해 11월 1000만원을 국방부에 전달한데 이어 전국 군법당 모연을 통해 모금한 3000여 만원도 전달할 계획이다.

또 군장병 위문품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 1차 위문품으로 핫팩 22만개를 격오지 부대 27곳의 군장병에게 전달했다. 또 1월 27일과 28일 30사단 신병교육대와 26사단 신병교육대를 찾아 장병 2000여 명에게 자장면과 과일 점심공양을 보시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9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 선정

이상국 시인 · 소설가 이경자 씨 등



이상국



이경자



이정환



유성호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현대불교문인협회와 계간 〈불교문예〉가 주관하는 제19회 현대불교문학상에 이상국 시인과 소설가 이경자 씨가 선정됐다. 또한 시조 부문에는 이정환 시조시인, 평론부문에는 유성호 문학평론가가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사흘 민박' 등으로 시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이상국 시인은 빼어난 기교로 생각할 여지를 주는 여백이 많은 작품을 써 온 점을 인정받았다. 장편 '세 번째 집'으로 소설부문 수상자에 오른 이경자 소설가는 탈북 여성을 소재로 한반도 현실을 날카롭게 파헤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학평론가 유성호는 전통적 서정시 개념을 극복하고 보다 유연한 확장을 위한 이론적 모색을 지속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조시인 이정환은 중앙시조대상 · 이호우시조문학상 · 가람시조문학상 등의 수상으로 그 저력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4월 19일 오후 3시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000만원씩을 시상한다.

정혜숙 기자

Chinese as Second Language

남경대학한국캠퍼스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중의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❶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12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❸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4년 2월 20일

❹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

다양한 강좌… 사찰 문화센터는 벌써 '봄'



사찰들이 봄을 맞아 다양한 문화강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조계사 불화반 수업에서 수강생이 진지한 표정으로 불화를 그리고 있다.

2014년 사찰 봄 문화강좌에 수강생 몰려

긴 겨울이 끝자락에 다다랐다. 겨우내 집안에서 웅크리며 답답했다면 문화 프로그램을 배우며 새봄을 맞아보는 건 어떨까? 조계사의 요가반과 불화반,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의 사찰요리와 꽃꽂이, 한마음선원의 풍물교실 등 다양한 문화강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사찰문화센터를 통해 절에서 신심도 돈우고 여가도 즐기는 1석 2조의 효과를 누려보자.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조계사

3월 개강을 앞둔 조계사 문화강좌는 도심속에 위치해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요가, 천연염색, 한국무용, 불화, 도자기, 공예, 서예, 민요, 단소 통키타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중에 있다. 10년 넘게 이어오면서 꾸준히 인기를 모으고 있는 요가는 바르고 체계적인 수행을 통해 생활속에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최적의 상태로 이끌어준다. 불교 미술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키우고 불보살님의 모습을 자신의 손으로 정성스럽게 그리는 불화반 역시 인기 프로그램이다. 천연염색 프로그램도 주목할만하다. 수강생들은 봉축행사 때 직접 조계사 스카프와 티셔츠를 염색하고 연희단 옷도 염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02)768-8580

국제선센터

국제선센터도 상담 교육 프로그램 '나는 행복한 사람' , 다도, 한지 공예 등으로 3월 개강을 앞두고 있다. '나는 행복한 사람' 은 불교상담개발원의 원장 도현 스님과 사무국장 황선미 씨가 강사로 나서 일상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추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며, 협력적인 관계 맺기를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도 강좌는 차와 차나무의 효능과 다식 레시피와 시대별 차문화 등을 내용으로 교육한다. 한지공예는 사각접시 휴지케이스, 서랍, 경상 등 실생활에 응용이 가능한 소품과 가구를 만들 수 있다. 동의보감의 체질론(형상의학의 세계)은 동의보감 건강관리법, 단전의 바른 이해, 갱년기 장애의 예방과 치료, 형상체질에 따른 공부 방법, 화병 우울증 스트레스 노이로제 예방과 치료 등으로 진행된다. '선의 공부법과 대화법' 은 간화선을 통해 일상에서 수행과 신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불광사 불광교육원

불광사 불광교육원 바라밀문화기행, 불화, 오카리나, 하모니카 교실 등을 진행한다. 특히 2014바라밀문화기행은 매월 두 차례 사찰과 불교유적으로 문화기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이다. 20년 넘게 문화기행 해설을 해온 지안 거사와 불광사 스님들이 이끌고 있다. 올해는 2월, 경주 남산 일대를 시작으로 3월 하동 쌍계사 · 연곡사 · 칠불암, 4월 진안 장수, 5월 논산 등의 답사가 예정돼 있다.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는 사찰음식, 동양 꽃꽂이, 다도, 규방공예 등의 강좌가 운영중이다. 특히, 전국비구니회관 사찰음식반은 선재 스님과 함께하며 주 1회 1년 강좌로 진행된다. 수강 대기자가 밀려 있을 만큼 인기가 좋다고 계절마다 제철 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은 물론 고추장 된장 간장 만드는 법도 배울 수 있다. 동양 꽃꽂이는 다양한 소재의 꽃과 예술 기법을 활용 기념일 등에 맞는 꽃꽂이를 배울 수 있다.

조계사- 요가 불화 다도 등

법룡사- 사찰요리 인기

국제선센터- '나는 행복한 사람'

불광사- 바라밀문화기행

한마음선원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안양 본원 인근에 안양불교문화회관을 설립하고 불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예술 · 문화 활동과 함께 실생활에서 쓰이는 유용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문화강좌는 다도, 손뜨개, 태극권, 한글교실, 선법가교실, 스케치, 생활요가, 시 · 수필, 꽃꽂이, 풍물교실(초 · 중급), 영어회화, 플루우트, 단소, 매듭&규방공예, 불화&민화 등이 마련됐다. 방과후 강좌는 초 ·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미술, 한자, 발레, 하모니카 등을 진행한다. 특히 나의 장점과 상대의 장점도 함께 찾아보는 집단 프로그램인 '참모습 지켜보기' 도 개설해 인기를 끌고 있다.

한마음선원은 상 · 하반기로 나누어 문화강좌를 진행하며, 참여한 수강생들의 작품과 솜씨를 선보이는 작품전시회를 정기적으로 연다. 이번 봄학기는 3월 2일부터 5월 24일까지 진행되며 2월 28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월정사성보박물관문화대학

월정사 성보박물관 박물관 문화대학은 불교문화에 대한 이론 강의 현장 답사를 목표로 문화답사반과 민화연구반을 운영중에 있다. 특히, 민화연구반은 2006년 개강해 지금까지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 특히, 민화는 밑그림이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상반기는 3~6월, 하반기는 9~11월 운영되며 가을 오대산 문화축전 기간에는 1년 동안 그려온 회원들의 작품을 모아 민화작품전시회도 연다. 상반기 민화 수업은 3월 2일 개강이다.

통도사성보박물관

통도사성보박물관은 2014년 문화강좌를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단청, 불화, 서각, 전각, 다도, 불교문화답사반, 전통손누비반, 생활자수반 등이 있으며 개강일은 3월 3일이다.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강좌는 10여년 동안 대중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오고 있으며 특히 불화나 단청반은 전문적이고 체계적 교육으로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미술전공자들도 찾을 만큼 인기가 좋다.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참좋은평생교육원

노자 인문학, 사물놀이, 오카리나, 가야금, 대금 · 소금 · 단소, 바라무, 전통불화, 민요, 우리춤체조, 가요교실, 칭찬과 웃음치료, 요가, 다도, 서예, 라인댄스 등이 진행된다. 분기별로 강좌가 진행되며 4월 개강을 앞두고 있다.

2014 상반기 전국사찰 문화강좌

서울 경기	조계사	요가, 천연염색, 불화 등	(02)768-8580
	국제선센터	'나는 행복한 사람', 다도, 한지 공예 등	(02)2650-2200
	불광사 불광교육원	바라밀문화기행, 불화, 오카리나, 하모니카	(02)419-3344
	길상사	꽃꽂이 다도 불화 서예	(02)3672-5945
	관문사	관문서당, 테라피 요가, 다도, 사경반, 고전무용	(02)3640-5300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사찰음식, 동양 꽃꽂이, 다도, 규방공예 등	(02)3411-8103
	한마음선원	다도, 손뜨개, 태극권, 방과후 강좌	(031)471-3669
지방	월정사성보박물관문화대학	'박물관 문화대학' 문화답사반, 민화연구반	(033)339-6635
	통도사성보박물관	단청, 불화, 서각, 전각, 다도, 불교문화답사반 등	(055)384-0020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노자 인문학, 사물놀이, 오카리나 등	(053)471-8225
	전북불교회관	오카리나, 다도	(063)277-3497



①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사찰음식 수업 ②조계사 문화강좌 통기타 교실 ③통도사 성보박물관 불교문화답사반 ④한마음선원 문화강좌 수강생들의 작품전시회 ⑤ 국제선센터 다도반 수업 장면

동사섭 행복마을 용타 스님의 50년 수행의 결정체

공을 깨닫는 27가지 길

"이 책의 공리空理를 정립하기 시작한 것은 색즉시공色卽是空을 파지把持하였던 대학 시절부터였습니다. 그러하니 이 책자는 50여 년 동안 만들어져 온 셈입니다. 참으로 긴 세월 동안 묵은 책입니다. (중략) 27개의 공리를 음미할 때마다 그 하나하나에서 타-ㄱ 트인 해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의 초기에는 공리를 관행할 때만 걸림 없는 해탈감을 느끼겠지만 그 관행의 횟수가 늘어나다보면 삶 전반이 해탈감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머리말 중에서



지고한 행복으로 이끄는 동사섭 고급과정의 교재

용타 스님이 창시한 동사섭은 정체正體, 대원大願, 수심修心, 화합和合, 작선作善이라는 삶의 5대 원리를 바탕으로 한 마음수련프로그램이다. 이 책은 동사섭 고급과정의 교재로서 독자들에게 공空을 깨닫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

■ 용타 지음 | 120쪽 | 10,000원 | 변형4·6판 양장, 작은 책 부록

민족사 구입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민족사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여래장사상의 완결서인 『대승기신론』

여래장사상에 천착한 이평래 교수가 평생을 바친 역작 『대승기신론 강설』!

大乘起信論 講說

이평래 교수의

대승기신론 강설

이 책의 특징

1.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의역意譯하였다.
2. 친절한 용어 해설로 내용 이해를 도왔다.
3. 도표를 통해 대승기신론의 세계를 알기 쉽게 열어놓았다.
4. 인간의 내면세계를 긍정적으로 서술하여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준다.
5. 중요 개념은 산스크리트어를 대입해 의미를 확실하게 표현했다.
6. 법신설은 여래장사상의 정수, 법신설에 대해 자세하고 명확하게 강설했다.
7. 마음이 곧 '여래장如來藏' · '불성佛性', 중생이 곧 여래임을 일깨워준다.

『대승기신론』의 '대승'이란, 소승에 대한 대승이 아니라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마음의 본성이 진여라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헤매고 있다. 탐貪 · 진瞋 · 치癡 3독三毒의 번뇌에 더럽혀져 추한 존재로 있는 것이다. 대승의 실체가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 추한 마음이 깨닫는다. 오뉴월 푸른 땡감이 잘 익어서 동지섣달의 빨간 홍시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마음 밖에 깨달음의 주체가 없다는 말이다. 중생심에는 미망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힘을 갖추고 있다.

–머리말 중에서



■ 이평래 강설 | 624쪽 | 29,500원 | 신국판 양장

민족사 Tel. 02)732-2403~4

“행복한 국민 만들기 사업에 주력”

불교 주요 신행단체 신년사업 발표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 사진 왼쪽)은 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종회분과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4년을 불교상담 전문화와 대중화 기틀 마련의 해로 삼고 핵심 사업을 추진 해 나간다고 밝혔다.

불교상담개발원… 불교상담대학교 설립 및 분원설치

불교여성개발원… 미혼모(부)자녀 지원사업 실시

대한불교청년회… 취약계층에 복지증진 프로그램 지원

불교계 주요 신행단체들이 2014년 주요 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불교상담 전문화와 대중화를 위해 불교상담불교대학원대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전국 주요 포교거점에 분원을 설치하는 등 불교상담을 불교의 대표브랜드로 만드는데 중점을 둔다. 불교여성개발원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공동체 문화 확산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대한불교청년회는 사회통합을 위해 취약계층 및 가정불화를 겪는 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펼친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종회분과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4년을 불교상담 전문화와 대중화 기틀 마련의 해로 삼고 핵심 사업을 추진 해 나간다고 밝혔다.

첫째로 불교상담의 전문화를 위해 조계종 종단 불교상담대학원대학교 설립으로 불교상담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도현 스님은 “현재 불교상담개발원의 교육공간은 불교상담대학 인원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본원이 위치한 조계사 신도회관은 역사문화관광지구로 선정돼 3년 전후에 철거될 예정”이라며 “불교상담 발전의 필수 기반 마련을 위한 불교상담개발원 교육관 불사에 인적 · 물적 자원을 결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불교상담개발원은 스님과 재가자를 중심으로 한 108인 후원단을 모집해 불사 모연활동을 펼친다. 오는 6월 중순께는 후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불교상담 인력들의 활동영역을 청소년, 어르신, 다문화가정, 미혼모, 군인, 재소자 등 분야별 전문상담팀으로 구성한 상담활동도 펼친다.

또 불교사회복지 법인 · 시설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활동처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 이는 포교원의 2014년 전략과제 중 하나인 ‘지역의 분야별 전법자원 발굴 · 확대와 전문성 강화’와 맞물려 진행될 계획이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종단 대표 불교상담 전문기관으로서의 연구와 교육 활동을 지속하고 확대해 나간다. 불교상담관련 학회 및 학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며, 불교상담 워크숍과 세미나를 연 2회씩 개최하고, 불교상담 관련 전문특강 및 상담 사례토의를 정례화해 연구와 교육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불교상담의 대중화를 위해 불교상담개발원 지역 분원 및 사찰 상담실이 설치된다. 부산과 울산, 대구, 경기도 강원 등 전국 주요포교거점에 불교상담개발원 분원을 설치하고, 주요 사찰 내 불교신행 및 심리상담실을 마련해 운영인력을 지원한다.

또한 각 사찰의 불교대학에서도 불교상담을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개설해 지원해 나간다. 현재 부산 범어금정불교상담대학, 울산 여여불교문화대학이 불교상담 심리학과 운영하고 있으며, 불교상담사이버대학 교과과정이 조계종디지털대학 전문포교사 필수과목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이다.

불교상담개발원 산하 불교자살예방센터 협의회(회장 도성 스님)를 통해서는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실천하기 위해 다채로운 사업을 펼친다.

올해 교육원 연수교육과정 ‘자원봉사활동과정’에서 불교상담개발원 부설 사단법인 자비의 전화가 인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무료전화상담 자원활동과 면접상담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불교문화연수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국제선센터 등과 협력해 프로그램 및 강사를 지원하며, 이 밖에도 생명존중 캠페인을 비롯해 자살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범국민 · 범종교적 불교자살예방사업을 실시해 나간다.

도현 스님은 “한국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바쁘게 살면서도 오히려 시간에 쫓기고 남보다 뒤쳐질까봐 불안해한다. 이런 사회 환경에서 스님들의 책이 대형서점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자주 눈에 띄고, 템플스테이의 인기가 커져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불교상담’은 머지않아 불교계의 대사회적 역할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고 ‘불교’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것이다. 때문에 불교상담의 전문화와 대중화가 한국 불교 미래의 큰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경연, 이하 개발원)은 2014년을 △여성불자 역량 결집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공동체 문화 학산 △불교여성광장 건립 기금 모금을 주요 활동으로 삼고 사업을 실시한다.

2008년부터 승만경연구회를 통해 승만경 공부와 승만보살 10대원 실천사업을 지속해온 개발원은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승만보살 10대원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매뉴얼 ‘승만보살 10대원 실천 워크북’을 발간한다. 여성불자를 비롯해 남성불자들도 서로 소통 · 교류하며 역량을 강화하는 명상힐링 워크숍, 직장인을 위한 인문학강좌 등을 진행한다.

회원 확대를 위해 지난 연말 창립한 불교여성개발원 강원지원과 부산지역 여성불자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대구 · 대전 등에 신규 지원을 설립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교여성개발원은 가족지원센터를 부활시켜 신규사업으로 미혼모부자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강화해 매월 둘째 주 일요일 10시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 스님을 초청한 다문화가족법회를 진행한다. 이밖에 노인자살예방 및 웰다잉 강사를 양성해 지역기관들과 연계해 파견할 계획이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 이하 대불청)는 △지역사업을 추동하고 지원하는 사업 △중앙 인프라여야만 실현가능한 직접사업 △모델링 및 인큐베이팅 사업을 기조로 삼고 대불청의 결속력을 강화해 나간다. 특히 대불청은 방장스님 친견법회, 종정스님 수계법회, 전국불청지도자 연수를 열어 대불청 회원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또한 비진학청소년들의 진로코칭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

이와 함께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오는 4~12월부터 대불청 중앙과 해당 지역 지구 · 지회 활동가가 협력해 복지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지난해 한국심리코칭협동조합과 MOU를 체결한 대불청은 부모와 자녀 간 세대 · 가치관 차이로 갈등에 놓인 가족들의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가족 프로그램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중앙대 불교학생동문회 신년법회

화공과 78김재담 회장으로 취임

중앙대 불교학생동문회(회장 김재담, 화공과 78)는 1월 19일 서울 열린선원에서 신년법회를 거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김재담 회장 취임식도 함께 진행됐다.

김재담 회장은 역대회장을 고문으로, 선배기수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엄태웅 사장(79학번), 맹재성 사장(80학번)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법현 스님의 경전합송 이야기와 금강경의 교리발달사상의 강의 등도 진행됐다.

불교학생동문회는 “동문회는 매월 셋째 주 일요일 법현 스님을 모시고 금강경 강의를 듣기로 했으며 상 · 하반기에 등산법회 및 성지순례와 특별법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불교전체 행사인 연등축제와 대불련동문수련회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앙대 불교학생동문회(회장 김재담, 화공과 78)는 1월 19일 서울 열린선원에서 신년법회를 거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김재담 회장 취임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나은 기자

“영어로 불교 지식과 경험 나눠요”

동국대 국제선센터, 3월부터 ‘글로벌불교 함께해요’ 실시

불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영어로 발표하고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국제선센터(선원장 수불)는 오는 3월부터 매주 토요일 2시 스님과 일반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영어법회시간에 참가자들이 영어로 불교에 대한 경험을 발표하는 ‘글로벌불교 함께해요(Let's Share Global Buddhism)’를 진행한다.

‘글로벌불교 함께해요’는 1~2페이지의 발표문을 동국대 국제선센터로 제출하면 발표일을 잡아 심사위원(외국인 불교수행자)및 법회 청중들과 영어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2명의 외국인이 발표제안서를 보냈으며, 3월 8일과 4월 12일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동국대 국제선센터는 “국내불자와 외국인이 참석하는 영어법회 시간에 한국 불교가 글로벌 불교와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했다”며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도 되며, 의사소통만 가능하면 선발될 수 있다. 발표자(팀)에게는 1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동국대 국제선센터는 2월 18~2월 24일 ‘간화선 집중수행’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수불 스님의 화두법문으로 입제를 시작해 6일간 개별적으로 참선 정진에 들어가며, 수불 스님이 직접 화두점검을 하게 된다. 참가비는 25만원. (02)2260-3891

이나은 기자

공무원 불자들, 수행으로 새해 맞아

1월 25일 양산 통도사에서 신년법회 및 임원 연수

공무원 불자들이 자비수참으로 새해를 맞이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인, 소청심사위원장)는 1월 25~26일 양산 통도사에서 ‘신년법회와 임원연수’를 개최했다.

이날 공무원 불자들은 통도사 교무과장 성법 스님의 지도로 자비수참을 배우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참회와 계율의 정신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불련 신년법회에는 정부 중앙부처를 비롯해 서울 · 부산 · 대구 등 지자체 등 각 기관불자모임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머무는 곳마다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마다 진리임을 깨닫는 공무원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인, 소청심사위원장)는 1월 25~26일 양산 통도사에서 ‘신년법회와 임원연수’를 개최했다.

김상인 회장은 “불자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신년법회와 연수를 마련했다”며 “수행정진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자”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4년 1월 15일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4년 3월 4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대각 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생전예수재 특강
◇원서교부 : 2014년 1월 15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4년 3월 7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969-4981 / 팩스 02)964-2433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6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4년 3월 14일까지
◆개강일시 : 2014년 3월 17일(월요일) 개강
매주 (월 ·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취미 활동으로 보람과 건강 동시에”

불교 장애인복지관 취미·여가 활동 행사 다채

“안마와 역술외에 우리 같은 시각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늘 고민했습니다. 4년동안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손끝으로 만지면서 써내려간 좌절과 고통이 하나작품으로 탄생 할 때마다 더욱 열심히 글을 써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시각장애인 1급 송00씨
(별바라기-문예창작 동호회)



성북장애인복지관이 진행하는 ‘맛나행복 요리특강’ 회원들은 단순히 만들기 활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 장터를 열어 팥빙수 등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에 기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의 취미활동을 장려하고자 ‘1인 1취미 갖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운영, 장애인들도 취미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관의 중증장애인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취미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연계하고자 기획됐다.

현재 서울시 내에는 42개의 장애인복지관, 총 118개 동호회 1,570명이 참여 중이며 △체육활동 동호회 33개 △문화체험 13개 △등산 9개 △노래·사진촬영·연주가 각각 8개 △바리스타 등의 기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구립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현관)은 ‘맛나행복 요리특강’ ‘산행 스케치-등산’ ‘배드민턴’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맛나행복 요리특강’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베이커리, 한식, 디저트 등 다양한 메뉴를 만드는 시간을 가지며 외부로 환원하기도 한다.

원혜영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만들기 활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장터를 열어 팥빙수 등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에 기부하는 등 여러 활동을 펼쳤다. 모임을 자주 가지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회원들의 반응이 좋아 정기적으로 월 1회 베이커리 교육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계획했다”며 “지금까지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먹거리판매를 주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소외이웃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행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립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조석영)은 ‘손소리(핸드벨) 연주’ ‘노찾사(노래)’ ‘조리개(사진)’ 동호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10~15명으로 구성된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연습을 하고 복지관 내 행사에서 실력을 뽐낸다. ‘손소리’ 동호회는 지난 연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리더대학 종결식에서 핸드벨 공연에서 맑고 청아한 소리로 강당을 가득 메웠고, ‘노찾사’의 흥겨운 노랫가락은 파티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만들기도 했다.

이밖에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종호)**은 ‘영복회-파크골프’, ‘spin-당구’, ‘포켓볼’ 등 체육활동과 ‘가온누리-사물놀이’ 연주활동 등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 불교 산하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고명석)은 장애인들의 자립과 자활을 통한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성인 중증장애인 자조집단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요리교실 ‘cook&cook’을 진행, 참가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고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송댄스교실을 열고 있으며,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관 관계자는 “방송댄스(안무)를 직접 접해보지 못했던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기회의장을 마련하고 있다. 학생들은 다양한 방송 댄스를 접해 그 과정을 배워나가면서 잔존능력 향상 시킬 수 있고, 다양한 체육 활동 및 운동기술 등을 습득해 상호간의 협동심을 형성하며, 더불어 흥미를 중심으로 한 행동을 통한 활동으로 주의 집중력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성타)**은 장애인체육관을 마련해 △꿈나무 체육교실 △어울림 체육교실 △스매싱 탁구교실 △돌고래 수영교실 등을 열어 장애청소년과 아동들이 균형 있는 신체를 발달시키고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배동국)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지공예 △하모니카 △지역탐방 △볼링 △야외활동 등을 펼쳐 삶의 질과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기 군포시장애인복지관(관장 김용철)은 영어, 서예, 사군자 등을 배울 수 있는 여가활동 수업을 비롯해 사진출사 및 생활과학 실습, 생활소품포장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서비스 지원을 통한 재활 및 사회통합을 추구하며,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장애인들을 낮시간 보호해 장애인 가족의 항시보호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하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국제구호활동가 양성 교육 성료

조계종 복지재단, 1월 20~24일 ‘청년 자원활동가 학교’ 개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불교계 국제구호활동가 양성을 위한 첫 행사를 실시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1월 20~24일 전법회관 6층 프로그램실에서 ‘청년들을 위한 자원활동가 학교’를 개설했다.

국제구호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국제사회복지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나눔사업부문 김동훈 부장이 강사로 △국제개발협력 현장 이야기 △국제자원활동 현장 이야기 △현장에서의 위기관리 △국제개발의 새로운 흐름들 △기후변화와 국제개발 △국제개발 진로이야기 등 총 6개 영역에 대한 내용을 강의했다.

이번 교육에는 국제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대학생, 청년들이 주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로터스월드, 아이들과 미래, 한울안운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하는 국내의 다양한 기관의 실무자와 자원봉사자 등 120명이 참여해 불교계의 국제사업 역량을 우리 사회에 회향하는 자리가 됐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은 “앞으로 국제사회복지사업에서 한국불교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해외현장에서 활동할 청년 인재들의 양성이 교계에서도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재단은 청년국제자원활동가학교와 같은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불교계의 국제구호역량을 키우는데 힘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청년들을 위한 자원활동가 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이번 청년자원활동가학교 개최를 계기로 상반기 중에 재단 산하에 국제사회복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면서 불교계 국제구호사업을 지원할 ‘국제사회복지지원센터’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한 센터의 주요 사업으로 해외현장에서 활동할 청년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여러 불교 국제개발 NGO들과 협력해 ‘청년자원활동가학교’ 및 ‘교계 개발NGO 실무자 워크숍’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정목스님·웅산·이창재 감독, 생명나눔 앞장선다

생명나눔, 2월 5일 홍보대사 위촉식 및 불교상담개발원 협약식 가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2월 5일 본부 사무국에서 정목 스님 웅산 이창재 감독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창재 감독, 일면 스님, 정목 스님, 가수 웅산

힐링멘토 정목 스님과 불자 재즈보컬리스트 웅산, 영화 ‘길 위에서’의 이창재 감독이 생명나눔을 알리는데 앞장선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2월 5일 본부 사무국에서 정목 스님 웅산 이창재 감독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해 목표인 장기기증 희망등록 5000명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스님 1000분 모시기’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목 스님을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

정목 스님은 정목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을 주는 ‘자비의 전화’ 설립 멤버로 인연이 있다.

정목 스님은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것은 많지만, 생명을 나누는 일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이라며 “평소에 하고자 했던 마음을 실천하도록 홍보대사에 위촉해 줘 감사하다. 하나의 씨앗을 퍼뜨려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목 스님은 “기도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서 몸을 모두 내어 놓는 티베트 수행자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장기, 몸을 나누려면 신구의(身口意)를 청정히 관리해야 한다. 생명나눔을 올바로 실천하도록 몸과 마음을 잘 가꾸고 예경하는 마음으로 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가수 웅산 씨도 “음악으로 희망을 나누는 일도 좋은 일이지만, 생명나눔으로 아름다운 희망을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창재 감독은 “장기기증은 다른 사람을 통해 구현하는 우주적 기여”라며 “뇌사자의 장기기증시 보통 사람과 같이 존중해 그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삶을 마감하도록 마취를 해야하며 이러한 사실이 잘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이날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과 불교발전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불교적 대안을 공동 모색하고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진행하는 자살예방 사업, 장기기증 희망등록, 조혈모세포 희망 등록, 환자 치료비 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연계 및 협력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채택할 예정이다.

도현 스님은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생명존중에 대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공유하고 강화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출발했다”며 “상담개발원은 2014년 핵심사업으로 불교자살예방사업을 선정해 전국 사찰 등을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 캠페인과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예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도현 스님은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다 긴밀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리라 믿는다”며 “공동 발전을 위해서 함께 교류하며, 더불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했다.

일면 스님은 “양 기관은 사업 내용이 다를지 모르지만, 불자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것은 같다”며 “좋은 사업을 공유해 우리 주위에 불행한 사람들을 돕는다면 불교 포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이나은 기자

진로·적성·상담 안내

인재양성
◆ 16개 항목 분석 자료 추출 ◆
■ 학습유형별 정보 제공
■ 선천적으로 적합한 계열과 학과 제공
■ 기타 성격. 인품. 평생주기별 운 예측
■ 대학 진학 (입학사정관. 수시. 정시)
■ 나와 인연되는 대학명
■ 대학 진학하는 해! 세운 분석
◆ 상 담 료 : 20만원
■ 상담 후 미 진학시 상담료 환불
◆ 학습진로상담사 학회

C.A.C 분석서


◇프로필 :
• 명리철학교육학 석사
• 미래예측학 박사
• 미래전략교육학 교수

■ 동방대문화교육원 수업 [목] (오후 2시 ~ 5시)
■ 국제문화대학원 수업 [토] (오전 10시 ~ 오후2시)
■ 저서 : 규명 (1. 2. 3권 : 한솜미디어) 실전성명학 - 상원문화사

◆ 개인 지도 : 입 문 자 10개월 과정 명리전문반 3개월 과정
◆ 수업일 : 매주 화·금요일(오후 5시 ~ 7시)

〈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73-2. 1층
〈지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01-98 2층 상담사 겸재 정 비오 (010-5524-7053)
〈지부〉 서울 성북구 동선동 5가 36 2층 (다솜) 상담사 박 홍언 (010-7925-4749)

오시는길
1호선 수원역 하차 ➡ 맞은편 720-2버스 탑동우방사거리 ➡ 새하늘교회방면 ➡ 도보 30m 규명철학연구소 1층 010-5418-5972

힐링 템플스테이와 청소년 대안교육 전문도량
성지순례와 함께하는 엔터테인먼트 골굴사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 변 성 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방생
◈공 연 내 용 : 선무도·승군의 검무·화랑의 봉술·아수라의 바라무·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힐링살풀이·불교전통무용·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공연관람·공양(식사)
◈ 단 체 공 양(식사) : 예약가능(유료)
◈ 선무도 공연 ◈
매일 오전11시, 오후3시 30분(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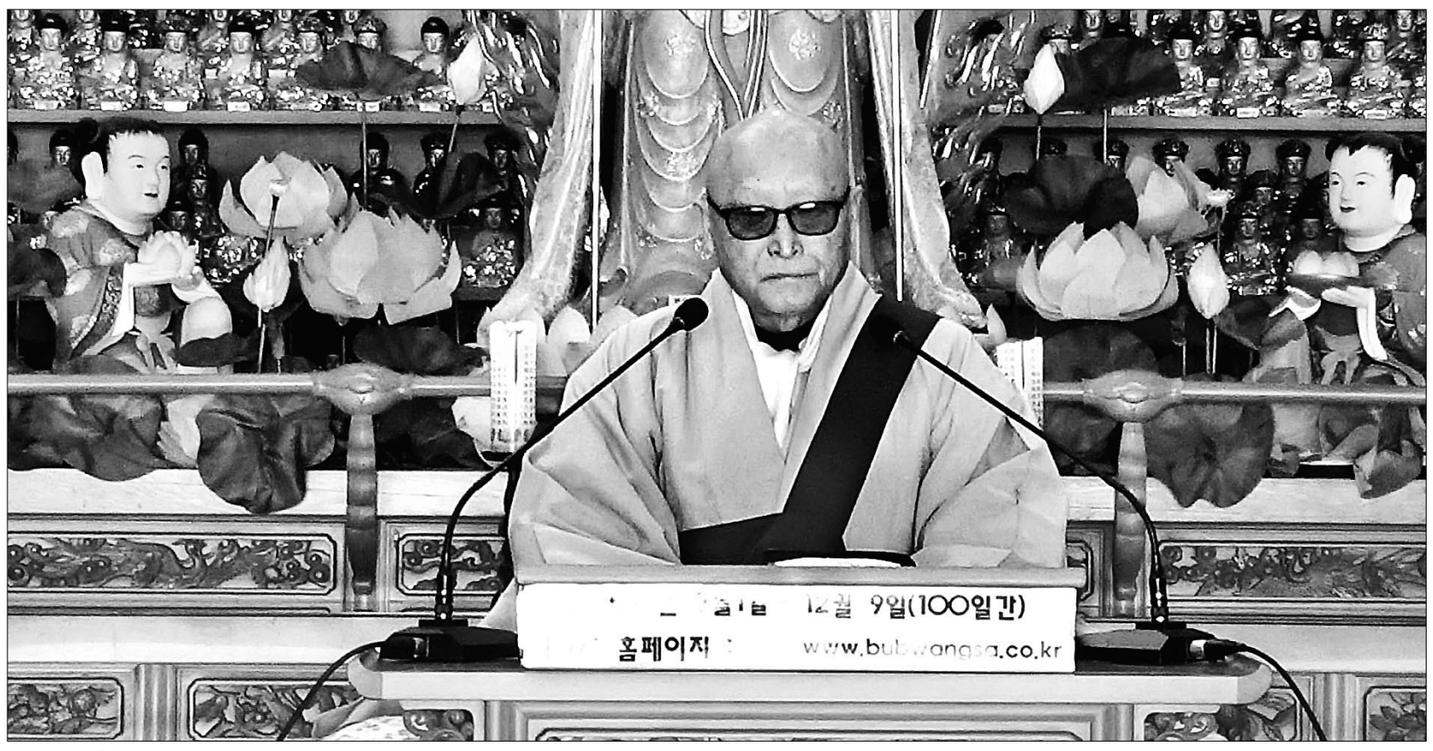
향기로운 사람 되기 위해선 '사섭법' 실천 해야

법왕사 백고좌법회

무불 스님(영명사 주지)

100일간 100분의 스님들을 초청하는 법회가 대구 법왕사에서 열리고 있다. 1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열리는 백고좌법회는 국태민안을 기원하며 신라 때부터 행해온 국가적 불교행사다. 조선시대 이래로 맥이 끊어진 것을 법왕사에서 1994년부터 지금까지 봉행해 오고 있다. 이번에는 양산 영명사 주지로 있는 무불 스님의 법문을 싣는다.

정리=배현진 기자



무불 스님은 … 전국 가훈 불교 선양회 총재며 불교 인터넷 법당을 운영하고 있다. 언양 석불사 주지를 지냈으며 현재는 경남 양산 영명사 주지다. 향불회 회주이기도 하다.

저마다의 향기

어느 날 부처님께서 아난을 대리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길에 떨어진 종이를 발견하시고 아난에게 그 종이를 주어오라고 하시죠.

"아난아!"

"예, 부처님."

"종이 냄새를 맡아 보거라."

"부처님 이 종이에는 향내가 납니다."

아난이 대답하였습니다. 부처님은 또 한참을 가시다가 길에 떨어진 노끈을 발견하시고 그 노끈의 냄새를 맡아 보라고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이 노끈에는 비린내가 납니다."

"그렇다! 향을 담으면 향내가 나고 생선을 묶으면 비린내가 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니라."

아난은 부처님의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같은 이치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인생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못나고 악취를 풍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포장이 좋고 화려하게 살아간다해도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 속에 향기를 담고 사는가에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향기를 내며 살아갑니다. 첫째는 사람의 향기요, 둘째는 보살의 향기며, 셋째는 부처님의 향기입니다.

우리들은 먼저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향기를 느끼고, 두 번째는 행동을 통해서 느끼며, 마지막으로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향기를 느낍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 마음이 향기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고 법을 배우는 이유는 부처님답게 살아가기 위한 법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 법이란 사람에게서 맡을 수 있는 향기와 다름없습니다.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말이 향기로워야 하고 향기로운 가정,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도 예의바르게 깨끗하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겁지겁 게걸스럽고 지저분하게 먹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도 교양있고 덕스럽게 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구요.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들리는 대로 하는 말을 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법문을 들으면 점잖게 말해야지 하고 다짐하다가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자기 기분에 거슬렸다고 거리 한 복판에서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겠죠.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향기' 라는 말은 가슴 속에 늘 간직하고 사셨음합니다. 항상 자기 조심을 하면서요.

남자는 남편, 아버지로서의 향기는 물론 남자로서의 향기가 있어야 하고, 여자는 아내와 어머니, 여자로서의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향기, 친구의 향기 등 각자 역할에 맡는 향기가 나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리고 그런 향기가 나는 사람이 부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향기로운 사람 되기 위한 법

향기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인 '사섭법' 을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보시섭은 베풀고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무주상보시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베푼다는 것은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고 고운 말, 고운미소도 보시입니다. 깨끗하게 옷을 입고 정갈하게 몸가짐을 단장하는 것이죠.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치장은 남한테 누가되지 않는 것이기에 이 또한 보시입니다.

두 번째는 애어섭입니다. 부드럽고 교양있는 말을 쓰며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고운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 말, 안 할 말을 항상 가려서 해야합니다.

불교의식을 할 때마다 먼저 외는 것이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라고 하는 '정구업진언' 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거나 듣기에 앞서 자기 자신의 업을 깨끗이 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구업진언에 담긴 뜻은 깨끗하고 정말 깨끗하게라는 정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사람의 감정을 복받치게 하고 성나게도 하는가 하면, 기분좋게도 하고 우울하게도 만듭니다. 일상생활에 말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경험을 통해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항상 말에 대해 신경쓰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섭법 중 세 번째는 이행섭입니다. 이는 먼저 솔선하고 봉사하려는 마음이며 좋은 일을 많이 하였더라도 겸손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천을 잘해야 하며 일에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잘하는 것도 빨리하는 것도 좋지만, 남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자기가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게끔 성실히 마음을 다해서 자기 일을 다 해야하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동사섭입니다. 혼자서 다하고 잘난체를 하지 않고 다 같이 힘으로 모아서 함께 일심동체가 될 줄 알아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불사를 예로 들자면 재가 신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동참해 주시기에 불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섭법을 실천하면 저절로 계, 정, 혜 삼학이 닦아집니다. 삼학이 닦아지면 괴로움과 속박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가 있어집니다.

부모가 어리석으면 딸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돈 많은 집에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집간 딸은 일생을 설움에서 살고 천대받으며 주눅들어 살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아들의 출세와 명예를 위해 돈 많은 사돈 며느리를 맞이하면 아들이 처갓집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며느리 등살에 주눅들어 아들의 사기를 죽이고 집안의 질서와 화평을 깨뜨려 불행하게 되겠죠.

돈 많은 집에 시집가서 행복하게 사는 경우를 못봤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사람을 구속하고 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섭법을 실천하면 돈이면 다 된다는 무지한 생각에서 벗어나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 "
> 사람에게는 세 가지 향기 있어
> 언어에서 나오는 사람의 향기
> 행동에서 나오는 보살의 향기
> 마음에서 나오는 부처님 향기
>
> 보시 · 애어 · 이행 · 동사섭은
> 향기로운 사람되는 부처님 가르침
> "

정성이 쌓이면 공덕 돼

다들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럴려면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공덕은 정성이란 말과 같습니다. 밥을 할 때도 정성스레 해야 밥이 잘 되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일에 정성을 들일 줄 알면 모든 복덕이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사람은 공부하지 않고 독서 하지 않으면 마음에 녹이 쓸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 찌꺼기를 치우지 않으면 금방 썩어서 냄새가 나게 되고 바퀴벌레와 똥파리, 쥐들이 나타나 집안을 숙대 밭으로 만들듯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그리고 삶의 질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지성과 교양을 몸에 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시궁창 냄새만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면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하는 운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을 이뤄서 한 집안에서 한 이불을 덮고 살면서도 장벽을 쌓고 살아갑니다. 부부간 장벽, 부자간의 장벽, 고부간의 장벽이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자신의 생각과 주관만 주장하고 사섭법을 실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법이 공하다고 매일매일 반야심경을 독송하면서도 '제법공상' 의 도리를 모르고 무지와 무명의 틀에서 미혹한 중생 놀음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전생에 인연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생에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 부부가 되어 만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부부도 서로 만족하며 살지 못한다고 하죠. 전생에 닦았던 업 때문에 이생에 과보를 받게 된 것이죠. 윤회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화엄경〉 약찬게에 '마야부인 천주광' 이란 게송이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마야부인이 수천 수만억 부처님을 탄생시킨 어머니라 합니다. 혼자 몸으로 어떻게 항하사수 모래보다 많은 부처님을 낳는다는 말인가요. 2차원이나 3차원의 말로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우리들의 어머니란 말과 같습니다. 당신이 나의 어머니, 나는 당신의 어머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어머니로 보고 어머니로 섬긴다면, 서로 싸워서 불행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이해되고 용서되며 서로 사랑하게 되겠죠. 배풀고 나누며 따사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불교식 가훈중에 '백초시불모(百草是佛母)' 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 생명, 만 중생이 바로 부처의 어머니란 말입니다.

내가 상대의 어머니고 상대가 내 어머니라 생각한다면, 엄마한테 욕을 하고 침을 뱉을 수 있겠습니까. 차별하고 하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해와 달과 구름과 꽃을 어머니로 생각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자신에게 공덕이 됩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큰 공덕입니다. 명예, 돈이 아니라 공덕이 쌓여서 후생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공덕을 닦지 않으면 물질과 돈, 명예와 출세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절에 자주 가서 기도하고 염불도 해야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모든 괴로움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를 어머니로 보고 섬기며 풀 한포기, 이슬 한 방울에도 감사하세요. 우리는 이처럼 여유롭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불자가 되어야합니다.

말법에는 부처님 신통력과 도인만이 사는 대박 세상에 도전하여 하늘이 숨겨놓은 불가사의한 빛으로 성불 득도하는 신통방통 도통하여 만중생을 구하는 정법안장 대법회

지구촌 유불선 일체종교가 하나로 되는 성품자리가 마음과 생명을 보는 것이 성불득도인 것이다. 참선, 염불, 화두, 명상, 서적, 말과 글로는 찾지 못하는 것을 새로운 부처님 신통력으로 자성의 빛을 볼 수 있는 하늘땅에 감추워진 천하제일의 금년 갑오년에는 윤달이 들어 한번 수행으로 앉아서 10년 수행과 같은 신통방통 달통으로 불안, 법안, 심안, 도안, 령안, 신안, 혜안, 천안, 육안, 무진안의 십안을 열어 만법에 끄달리지 않는 도법인 자성을 볼 수 있는 신통력을 얻어 자신을 버리고 나를 찾아 내 주인공인 빛으로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는 정법안장 대법회에 동참하시어 말법에 주인공 되시고 재수대통, 운수대통, 만사형통으로 내운명을 바꾸는 지구촌 수행의 최대이슈 태초에 운명을 가지고나온 나를 내가지켜 성불득도 하는고로 이 세상에서 가장값진 내건강을 찾는 법으로 수명연장하는 십장생법의 근본 달마공릉법인 생명을 찾는 음마공릉수련으로 육신의병 종교의병 정신의병 잡신의병 마음의병을 제도하여 자성의 주인공인 마음을 찾는 달마진공법은 천하제일의 성불득도 견성성불의 도법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열어 도인만이 세상을 구하는 상통천문 하달지리비전법은 부처님 신통력의 불가사의한 성불득도로 비구니 보살들로 성불득도 하는 진법 수륙보영 징종도민족업 봉천명이 정법안장인 것이다.

※ 이법은 대우주의 태양의 진법과 초우주의 공릉기법은 수행자의 마음에 문을 열어 고질병도 해결하는 하늘땅에 감춰진 비법, 운명과 팔자를 고쳐 지구촌 도인제왕 스승되어 천하를 다스리는 최고의 득도자 되는 것이고 십경신 수행인 것이다.

❶관제를 제거하는 비법 전수
❷잡신과 귀신병을 제도법 전수
❸만신,마귀,객귀,병 소멸법 전수
❹임신,불임병과 아들 낳는 비법 전수
❺재산, 부자되는 주문법 전수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010-3239-3110

이 법은 평생 직업에 구애 받지않은 인격완성 도인되는 비법인 것이며, 최고의 지도자 인격완성 스승되는 법이자 수행인 것이며 십경신 도법인 것이다.

천지개벽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귀납경의 핵심으로 자성의 문을 열고 즉시 도통하는 심법과 태일경, 옥추경 특별 강의

부처님 만불 모실 시주자 공덕자를 모십니다.

부처님 만불을 모실 도량에서 유불선 일체 종교를 초월하는 세계최대 성지로 지구촌 평화 불국정토로 만중생을 구하여 하늘에 보답하는 세세생생 자손만대 무량공덕 받으소서
010-3239-3110, 010-7204-7769

■기도입제 : 2014년 2월 17일 밤10시 월요일부터
■기도해제 : 2014년 2월 18일 밤 9시 화요일까지 무박 2일
■준 비 물 : 필기도구 간편한 옷 (농협 029-01-167866)

전화 02)821-7767 02)821-6622
환성 010-4061-7768 보성 010-8533-1601
유불선 미륵달마 불선도 십경신 총본산
산타삽타 대한불교 달마중조계종 진불선원 태양의집

전통식품교육사

전통식품교육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전통식품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전통식품교육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전통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목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제 기 동 02-966-0020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지역 포교 성공 비결, '공동체 사상' 유무

조기룡 박사, 선문화연구 15집에서 전국사찰 포교사례 고찰

한마음선원, '공생사상'으로 봉사
해남사, '수행결사'로 신심 고취
삼화사, '불교대학' 지역일꾼 배출
정토사 '친환경 공동체' 구성


안양 한마음선원의 공생 실천 프로그램의 한 모습. 공생이란 공동체 의식 함양이 주목적이다.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영향력을 지닌 사찰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사찰의 외형을 키우기보다 공동체 정신 함양의 '소프트웨어'에 충실했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2013년 4월 15일부터 9월 10일까지 조계종 포교원과 함께 전국사찰을 조사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 교수는 〈선문화연구 15집〉에 실린 조사논문 '도시와 농어촌 사찰의 지역친화 포교방안'에서 "연구 결과 현행 도시와 농어촌 사찰의 지역친화 방안은 크게 '문화'와 '복지'로 꼽히며, 농어촌의 경우 환경운동과 농촌경제 활성화도 이뤄지고 있다"며 "중요한 점은 공동체 사상의 유물"이라고 말했다.

'공생 사상' · '수행결사'가 신도 원동력

조 교수는 먼저 도시사찰로 안양 한마음선원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조 교수는 "1972년 대행 스님에 의해 창건된 한마음선원의 지역친화 활동의 특징은 복지 · 문화시설을 설립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일반 사찰에 비해 봉사실천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조 교수는 "한마음선원의 활동 이면에는 '한마음 공생' 사상이 자리하고 있다"며 "문화활동은 사찰의 문화강좌, 복지활동은 법형제회의 봉사 및 병원자원봉사활동 등이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특히 한마음선원 신도회는 6년 전부터 병원자원봉사 전담팀을 운영해 안양, 군포 등 인근 지역의 요양병원에서 9~12명씩 조를 이뤄 1주일에 2~3회 씩 이뤄지는데 이러한 활동 이면에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른 공생 실천의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울산지역 친화포교로 해남사의 사례를 들었다. 해남사는 스님 4명과 종무원 6명이 있는 작은 사찰이지만 신도 수는 1200세대가 넘는다. 해남사는 신도가 중심이 돼 지역에 활발한 실천불교를 행하고 있다.

조 교수는 "해남사의 친화포교는 무료급식인 수자타의집 운영과 국제성취포상제, 해남가족 한마당 잔치 등을 통해 진행되는데 한마음 공생 사상과 같이 '재가안거 90일 수행결사'가 그 실천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은 전통공동체 정신이 효과적

조 교수는 반면 농어촌 친화활동은 교육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조 교수는 "동해 삼화사의 경우 2000년 동해불교대학을 세워 760여 명의 졸업사와 120여 포교사를 배출했다"며 "이들이 지역봉사활동에 나서며 삼화사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삼화사는 노인전문요양원, 바라밀 유치원 등 지역에 복지 시설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당진 정토사의 경우 농촌공동체 사상에 입각해 일자리 창출사업에 나서고 있다"며 "이들 활동과 사업은 모두 농촌의 전통적인 공동체 사상에 연원을 두고 잇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끝으로 "공동체 운동으로 문화센터 운영, 도농직거래운동, 생협조합 등을 추진한다면 동시에 지역포교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원불교 태동 '불교개혁론' 영향"

정순일 교수, 소태산 · 만해 · 학명 · 용성 스님 등 관계 조명

원불교 개교 100년 기획세미나 기조강연


소태산 원불교 교조


만해 스님


학명 스님


용성 스님

"원불교 근간에는 만해와 학명, 그리고 용성 스님의 사상이 깃들여 있다."

정순일 원광대 교수는 2월 7일 원광대에서 열린 원불교 개교 100년 기획 세미나에서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대종사가 만해 스님과 학명 스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기조연설 '소태산의 불교개혁 운동과 학명, 만해, 그리고 용성'을 통해 "소태산 대종사가 1919년 10월 6일 가르침에 불법에 연원을 두고 있다는 선언을 하는데 이에는 당시 불교개혁론자들이 주장하던 최신 이론들이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소태산 대종사의 불법선언은 오랜 시간 축적된 불교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했는데 그 시작은 학명 스님과의 인연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깨달음 이전부터 가까웠던 그들은 1919년 3월 만났으며 소태산 대종사는 그에게서 불교의 핵심과 조선불교 개혁방향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그 근거로 "소태산 대종사는 자신의 상수제자인 정산을 학명 스님에게 보냈고 학명 스님은 그를 상좌로 거둬 명안이라는 법명까지 주었다"며 사례를 들었다.

정 교수는 또 "학명 스님과 소태산 대종사는 선사상의 면에서 공명하고 많은 선문답을 교환하였는데 그 선문답들은 〈대종경〉 '성리품'에 수록돼 있으며, 매우 수준 높은 것들이었다. 1920년 봉래정사에서 이뤄진 소 대종사의 법문은 전통 선종에서의 가르침과 상통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학명 스님과의 만남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는 "학명 스님과 소 대종사는 1924년 동시에 하산해 학명 스님은 내장사에서 불교개혁 행보를, 소 대종사는 불법연구회를 창립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둘이 동시에 하산하는 것은 만해 스님이 3일간 이들과 머물며 일종의 모티브를 제공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만해 스님이 다녀간 뒤 학명 스님은 밤낮으로 고민 후 두문불출 10년 서약을 깨고 하산해 선농일치 실현을 기치로 내장사 중창불사를 일으켰다. 자신의 혈육처럼 소 대종사를 아낀 학명 스님은 만해 스님의 내방을 알려 세 사람은 밤새 세계정세와 일제현황, 불교계 개혁 과제 등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만해는 시로서 두 사람의 하산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학명 스님과 소 대종사의 행보는 갈린다. 소 대종사의 불법연구회가 내장사를 출발지로 삼는 일이 내장사 스님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 이에 전주를 거쳐 익산에서 불법연구회가 창립이 됐으며 이는 원불교의 모태가 됐다.

정 교수는 또 용성 스님과 소태산 대종사의 인연에 대해서도 밝혔다. 정 교수는 "용성 스님은 1927년 대각교를 대내외에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농 · 실천불교를 전개했는데 1926년 불법연구회 경성출장소가 출범할 때 발기인들 중 일부가 대각사 신도였다. 일반인이 쉽게 불법에 들게하는 생활불교 운동과 사원경제의 자립을 위한 선농불교 등의 대각교 운동과 소태산 대종사의 개혁방향은 매우 맞았다. 다만 차이는 용성 스님은 독신을 강조했지만 소태산 대종사는 만해 스님의 견해를 택해 승려 결혼을 장려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또 "하나의 독립종단으로 전통불교와 거리를 두고 불교운동을 지향한 대각교 운동이 새로운 교단을 일구던 소태산 대종사에게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충분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율주 종진스님 '원전회편 선문염송집' 출간



고려 진각혜심 선사가 편찬한 〈선문염송집〉에 실린 인명을 일일이 검토하고 대조해 원전과 함께 정리한 책, 〈원전회편 선문염송집〉이 출간됐다.

선문염송집은 혜심 스님이 채집한 공안 1125칙과 수선사 제3세 국사인 몽여 스님이 모은 347칙을 더한 공안집으로 최고의 선서로 꼽힌다. 지난 수백 년간 한국 간화선 수행의 교본이 돼왔으며 간화선의 정착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오고 있다. 조선 후기 불교 강원의 최종 단계인 대교과에서 화엄경과 함께 강의하던 책이다. 30권의 〈선문염송집〉을 종진스님은 이번에 상하 2권 1600여 쪽으로 엮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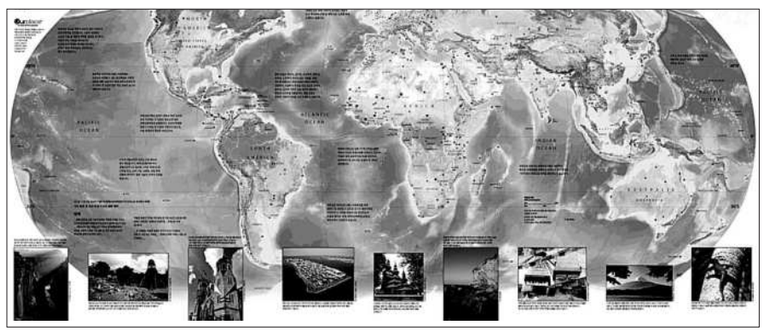
해인사 율원 율주 종진 스님이 펴낸 이 책은 각 화두의 출처를 확인해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해졌고 원전의 오류도 바로잡았다.

종진 스님은 "지난 2005년도에 〈선문염송집〉의 오류를 발견하고 검토한 결과, 한글 번역본과 연구논문들에서 인명을 오인한 부분이 더러 있고, 사법관계(嗣法關係)를 잘못 파악한 부분도 몇 군데 발견되어 회편(會編)으로 출간했다"고 편찬이유를 밝히고 "참선수행자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돼, 한국의 선법(禪法)이 크게 드날리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노덕현 기자

'석굴암' '불국사' 등 세계문화유산 한눈에

문화재청 · 유네스코, 2014년판 세계유산지도 배포



해인사대장경판전, 불국사 · 석굴암 등 981점의 세계문화유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유산지도가 배포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2월 6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제작한 2014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지도'를 한글판으로 개정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계유산지도에는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장경판전 등 불교문화재를 비롯해, 종묘, 창덕궁, 수원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전 세계 981점의 세계유산 분포 현황이 담겨 있다.

유네스코는 2002년부터 세계유산 정보를 담은 세계유산지도를 제작해 배포해왔다. 지도는 전지 885mm×580mm 크기의 포스터 형태로 총 5만 부가 제작됐다. 전국 10개 세계유산지역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비치될 예정이다. 또 전자문서 형태로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노덕현 기자

불광연구원, 제3회 전법학술상 논문공모

불광연구원이 제3회 전법학술상 논문을 공모한다. 전법학술상은 전법과 교화의 학술담론을 개발하고 현대사회에서 불교역할과 전법의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모주제는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바람직한 전법과 교화'로 △전법교화에 대한 불교사상에 대한 연구 분석 △전법교화의 역사적 사례와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 △전법교화의 현대적 방법론 제시 △전법교화의 모범사례 발굴과 해외사례 비교연구 △전법교화에 헌신한 인물에 대한 연구와 전법론 분석 등이다.

지원 자격은 박사과정 수료 이상의 국내외 학자로 전공 무관하다. 상금은 신규논문 대상인 바라밀상에 500만원, 전법상에는 300만원이 주어진다. 발표논문에 주어지는 보현상은 300만원이다. 제출 방법은 연구원 전자메일(baramil74@hanmail.net)에 4월 30일까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9월 30일까지 완성 논문을 보내면 된다. 수상작 발표는 10월 30일 공지되며 발표회 및 시상식은 12월 7일 열린다.

노덕현 기자

화제의 신간
힘의 / 원천 / 빠르게 / 배우는
법화경 핵심사상
(법문자료집)



묘법연화경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경전이다. 무한한 시간과 공간에서 석가세존의 자비 원력은 우리를 우주의 대 광명으로 끌어들인다.

법화경은 7권 28품이 전부 69,384자로 구성된 구마라즙 한역본이다. 글자 한 자 한 자가 모두 부처님 그 자체라 이름하며, 이 법화경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아플수도 없는 마음의 애환, 아픔, 슬픔과 고독을 대변해주는 생명의 빛이며, 경제, 사회, 군사, 정치, 종교를 창조한다. 신라의 원효스님께서 법화경 종요서에서 극찬 하였고, 인도에 용수보살 같은 분이 세상에서 최고 최대의 보배로운 경이라 극찬 하였다. 그런대 실제로는 법화경의 "핵심적인 사상과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뜻"은 일상생활에서 실천되지 못하고 있을 뿐 더러, 이론과 실천이 기름과 찬물과 같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법화경의 어느 일부분만을 가지고 마치 법화경의 모두 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번 "법화경핵심사상"에서 법화경 28품의 핵심 요지를 명쾌하게 드러내어 법문 자료와 독송 기도 하는데 꼭 필요하도록 집필 하였다.

송월스님 편저 / 신국판 양장본 / 값 15,000원 / 260쪽

전국 서점, 인터넷 판매중!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금강경요해
金剛經了解

반야, 깨달음의 지혜로 밝힌 금강반야바라밀경 요해
금강반야, 깨달음의 지혜와 경계가 이 책 안에 있다.

♠ 아뇩다라삼먁삼보리 깨달음을 향한 소중한 지침서
♠ 깨달음의 경계와 자기 점검
♠ 깨달음 세계가 이 책 안에 있다.
♠ 반야지혜로 밝힌 금강경의 지혜세계
♠ 법인지(法印智)로 깨달음을 여는 길
♠ 아뇩다라삼먁삼보리는 수행 성취의 지혜가 아니다.
♠ 무엇이 깨달음이며, 깨달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 깨달음의 지혜 여래의 뜻을 밝힌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실체
♠ 일각요의(一覺了義)로 꿰뚫은 금강경요해
♠ 금강 실상과 부사의 공덕세계를 드러낸 지혜의 가르침
♠ 불지혜 최고최상의 깨달음, 아뇩다라삼먁삼보리 깨달음 경계는 어떠한가?
♠ 무위실상 일성원융 본심과 본각과 본성의 세계



세웅스님 역저 / 신국판 / 456쪽 / 값 2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떤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50,000원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사찰법당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기 1대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스님들께서 원하시던 꿈의 마이크 탄생!

불자님들께서 주지스님께 올리는 최고의 보시품
(구입하시는 불자님들께는 보시자의 이름을 하단에 넣어드림)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 멋진 모양의 마이크로 법당의 품위를 높여줍니다.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정암사 적멸보궁, 43억원 투입 정비 시작

정선군, 일대 종합정비
수마노탑도 국보 승격 추진


정비에 총 43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정선 정암사 전경. 함백산 일대는 군립공원과 생태지구로도 지정된다.


국보 승격이 추진되는정암사 수마노탑.

신라 자장 율사가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적멸보궁 정암사가 올해부터 종합정비에 들어간다. 정비사업 이후 성지순례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 또한 진행될 예정이다.

정선군(군수 최승준)에 따르면 지난해 정암사 수마노탑 종합정비계획 연구용역 결과에 맞춰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4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수마노탑 5개년 종합정비계획에 돌입한다.

정선군은 지난해 보물 제410호 정암사 수마노탑의 국보 승격을 신청했지만 '원형 훼손 가능성이 높고, 사찰 창건시기 고증이 부족하다' 는 이유로 승격 거부를 당한 바 있다. 정선군은 올해 먼저 수마노탑이 통일신라 말~고려 초에 건립됐다는 역사적 고증을 위해 1억 5,000만원 사업비를 들여 정암사 전역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7월 강원문화재연구소의 현지 발굴조사에서 통일신라와 고려 시대로 추정되는 기와 문양 연화문 수막새를 비롯해 건물지 4동이 확인됐던 만큼, 수마노탑의 건립 연대를 알 수 있는 유물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국보 승격을 위한 역사 고증을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당시 조사에서는 건물지들은 계곡을 끼고 산지에 조성된 가람의 축조방법에 대한 정보와 정암사 사역이 지금보다 훨씬 넓었음을 밝혀 졌다.

정선군은 발굴조사와 함께 현재 현대식 건물로 개량된 정암사 내 관음전을 비롯한 주요 시설물을 철거하고 연차적으로 전통사찰의 모습을 되살리기 위한 복원공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사찰 종각 위치를 적멸보궁 쪽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송덕한 군 문화예술담당은 "정암사의 종합정비계획과 발굴조사 등을 통해 수마노탑의 학술적 가치와 국보 승격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선군은 정암사가 위치한 함백산과 민둥산을 군립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선군은 함백산 지구를 정암사를 중심으로 불교문화체험공간으로 구성하며 지구 내 야생화 군락지를 묶어 생태체험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함백산 열목어 서식지를 복원하고 만항지구를 공원마을 지구로 편입해 주민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로 했다.

민둥산 지구는 억새를 중심으로 하늘 아래 첫 동네 한치 마을, 삼내약수, 발부덕마을, 돌리네 공원, 화암약수 등과 연계한 4계절 가족 등반공원으로 조성하게 된다.

한편, 정암사는 신라 선덕여왕때 고승 자장율사가 당나라 산서성에 있는 청량산 운제사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석가세존(釋迦世尊)의 정골사리(頂骨舍利), 치아, 불가사(佛袈裟), 패엽경(貝葉經) 등을 전수해 귀국했으며 동왕 14년에 금탑, 은탑, 수마노탑을 쌓고 그 중 수마노탑에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유물을 봉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문화예술위 올해 4월 나주로 이전

지역불교계 "예술위 이전 영산작법 전승 등 불교문화 융성 계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올해 4월,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광주 · 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한다. 2003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발표된 지 10여 년 만이다. 이에 따라 지역 불교예술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순수문화예술진흥기구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현장 문화예술 중심의 지원기구로 전환하기 위해 만든 단체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예술위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문화예술계 안팎에서 합의하고 있는 기초예술 분야와 문화산업의 비영리적 실험영역을 대상으로 그 창조와 매개, 향유가 선순환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것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역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예술위의 이전에 따라 호남지역의 새로운 문화육성과 문화콘텐츠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예정이다. 특히 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와 많은 지역전통문화를 갖고 있는 불교계는 적극적인 대비와 활용이 주목된다.

예술위는 2014년도에 문예진흥기금 공모를 통해 전통문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등 다양한 문화에 공모사업과 예산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전통문화분야는 공연과 지역전문비평지,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해외 레지던스프로그램 등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호남지역 불교계는 영산회와 사찰음악회, 사찰음식, 해외불교계와의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문예진흥기금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광주지역에서 영산작법을 계승하고 있는 전통불교영산회 부회장 시각 스님은 "영산작법은 문형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는 한국의 전통문화이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과 예산이 부족해 일반인들에게 쉽고 편한 접할 수 공연이 없다. 양산작법 외에도 불교계의 공동적 문제인 건물 불사 외에 문화를 향유하고 공유하는 사업으로 전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구암사 국립대전현충원에 무료급식소 기증

대전 구암사(주지 북천)는 2월 5일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관 옆에 85㎡ 규모(6,700만원 상당)의 유가족 무료급식 나눔장소 신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 및 기부채납 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암사 주지 북천 스님과 이상민 국회의원, 민병원 국립대전현충원장, 임재인 대전시의회 부의장, 강숙자 유성시니어클럽관장, 박근태 나눔회장, 여래성 나눔단장을 비롯한 봉사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구암사는 2010년부터 매년 현충일과 천안함 용사 추모 걷기대회 등의 대규모 행사시 국수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2013년 4월부터는 현충원과 유가족 무료급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결식이 열리는 현충관 옆에 간이식당을 마련해 유족과 참배객들에게 국수를 무료로 제공해 왔다. 지난해에는 약 8만 여명에게 무료급식소를 이용했다. 이날 행사에서 국립대전현충원은 그동안 국가 보훈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의 편의증진과 예우를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자 이소제, 연경옥, 안태균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구암사 주지 북천 스님은 "국가를 위해 목숨까지 받친 호국영령들이 극락왕생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야하고, 유가족들이 국가유공자 가족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잘 보살펴야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자비신행회, 2014년 다양한 불교강좌

2월 6일 정기총회서 차문화 · 사찰음식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의결



광주지역 대표적 불교신행단체인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가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 주요사업에 대한 결산과 운영계획을 밝혔다.

지난 2월 6일 자비신행회 강당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2013년도 주요사업 실적으로 복지사업영역에서 행복한 쉼터(무료급식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어르신 세대 생활지원사업, 청소년가장세대 밑반찬지원사업이 세분화되는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김영섭 사무처장은 지난해에 대한 평가에 대해 "전체적으로 2012년 대비 자원봉사자 및 후원회원이 증가했다"며 "올해에도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총회에서 결의된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으로는 △매일 운영되는 무료급식터인 '행복한 쉼터' 확대 △가족이 함께하는 십시일반 밥차 운동 전개 △청소년가장세대 지원사업 확대 △3월중에 재가 화엄학림이 1년 과정으로 개강(혜광 스님의 정토삼부경 강좌) △3기 리더스클럽 개강(하반기) △한꽃차문화아카데미 3개 교육과정(1년 과정) △3기 자연사찰음식강좌(4월중 개강) △8기 불교호스피스아카데미(하반기) △위빠사나 수행강좌(4월중 개강)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마지막 사리 친견 기회, '미륵사' 로 오세요

미륵사지 사리장엄특별전 3월 30일까지 개최



익산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특별전'이 막바지에 이르는 가운데 불자들의 방문이 요구된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열리고 있는 이번 특별전은 2009년 1월 미륵사지 석탑(국보 11호) 해체 과정에서 발견된 부처님의 진신사리 13과와 사리장엄구를 비롯해 함께 발견된 9600여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유물전시관 측은 개관 2개월이 지난 현재 하루 평균 1,500명, 연인원 10만명 정도가 관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학교에서 단체로 관람 온 학생들과 관련 연구자들. 정작 사리 친견을 위해 방문하는 불자들의 방문은 저조한 편이다.

이택회 익산불교신도연합회장은 "처음 사리가 세상에 나투셨을 때에 비하면 불자들의 관심이 저조하다"며 "남은 기간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는 부처님 진신사리 13과와 국보급 가치를 지닌 금동제사리외호, 금제사리내호, 금제사리봉영기, 은제관식 등의 성보문화재가 발견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시되고 있다. 특히 진신사리 친견부스를 별도로 마련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지역 불교대학, 잇따라 졸업식 개최

전북지역 불교대학들이 잇따라 졸업식을 개최한다.

전주 화엄불교대학(학장 성우)은 2월 9일 전북불교회관에서 300여 졸업생이 참석한 가운데 25기 졸업식을 열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조계종 포교원장상에 최태동, 화엄불교대학 이사장상 김종필 · 이호진, 화엄불교대학장상 윤정숙 · 손병근, 최우수상 이경화, 우수상에 최덕환 · 김숙희 씨가 각각 수상했다. 전북 불교중흥과 인재양성을 위해 지난 1989년 설립된 화엄불교대학은 1990년 제1회 졸업식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2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리불교대학(학장 덕림)과 전주 참좋은우리절 불교대학(학장 회일)도 2월 9일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와함께 남원불교대학(학장 혜신)은 2월 20일, 전북불교대학(학장 도원)은 23일 졸업식을 연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14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안내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학점은행제를 도입하여 불교의식과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 과 과 정

학 과		교수요목	요 일	시 간	교 수
1학년	상주권공 I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월	오후 1시 ~ 7시	조인각
2학년	상주권공 II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수	오후 1시 ~ 7시	이기봉
3학년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 1시 ~ 7시	*
4학년	영 산	영산과정	금	오후 1시 ~ 7시	마일운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화	오후 1시 ~ 4시	심만춘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무용과)등 일반인
◈학점은행제과정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 학점은행제 타 기관 수강자
◈편 입 학 과 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학점은행제과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최종학력졸업(예정)증 1부
주민등록등본 1분, 반명함판 사진 3매

■ 전형일정 : 2014년 1월 20일 ~ 2월 28일
■ 전 형 료 : 50,000원
■ 원서교부 및 인터넷 접수처 :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접수
■ 합격자발표 :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특 전
1.재학생 중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수료시 종단이 실시하는 습의교육 및 합동득도 수계산림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
2.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 수료 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응시 자격을 부여
단, 입학시 승려에 한하며 재학중 출가자는 제외.
3.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4.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선발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장 최원허 합장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내 Tel 02)392-3234, Fax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미국 불교문화 체험하고 왔어요

홍법사 청소년해외포교단 미국 문화탐방





부산 홍법사 청소년해외포교단은 9박10일간 일정으로 미국 정혜사 등 미국 문화탐방을 다녀왔다. 사진 왼쪽은 그랜드캐년 오른쪽은 스태포드 대학 탐방

부산 홍법사 청소년해외포교단은 9박10일간 일정으로 미국 정혜사, 그랜드캐년,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을 방문하는 미국 문화탐방 행사를 다녀왔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1월 17일~26일 9박10일 동안 '청소년과 함께하는 미국 정혜사 순례 및 문화탐방'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3년 8월 미국 정혜사와 부산 홍법사간 자매결연을 맺은 인연으로 양국 청소년들의 문화교류와 인재양성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홍법사 청소년해외포교단의 규모는 주지 심산 스님과 인솔교사 참가학생 등 22명이 함께 했다. 주지 심산 스님은 "세계 속의 불자 인재양성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 두 사찰이 함께 준비한 행사"라고 취지를 말한 후 "두 사찰의 청소년들이 미국 LA 정혜사에서 한국의 역사와 불교문화를 함께 교류하고 홈스테이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한 국인의 긍지를 되찾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세계 최고 경제대국인 미국 문화탐방을 통해 기억에 남는 경험과 세상을 보게 되는 안목이 넓어져 이웃을 위해 베푸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주길 기원하고, 차후에는 미국 동부권과의 사찰과도 자매 결연을 맺어 청소년들에게 많은 경험을 쌓게 해주고 싶다."며 포부도 전했다.

미국 정혜사서 홈스테이하며
한미 불교문화 교류 진행
스탠포드대 등도 견학

홍법사 청소년해외포교단은 1월 17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로스엔젤레스에 도착해 로데오 거리와 헐리우드 시내견학, 2~3일차는 정혜사를 방문하고 LA시내, 그리피스 팍 게티 박물관, 영화세트장인 유니버셜스튜디오 견학, 홈스테이. 4~5일차는 풍력발전 지대와 세계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그랜드캐년 국립공원 사우스 림 경비행기 관광, 라스베가스 야경관광과 분수쇼, 6~7일차는 미국 최대 곡창지대 프레즈노 견학, 요세미티 국립공원, 베이크루즈 유람선 관광, 8~9일차는 스텐포드 대학 캠퍼스 투어를 끝으로 1월 26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홍법사 동자승 4기 출신으로 참가한 정재선(초등6) 학생은 "가로수, 횡단보도 거리의 모든 곳이 신기했다. 내가 외국인라는 생각이 들어 더 놀라웠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쥬라기공원, 심슨 세트장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홈스테이 때는 어색하고 서먹할 줄 알았는데 친구들과 금방 친해져서 함께 생활 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다. 커서 어른이 되어도 이곳의 경험을 잊지 못할 것 같다"며 첫 해외경험에 대해 말했다.

김민지(초등2) 학생은 "처음 아빠가 미국 가라 했을 때 많이 떨렸는데 오빠, 언니들이 잘 해줘서 잘 적응했다. 미술관 갔을 때 정말 예쁜 그림들이 많아 참 좋았다."고 말했다.

정세화(중3) 학생은 "정혜사에서 영어로 된 반야심경을 독송하면서 신기하고 색다른 체험이었다. 홈스테이를 통해 만난 친구들이 다른 점들도 많았지만 공통점도 느꼈던 것 같다.

특히 그랜드 캐년에 도착했을 때 그 첫 느낌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놀라웠다. 20억년의 나이를 경비행기를 타며 보는 것은 놀라운 체험이었다"고 감동을 전했다.

박정우 학생은 "유니버셜 스튜디오 촬영지의 현실적인 구성에 놀랍고 체험프로그램들에 너무 즐겁고 신나는 경험이었다. 그리고 미국까지 와서 불교를 알리고 있는 한국 절 정혜사를 보며 큰 감동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홍법사 청소년해외포교단 문화탐방행사를 위해 사단법인 동련에서 지도교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불교인재 육성은 가장 중요한 일"

약사선원-(주)미래랜드 동명대에 발전기금 전달



약사선원과 (주)미래랜드는 동명대에 발전 기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현대적 티베트 명상법을 국내에 전파하고 있는 보리선수약사선원(주지 법생)과 ㈜미래랜드(회장 이병욱)는 2월 5일 동명대(총장 설동근)에 각각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전달했다.

동명대는 2월 5일 대학본부경영관 301호에서 동명대 설동근 총장과 안수근 부총장, 보리선수약사선원 주지 법생 스님과 증유 신도회 회장, 과평 신도회 총무, ㈜미래랜드의 이병욱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발전기금은 동명대 불교문화학과 재학생 장학금과 학과운영비 등으로 사용된다. 보리선수약사선원 주지 법생스님은 "보리선수 약사선원은 세계속에 불광을 널리 알리기 위해 30여개 지역에서 불법을 전파하고 있다. 세계인들과 교류하면서 불교인재 육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 작은 도움이지만 세계속에 불교문화를 전파하는 훌륭한 인재를 교육하는데 쓰여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설동근 총장은 "요즘은 인성도 실력인 시대"라면서 "종립대를 제외하고는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불교문화학과와 세계선센터를 운영하면서 신학기부터 인성교육을 크게 강화할 예정인 동명대에 발전기금 쾌척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동명대는 종립대를 제외한 일반대 가운데 유일하게 선(禪)센터를 운영중인데, '마음찾기 공부'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총 170명이 동시에 참선이 가능한 선방과 다도실, 선원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총면적은 1650㎡에 이른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부산 불교계 최고CEO 컨퍼런스 과정 개설

부산불교연합 신도회 3월 개강 월 2회 강의

부산불교계 인재양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부산불교계 최고CEO 과정이 개설된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회장 이윤희, 금정총림 범어사 신도회장)는 오는 3월부터 1년 과정으로 '부산 불교계 최고 CEO 컨퍼런스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부산불교계 최고 CEO 컨퍼런스 과정은 불교는 물론, 행정, 정치, 교육, 문화, 언론, 사회 등 각 분야의 대표적 강사를 초빙해 매월 두 차례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와 토론이 병행된 이번 과정은 불교적 가치관을 통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의 교류를 통해 역동적인 부산불교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부산 재가불교운동에 새로운 활력 제공
인재양성 · 인재네트워크 구축도 기대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은 "3월 개설하는 CEO 컨퍼런스 과정은 사찰이나 신행단체에서 주관하는 교리위주의 불교대학과는 다른 교육으로 '최고지도자아카데미'를 구체화 한 것"이라면서 "교계 안팎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은 후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윤희 회장은 "부산 재가불교 운동의 올바른 위상을 정립하고 세계화시대에 부산불교가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번 과정의 수강 대상은 신행단체장과 사찰신도회장, 불자기업인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다.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해 강좌는 월2회 부산불교연합회 4층 교육장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051)861-880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신사옥 건립 등 현안 해결에 최선"

수불 스님, 부산불교방송 운영위원장 취임



수불 스님 부산불교방송 운영위원장 취임 축하 떡 절단식.

부산불교방송 개국 19주년 기념식 및 운영위원장 수불 스님(부산불교연합회장, 범어사 주지) 취임식이 2월 5일 부산불교방송 10층 법당에서 개최됐다. 부산불교방송 운영위원장 수불 스님은 취임사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신 것은 열심히 잘하라는 것으로 여기고, 새로운 각오로 신사옥 건립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모두 합심해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박순곤 부산불교방송사장은 "개국 20년에 즈음해 신사옥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 때에 앞으로 더욱 크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수불스님을 운영위원장으로 모시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이채원 불교방송 사장, 부산불교방송 류진수 초대운영위원장, 진각종 부산교구청장 효원정사,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공병수 부산불교신도회장 등이 함께 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부산연등축제기회위원 대만등불축제 참관단 파견

2월 15일~19일 4박 5일간

부산연등축제기획위원회는 부산연등축제의 세계적인 축제로의 변모를 위해 대만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대만등불축제에 참관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부산연등축제기획위원회는 2월 7일 부산불교연합회 회의실에서 기획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대만등불축제 참관단 파견을 최종 결정했다. 참관단은 총 28명으로 2월15일~19일 4박5일간 대만등불축제에 참관할 예정이다.

부산연등축제기획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최초 자매도시인 까우슝에서 개최되는 2014대만등불축제를 참관으로 양국간 협력과 불교문화를 통한 관계개선으로 인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라며 "부산연등축제가 세계인들과 교류하는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변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보고 배워오겠다"고 말했다.

참관단은 2월 14일 부산 김해공항을 출발해 당일 대만 최대의 등불축제 개막식 행사에 참관 을 시작으로 현장답사를 진행한 후 2월 19일 귀국할 예정이다.

대만등불축제는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매년 음력 1월 한 달동안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등불축제가 진행된다. 2014년 등불축제는 대만 중부지역 남투에서 진행된다.

부산연등축제기획위원회는 "서울 연등회의 무형문화재 등록을 계기로 부산연등축제를 부산시 무형문화재 등록을 추진하면서 부산연등축제의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번 대만등불축제 참관은 세계적인 문화축제로의 구상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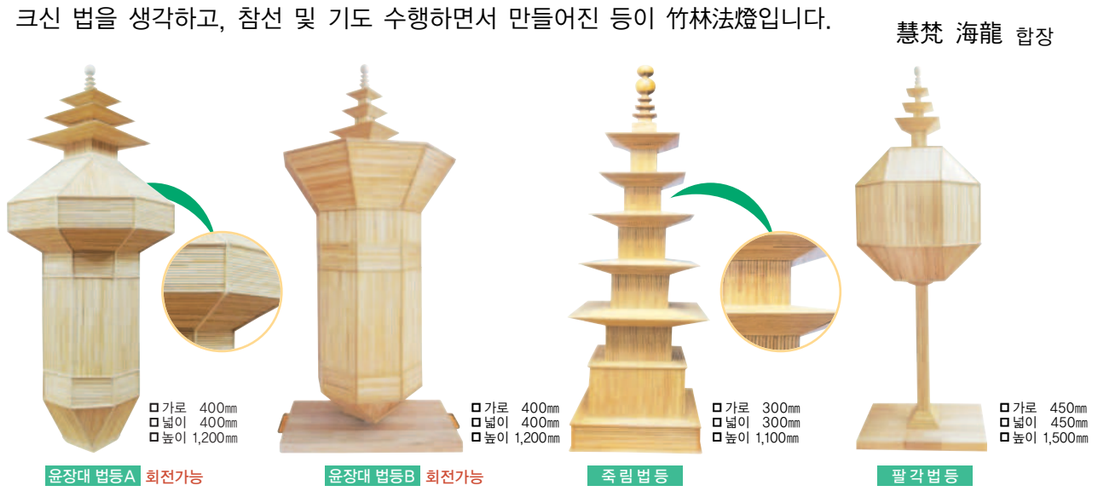
박경수 부산지사장

수행으로 탄생한 竹林法燈

세계유일의 신제품!! 특허출원중

죽림정사는 부처님께서 생존해 계실때 자주 머무르시면서 설법하신 곳이며 기원정사와 함께 불교 최초의 2대가람(二大伽藍)으로 불리웠습니다. 죽림정사에서 사생자부이신 부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법을 생각하고, 참선 및 기도 수행하면서 만들어진 등이 竹林法燈입니다.

慧梵 海龍 합장



제품 특징

❶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세상 유일의 수공예 대나무 法燈(법등)입니다.
❷ 12가지색의 파노라마 LED전구가 내장되어 있어 법당 장엄용으로 최고입니다. (LED전구 내장으로 전기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❸ 특히 윤장대 법등은 업장소멸에 많은 기도를 드릴수 있어 포교원에 적합한 法燈(법등)입니다.
❹ 법등이므로 불안심리, 가위 등이 눌리는 경우가 많은 경우 소멸에 많은 도움을 주며, 취침燈(등) 대용으로도 최상입니다.
❺ 천연(자연) 그대로의 대나무로 만들어져 있어 보존기간이 길며, 인테리어燈(등)으로써도 최상의 품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수공예 작품이므로 크기는 주문 사양에 맞추어 드리며, 제작 기간은 1달 소요 됩니다. 문의 전화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大韓佛敎曹溪宗 참선.약사기도 도량
舞鶴山 藥師禪院
敎法師 慧梵 海龍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577(회원2동)
TEL : 010-6561-3277 / 055-244-3277
FAX : (055)244-3277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탑의 진화

④ 아쇼카 왕의 8만 4천 불탑 조성
(불탑신앙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는 역사적 사실)

아쇼카 불탑 8만4천기 조성 '폭정 참회'


〈사진1〉
사르나트의 다르마지카탑은 당나라 현장 스님의 〈대당서역기〉에 의하면, 아쇼카왕이 조성한 것으로 높이가 100여척이었다고 한다. 1794년 건축자재 충당을 위해 해체되었다. 현재는 터만 남아 있다.

전생 소년 때 부처님께 흙밥 공양
전륜성왕 · 불탑조성 수기 받아
불탑신앙 단초, '8만4천' 은 상징
아쇼카왕 불탑 고구려탑의 기원

〈찬집백연경〉, 〈잡보장경〉과 함께 불교의 3대 비유 경전으로 꼽히는 〈현우경〉의 '아수가시토품' 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이른 아침에 시자인 아난존자와 함께 걸식을 하기 위하여 성안에 들어가셨다. 길을 가는 도중에 어린 아이들이 소꿉장난하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은 흙을 모아 집과 창고를 짓고 곡식과 많은 보물을 만들었다.

그 때, 한 아이가 멀리서 오는 부처님의 빛나는 모습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무한한 공경심과 무엇인가 보시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 생겼다.

그 아이는 곧 창고에서 곡식이라 이름 지은 흙을 한 줌 쥐어 부처님에게 보시하려 하였다. 그러나 키가 작기 때문에 다른 친구의 어깨 위에 올라가 부처님에게 흙을 바쳤다. 부처님께서는 발우를 낮추고 머리를 숙여 그것을 받아 아난에게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내 방바닥을 바르라" 고 하셨다.

걸식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온 아난존자는 그 흙으로 부처님 처소의 방바닥을 발랐다. 처소에 돌아온 부처님은 "좀 전에 그 아이가 기쁘게 흙을 보시하여 내 방 한 귀퉁이를 발랐다. 그 어린아이는 이 공덕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반한 지 백 년 뒤에는 국왕이 되어 이름을 아수가라 할 것이요, 또 나를 위해 8만 4천의 탑을 세울 것이다." 〈대정신수대장경 4권 368쪽 하단〉 라는 내용이다.

이 아이가 바로 역사 속에 전륜성왕으로 칭송받던 그 유명한 아쇼카 왕이다, 이처럼 경설에 의하면, 부처님께서는 이미 아쇼카 왕의 전생에 8만4천 조탑 인연의 수기를 내린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잡아함경〉 제23권 604분 '아육왕경' 의 경설에는

한 소년이 부처님께 모래 한 줌을 보시하자 부처님은 웃음으로 답하는데, 아난이 그 웃음의 의미를 물으니, "모든 여래는 아무런 이유 없이 웃지 않느니라. 내가 지금 웃는 것도 그 이유가 있느니라. 아난아! 알아야 한다. 내가 세상을 떠나고 100년이 지난 뒤에 이 소년은 파련불읍에서 한 지역을 통치하는 전륜왕이 될 것이니, 성은 공작이요, 이름은 아육으로 바른 법으로 다스리고 교화할 것이다. 또 내 사리를 널리 전파하고 8만 4천 법왕의 탑을 만들어 한량없는 중생을 안락하게 할 것이다." 〈대정신수대장경 2권 162쪽 상단〉 라는 내용이 있다.

이처럼 아쇼카 왕이 8만4천탑을 조성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하는 경전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확실한 것은 아쇼카 왕이 실제 많은 탑을 조성한 것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아쇼카 왕은 왜 8만4천의 불탑을 조성하였을까? 이러한 의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쇼카 왕의 생애를 먼저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빔비사라 왕 시대부터 마가다국의 정치세력은 날로 확대되어 다른 군주국가나 부족 국가를 병합해 나갔다. 이를 이어받아 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것이 마우리야 왕조로서 그 시작은 할아버지인 찬드라굽타이다. 이 찬드라굽타의 신분계급에 대하여는 귀족부터 천민까지 다양한 학설이 있으나, 마우리야 부족 출신으로 기원전 321년 난다 왕조로부터 왕위를 찬탈하였다. 찬드라굽타는 뚜렷한 종교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그의 뒤를 이은 왕이 빈두사라 왕(재위 기원전 297~268)인데, 그는 내란을 평정하고 영토를 더욱 확장 하였다. 빈두사라 왕은 수십 명의 부인과 101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쇼카 인 것이다. 아쇼카 왕은 아버지로부터 자연스럽게 왕위를 물려받은 것은 아니었다. 평소에 후계자로 신뢰 받지 못한 아쇼카는 부왕인 빈두사라 왕이 갑자기 죽자 그의 어린 친동생 하나만을 남기고 99명의 다른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왕위를 계승하게 된다. 이처럼 아쇼카의 포악함에 대하여 '아육왕경' 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아쇼카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5백 명의 대신이 왕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아쇼카 왕은 모든 대신들에게 "너희들은 꽃나무와 과일나무를 꺾어 울타리를 쳐서 가시나무를 보호하도록 하라." 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모든 신하들은 "대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마땅히 가시나무를 꺾어 울타리를 쳐서 꽃나무와 과일 나무를 보호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아쇼카 왕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마땅히 꽃과 과일나무를 꺾어서 가시나무를 보호하도록 하라!" 라고 세 번을 일렀으나 모든 대신들은 그 교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쇼카 왕은 화를 내며 즉시 직접 칼을 뽑아 신하 오백 명의 머리를 베어 버렸다. 그리고 한번은 아쇼카 왕이 5백 명의 하녀를 거느리고 뒷동산에 올랐다. 그 동산에 나무가 있었는데 이름을 아쇼카라 했고, 꽃과 잎이 돋아 있었다.

아쇼카 왕은 그 나무를 보고 본인의 이름과 같다고 기뻐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아쇼카 왕의 몸은 거칠고 껄끄러워서 모든 여인들이 왕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다. 왕이 동산에서 잠이 들자 여러 여인들은 왕이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무의 꽃과 잎을 모두 꺾어 없애버렸다. 잠에서 깨어난 왕이 꽃과 잎이 없어진 것을 보고는 여인들에게 누구의 짓인가를 물었고,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행이라고 고백하자 아쇼카 왕은 화를 내며 대나무 상자 속에 모든 여인들을 가두고 불로 태워 버렸다. 〈대정신수대장경 50권 133쪽 하단〉

이처럼 불법에 귀의하기 전의 아쇼카 왕은 포악한 왕의 대명사였다. 하지만 마지막 전투인 칼링가를 함락하고 회의에 빠졌을 때 그는 불법을 만나게 된다. 101명의 왕자 중 유일하게 살려준 친동생으로 추정 되는 한 비구 스님의 교화로 본인의 살생을 참회하고 수많은 선정을 베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8만 4천 불탑의 건립이었다.

그 당시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의 호칭인 전륜왕으로서 아쇼카 왕은 8만 4천 불탑을 조성함으로써 많은 복덕을 기대하였고, 특히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공덕을 쌓고자 했던 것은 깊은 신앙심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아쇼카 왕은 지난 호에 소개한 여덟 개의 근본 불탑에서 사리를 분배하여 8만 4천 기 라는 수많은 불탑을 조성하며, 불탑신앙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는 단초를 만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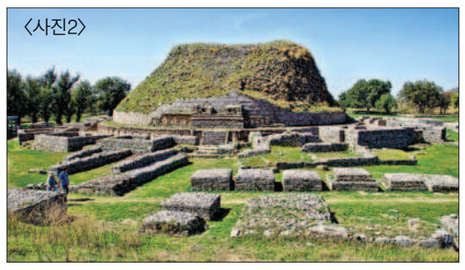
물론, 8만 4천이라는 다소 비현실적인 수량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한다. 하지만 경전에서 말하는 8만 4천이라는 숫자의 상징을 알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대목이다.

8만 4천이란 숫자는 많은 수를 의미하지만, 〈장아함경〉의 소경인 '대본경' 에 의하면,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수명의 나이를 의미하며, 또한 길(吉)한 수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대정신수대장경〉 1권 23쪽 상단)

이처럼 한역 경전에는 아쇼카 왕의 8만 4천 탑 조성이 신앙적으로 강조 되지만 아쉽게도 현존 역사적 유물인 아쇼카석주에 의하면, 왕은 오직 코나카마나(Konakamana) 불탑을 수리한 사실만이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법현이나 현장 등의 구법승들이 인도를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아쇼카 왕이 조성한 많은 불탑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는 비록 문헌상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불탑 조성의 기원이 되는 아쇼카 왕의 불탑이 고구려에서도 거론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 제 3권 '탑상편' 의 '요동성 육왕탑(遼東城 育王塔)' 조에 의하면, **옛날 고구려 성왕이 요동지방을 순행하던 길에 한 곳에 이르자 오색구름이 땅을 뒤덮는 것을 보고는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사진2〉
탁실라 다마르지카 불탑.


〈사진3〉
스왓트의 붓카리대탑.

그곳에는 스님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스님은 없어지고 멀리서 보면 다시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 곁에는 삼층으로 된 토탑(土塔)이 있었다. 이 토탑이 바로 아쇼카 왕이 세운 탑이며, 성왕은 이 인연으로 불교를 믿을 마음이 생겨 그 자리에 7층의 목탑을 조성하였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아쇼카 왕의 8만 4천 불탑 조성의 불사가 먼 이국땅인 고구려에 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경전에 따라 아쇼카 왕은 근본 8탑의 사리를 전부 꺼내지 못하고 일곱 개의 탑에서만 사리를 꺼내 8만 4천으로 나눈 장면이 설해져 있어 흥미를 자아낸다. 〈불소행찬〉에 의하면, **아쇼카 왕은 바른 성품을 받아 태어나서, 능히 온 천하를 두루 건지었다. 그는 일곱 왕이 만든 탑을 열고, 거기서 사리를 꺼내 그것을 나누어 하루아침에 8만 4천 개의 탑을 세웠다. 그 중에 오직 여덟 번째 탑만은 마라(摩羅)마을에 있었는데, 신과 용들이 지켜 보호하여 왕이 사리를 얻을 수 없었다.** 〈대정신수대장경 4권 54쪽 중단〉 라고 하여 7개의 불탑만을 해체하여 사리를 분배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아쇼카 왕의 8만 4천 불탑 조성의 불사가 중국 역사 속에서 오월국의 전홍숙 왕처럼 실지 재현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쇼카 왕이 조성한 불탑으로 추정 되는 예는 몇 기에 지나지 않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즉, 산치 제1탑, 사르나트의 다르마라지카탑, 탁실라의 다르마라지카탑, 스왓트의 붓카라대탑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사르나트의 다르마지카탑은 당나라 현장(602~664)스님의 〈대당서역기〉에 의하면, 아쇼카 왕이 조성한 것으로 높이가 100여척 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1794년 바라나시 건축의 석재와 벽돌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가트 싱' 이란 관리에 의해 헐려지게 되었다. 이 때 해체 되는 과정에서 석재로 된 사리함이 출토되었고 그 안에는 뼛조각이 들어 있었다. 부처님의 유골일 가능성이 높은 이 뼛조각을 '자카트 싱' 의 일당들은 무식하게도 갠지스 강의 흐르는 물에 떠내려 보냈고 사리함은 탑 근처에 버려두어 영원히 소실되고 말았다. 그래서 현재는 **〈사진1〉**처럼 그 터만 남아 있게 되었다.

오늘날 국명이 파키스탄이며, 인더스강 상류지방에 있는 탁실라에도 다르마지카 불탑이 있다. 다르마지카란 법왕[Dharmarajika]을 의미하며 곧 아쇼카 왕을 지칭함을 알 수 있다. 탁실라는 아쇼카 왕이 젊은 시절을 보낸 곳으로 이곳에 불탑을 조성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겠다. 현재는 수차례의 보수에도 불구하고 원형기단의 모습만을 유추 해 볼 수 있는 정도이다.**〈사진2〉**

스왓트의 붓카리대탑**〈사진3〉**은 현장스님의 〈대당서역기〉에도 거론 된 탑이다. "몽게리성의 동쪽으로 4~5리 가다보면 큰 탑이 있는데 상서로운 징조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과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전생에 인욕보살이셨을 때 이곳에서 갈리왕을 위하여 자신의 신체를 잘랐던 곳이다."라는 기록이다. 또한 법현스님의〈불국기〉에 의하면, "오장국[스왓트]의 사람들은 불심이 매우 돈독하여, 스님들이 거처하는 약 500여 개의 승가람이 있으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 아쇼카 왕이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라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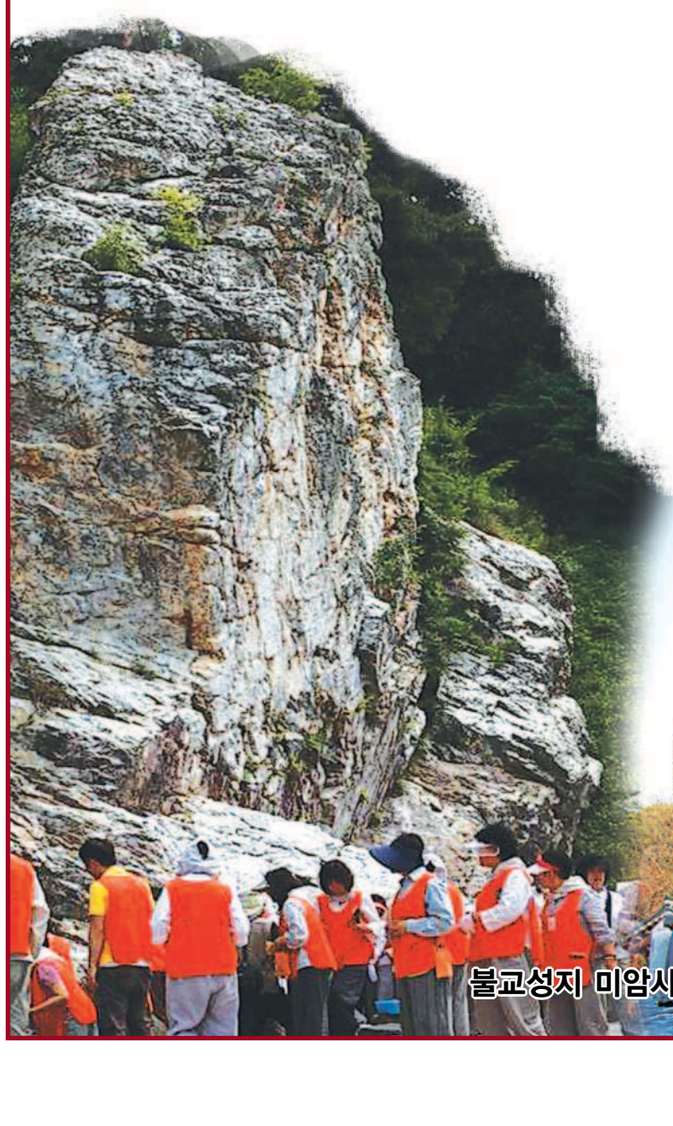
이 붓카리대탑은 1956년부터 이탈리아의 고고학자 도메니코 파세나에 발굴되었다. 발굴 당시 동전 등 많은 유물이 출토 되었는데, 현재 토리노 시립 예술박물관 등에 보존되어 있다.

다음 호 부터는 현존하는 산치 탑을 시작으로 불탑 신앙의 변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글 · 우인보

세계최대와불 부에 쌀바위 미암사 성지순례



백제시대 침류왕때 쌀바위에 공을 들여 살도 나오고, 소원도 성취했다하여 큰 영험이 있으므로 쌀바위(충남도지방 문화재 제371호)이름을 따서 쌀미(米) 바위암(岩) 미암사(米岩寺)라 하였다.

미암사에는 약수터 상단에 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부처님 열반상이 노천불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지 소원을 이룬다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음자만 1만 6천여자가 새겨져있으며, 손으로 만지면 중생의 번회를 소멸하고 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열반상 몸속 법당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소불이 2만여불로 인등 불공을 올리게 됩니다.

충남도지방 문화재 제371호 소원성취기도도량 쌀바위에서는 원적외선이 92.1%가 방출되어 성인병, 곰팡이가 제거 되며, 신신대사와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특히 부처님 신진사리를 98년도에 1과를 모셨는데 2004년도에 친견했을 때 자연적으로 3과로 증과되어, 불가사의한 기적을 일으킨 부처님 도량입니다.

불교성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불기 2558(2014)년 1월

불교성지 미암사 | 충남 부여군 내산면 성충로 미암길 128 | 문의 ☎ 041)832-1188 | 전송 041)832-1187

구태를 넘어 조선불교의 개혁을 꿈꾸다



만해 스님 열반 70주년

'만해의 길을 가다'

③백담사와 〈조선불교유신론〉



백담사 전경. 만해 스님은 1910년 백담사에서 명논설인 〈조선불교유신론〉을 탈고하고 3년 뒤 불교서관에서 발간했다.

강원도 인제 백담사는 '만해 정신의 산실' 이라고 불리운다. 그도 그럴 것이 만해 스님은 백담사에서 출가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님의 침묵' 이라는 한국 문학사에 길이 남을 명작을 창작했다. 이와 함께 "문체로 보나 사상으로 보나 근세에 짝을 찾기 어려운 글(개화사상가 운양 김윤식)"이라는 평가를 받은 명논설 〈조선불교유신론〉이 지어진 곳도 백담사이다. 굳이 유학자인 김윤식이 극찬을 하지 않더라도 〈조선불교유신론〉은 한국사에서 중요한 지점에 있는 논고이다.

당시 시대상을 살펴보면 조선은 붕괴됐고, 일제 치하에 들어서게 됐다. 1910년 8월 29일 일제가 대한제국에게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이를 공포한다. 일제는 조선의 국권을 침탈한 것에 대해 자신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한일합방(韓日合邦)이라 불렀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이날을 국가적 치욕이라는 의미에서 '경술국치(庚戌國恥)' 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 같이 세상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 받고 있었다.

한국 근대사에서 가징 치욕적인 해에 만해 스님은 참담함을 삭히며 〈조선불교유신론〉의 원고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만해 스님은 200자 원고지 1만 매에 달하는 〈조선불교유신론〉을 1910년 백담사에서 탈고하고 발간은 1913년 '불교서관' 을 통해서 한다. 이 방대한 논고는 학구적인 입장에서 조선불교의 현상을 타개하려는 열렬한 실천론으로 요약될 수 있다.

〈조선불교유신론〉은 서문을 비롯해 △서론 △불교의 성질 △불교의 주의 △불교 유신은 파괴로부터 △승려의 교육 △참선 △염불당 폐지 △포교 △사원의 위치 △불가에서 숭배하는 불상과 그림 △불가의 각종 의식 △승려의 인권회복은 반드시 생산으로부터 △불교의 앞날과 승려의 결혼과의 관계 △주지의 선거방법 △승려의 단체 △사원의 통할 △결론 등 총18장으로 구성된다. 매우 목차 구성만 살피어도 논거가 매우 디테일하고 파격적임을 알 수 있다.

박걸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한용윤의 〈조선불교유신론〉 분석' 제하의 논문을 통해 "만해 스님은 〈조선불교유신론〉을 통해 상호 경쟁을 통해 변화하는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역설했다"면서 "자유 · 평등사상에 입각해 인간의 자율성, 모험정신, 경쟁정신 및 자본주의적 방식의 도입까지 강조하는 등 투철한 근대시민정신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양 사상가들의 논리를 단편적이고 피상적으로 전달한데 그친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수용해 불교라는 특정분야에 합리적으로 적용한 것은 우리 근대사상에서 주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는 '〈조선불교유신론〉과 한국 현대불교' 라는 논문에서 〈조선불교유신론〉에 대해 "만해 스님의 불교개혁정신을 대표하는 저술일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 불서를 대표하는 기념비적 저술"이라며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제기한 파격적인 불교의 개혁 및 유신의 내용은 근대불교의 각 분야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지만, 기존 불교의 관행과 질서를 강력히 비판했기에 당시에도 찬반양론이 팽팽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찬반양론의 쟁점은 승려 결혼 허용과 관련된 논고다. 일반적으로 일제 시대의 불교는 승려의 결혼으로 인한 모순이 단순히 계율 파괴 이외에도 사찰 재산 망실, 행정직 장악을 둘러싼 갈등, 총독부와의 유착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만해 스님은 식민지 불교정책의 비판과 자주 불교 지향, 불교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승려 결혼에 대한 모순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근현대불교학자 故 서경수(1925-1986) 박사는 "극히 외형적 피상적으로만 승단의 병폐를 지적했으며, 불교 교리 · 사상의 근대적 해석이나 주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다"면서 "급진적 개혁에 조급해 종교 교단의 근본 원칙이 되는 계율의 해석과 개혁을 소홀히 다뤄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광식 교수는 이 같은 만해 스님의 주장 배경에 대해 근대를 바라보는 인식에서 기인된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한용운의 불교 근대화 기획과 승려 결혼 자유론' 이라는 논문에서 "대중불교론을 주창한 만해 스님은 중생을 구제하는 실천을 중요하게 여겼지 승려가 결혼이라는 테두리에 얽매이는 것은 신경쓰지 않았다"면서 "만해 스님은 진화론적 세계관에 입각해 승려 인권론을 제기했는데 여기에는 인간의 기본 욕망에 대한 관대성도 내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찬반논란이 있음에도 만해 스님의 〈조선불교유신론〉 몇몇 부분은 현재에도 유효한 의제다. 앞서 비판적 논거를 제시했던 서경수 박사는 〈유신론〉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조선불교의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관찰과 비판을 가했으며 정말 불교의 장래를 누구보다도 아끼는 종교적 열정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만해 스님의 〈조선불교유신론〉표지.

근세에 짝을 찾기 어려운 명논설 〈조선불교유신론〉 1910년 백담사서 탈고하고 3년 뒤 '불교서관' 서 발행

승려 교육, 포교, 참선 등은 현재 불교도 '반면교사' 필요 '결혼 허용' 주장 제고할 부분 "만해 스님 '유신론' 을 넘어서 '제2의 유신론' 을 준비해야"



백담사의 만해 스님 흉상.

서 박사는 "당시 정세와 불교 내부의 완고한 보수성 때문에 불발탄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1910년대에는 가장 선구적이고 혁명적인 논문"이라면서 "한국불교가 낡은 껍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한용운의 '유신론' 은 가장 무섭고 날카로운 비판과 개혁의 화살로 한국 불교 승단을 노리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실제 승려의 교육과 참선, 포교에 대한 비판과 실천적 의제는 지금도 귀기울여 봐야 할 대목이다. 만해 스님은 조선불교의 승단이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봤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보통학 △사범학 △외국유학 등 세가지 방안을 주장한다. 향후 도래할 사회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승려도 보통 사람 수준의 최소한의 학식을 가지고, 인문 · 자연계열의 지식을 습득하며, 필요하다면 외국 유학도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만해 스님은 "낡고 부패한 늙은 무리들이 젊은이들의 신교육을 백방으로 방해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라며 "교육을 저해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고 교육을 권장하는 자는 마땅히 선도할 것"이라고 격렬한 어조로 꾸짖기도 했다.

당시 참선 수행의 풍토에 대해서도 만해 스님은 1/10만 진짜 수좌고 나머지는 배부리기 위해 우두커니 앉아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선지도 모르는 자들이 우두커니 앉아서 옛 조사의 어록 몇 마디를 수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만해 스님은 모든 조선의 선원을 합쳐서 규모있고 거대한 선학관(禪學官)을 한 두 개정도 건립하고 훌륭한 선지식 몇분을 스승으로 모셔 참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승속을 구분하지 말고 받아들여 일정한 시간에 정진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포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만해 스님의 '일갈' 은 지금 한국불교의 사부대중이 반면교사할만 하다. 스님은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조선불교의 쇠퇴 원인을 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당시 선교에 열중인 기독교의 예를 들면서 불교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또한 산중 사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사찰이 산 속에 있다보니 승려 교육부터 포교, 통신 등 여러모로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조선 불교는 불교의 구세적 · 포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대도시로 나와야 한다는 게 만해 스님의 주장이다.

'유신(維新)' 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 는 것이다. 만해 스님은 "유신이란 무엇인가, 파괴의 자손이요. 파괴란 무엇인가, 유신의 어머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참담한 시대를 뒤로 하고 〈조선불교유신론〉을 저술한 것은 불교를 통해 시대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만해 스님의 원력에 기인했던 것이다. 우리가 지금도 발간 100년이 지난 〈조선불교유신론〉을 곱씹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현재의 한국불교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유신론〉을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시대를 살아가려는 불자들이 해야 할 소명이다.

"〈조선불교유신론〉의 정신은 재평가되고, 제2의 〈유신론〉이 나와야 한다.(중략) 만해 스님과 같은 투철한 민족지사도 필요하지만 불교의 각 분야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사명감을 갖고 불교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숨은 일꾼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신론〉이 풍기는 처절한 비판 정신이 상실돼 가고, 불교의 언론과 공론이 자기 자리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이때에 만해 스님의 정신은 아직도 살아 있는 이정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김광식, '〈조선불교유신론〉과 한국 현대불교' 中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의식(범패) 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여법하게 의식을 진행할 인재양성을 위해 '제1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과정

- 상용의식 및 재의식 전반(시련~봉송)
- 바라무, 착복무, 법고무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북)다루는 법

• 교육기간 : 1년과정 • 대상 : 초심자, 전법사, 포교사
• 개강일 : 2014년 3월 5일(수요일)
• 강의시간 : 매주(수/목), 오후4시~5시30분
• 문의 : 031)907-1062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50-76, 503호 (풍동 중앙프라자B동) 청유사

한국불교 태고종 청유사 (사)고양 범패문화 예술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지금까지 알던 공부 싹 버리세요

철야정진법문 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죠? 내가 지금 여러분들 보고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는 아무 자체 지혜가 없어.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를 향해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나를 모를 겁니다. 물론 아는 분들이 계시지. 나는 환히 알고 있어. 뚫어지게 알고 있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그러나 여러분의 그 몸뚱어리 이거. 이거는 자체의 지혜가 없는 헛거, 허망물이에요. 내가 허망물을 향해서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하니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잠을 자지 마세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 고생을 한다 말이여. 고생도 좋고 뭣도 좋아요. 이걸 하나 알기 위해서 하는데, 도대체 이걸 시켜서 하긴 해요. 왜 그러냐 할 테면 이건 내 관리물이거든요. 관리물을 시켜서 참선도 하고 이래 하는 건데 오늘 저녁에는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참말로 내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느껴버리면은 내일부터 다 올라가도 좋습니다. 그러하니 나중에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 좌우간 어떻든지 문제는 이걸 아는 것은 눈이 보는 것 아니다. 내가 지금 이거 붙잡았는데 이거 손이 붙잡은 것 아니에요. 손은 몰라요. 자체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붙잡은 줄 알 거요? 내한테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있기 때문에 손으로 하여금 이걸 붙잡아서 이리 이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손이 잡았다 해도 돼. 틀린 건 아니에요.

이건 불교에 들어가는데 제일 첫째 관문입니다. 이걸 몰라서는 안 됩니다. 공부, 천하 없는 석가세존 이상 공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한테는 뭣이 있나, 진짜 나는 내 잘 나나 못 나나... 이거 육신은 인연에 따라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선처에 나. 악한 일을 많이 하면 악처에 나. 축생 같은 것 이런 것, 악처에 나. 그러니까 그런 건 별 문제로 하고. 어떻든지 여러분, 사람의 몸을 받아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걸로 하여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견성하기 쉽다는 말 이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대학 다 다녀. 다 지식인이여. 아, 이 말 쯤이야 어째 못 알아듣겠나요? 그리고 이 말이 과학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부터 검토하세요. 만약 과학적으로 안 맞다면은 내 말 거부해 버리세요. 과학적으로 딱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우주 공간이라는 건 우리가 과학적으로 작용을 하는 하나의 광장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하니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땀 좀 흘리세요. 땀 나는 줄 아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립니까? 그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립니다. 그러나 이걸 극복해서 나간다면 땀이 나다가도 거기서 서늘서늘한 바람이 납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제일 첫째, 처음부터 이리 합시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한 줄 내가 아는데 지금까지 하던 것 싹 내버려요. 싹 내버려. 좀 더 나갈 것 같으면 육신 이것도 내버리세요. 내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다 마음을 갖다 두지 말라 이겁니다. 아이고 이거 내 손이 어떻고 아이고 먼지가 묻고, 이런 것 소용없는 겁니다.

> **지식도 육신도 싹 내버려요**
> **여기다 마음을 두지 말아요**
> **몸에 촉각에 신경쓰지 마세요**
> **빛깔도 소리도 없는 이 자리를**
> **오늘밤 내로 찾아내 보세요**
> **하나 알면 전부 알아버려요**

좌우간 나는 내의 관리물인 이 육신을 끌고 왔는데, 온 김에 말이죠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거 규명해야 되겠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니 이거 규명해야 되겠다. 혓바닥이 맛을 보는 것 아니라니 이것 규명해야 되겠다 하고 이러고 나가야 될 겁니다. 사실로 이거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 웃고 치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하니 여러분들 이 기회에 오늘 밤에, 물론 앞으로 오륙일 있지만 말이지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든지 여러분들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찾아내세요. 한 가지 부탁은 여러분들 너무 춤을 많이 출까 싶어서 그런데, 이걸 알게 되면 춤을 추게 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춤을 너무 많이 추지 말고 조금만 추도록 이리 하세요. 춤추다가 자부는(조는) 사람 밟으면 곤란한 일이니까. 하하하. 그러하니 이렇게 추기 쉬운 겁니다. 이거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 미한 사람에게는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 생각을 하다가도 맞다 말이여. 거부를 안 해. 여러분 지금도 내 말 거부 안 할 겁니다. 그러나 딱 하게 고개 돌리면 이거 내다 내 머리다 팔이다 손이다 발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물론 팔이에요. 그런데 이걸 시켜서 뭘 하는데, 탁탁 작용을 하는데 탐착을 해버려.

그러하니 오늘 내 이 정도로 얘기를 해두겠습니다. 좌우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그리고 이거 처음에 벽오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심송 이리 죽 있는데 이거 전부 안 되겠습니다. 중요한 걸 갖다 가려가면서 이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고 중요치 않은 것이 없지만은 가려가면서 이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여러분들 이 기회에 말이죠 하루에 하나만 아세요. 열 나(개)나 백 나나 할 것 없이 하나 알면 전부 알아버립니다. 우주 공간에 걸 전부 알아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만 아세요 하는 건데, 우주 공간이고 뭣이고 그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허공중에 둥둥 떠 있다는 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 눈이 보는 것 아니다 귀가 듣는 것 아니다 혓바닥이 맛보는 것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눈으로 보는 것이 뭣이며 귀로 듣는 것이 뭣이며 혓바닥으로 맛을 보는 것이 뭣이며 의심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땐 의심을 가져요. 그런데 의심할 것이 없어요. 하는 놈이 있거든. 하는 놈이 있는 건데 세상 사람들 다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이라고. 마음이라 해도 좋고, 말이 많습니다. 이름들 많아요.

나는 여러분의 얼굴들 보고 하는 것 아니라 그 말이여. 여러분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를 걷어잡고 하는 애깁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일체중생이 다 자기일때 '열반'

4-4 귀경례

이 고를 없애는 것을 멸(滅)이라고 하였으며 그 원리를 또한 멸제(滅諦)라고도 하셨다. 또 열반(涅槃)의 원인은 무엇으로 얻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들의 깨친 행동, 실천으로써 가능한 것이며, 이는 환희(歡喜)와 대자대비의 행동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를 도(道)라고 하셨다.

부처님께서 맨 처음 초전법륜(初轉法輪) 시에 중생에게 설법(說法)하는 가운데 이러한 고집멸도(苦、集、滅、道)의 사회적 현상과 원인(原因) 결과(結果)의 동시에 실천되어 나가는 일을 설명하신 대목이 있어 이를 사제법문(四諦法門)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니르바나, 열반을 얻은 그 자리가 극락세계다. 도통한 자리, 그것이 바로 극락세계라면 그 세계에서 우리 중생을 인도해 주시는 아미타불 부처님께 목숨을 돌이켜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열반을 앞에서 진리 혹은 법성이라고 하였지만 다시 진여(眞如)라고도 하는데, 용수보살(龍樹菩薩)은 대지도론(大智度論) 백권을 펴낸 가운데 진리의 이름을 열반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말— 진리 자체를 열반이라고 하는—논리와 설명이나 지식을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진리를 일삼으려는

논리적 유희가 아니라, 거룩한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비유컨대 노란 빛으로 광택이 화려한 광석을 보고 그것은 금성(金性)이라 하거나, 희고 빛나는 것은 은(銀)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직관(直觀)이다.

모든 진리의 거룩하고 숭고한 그 자체를 열반이라고 하며, 그런 뜻에서 열반을 법성(法性)이라고 한다. 진리 자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서는 법성을 진여(眞如)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참된 자리라는 뜻이다. 백여가지나 되는 모든 과오를 초월하고 무릇 만물을 포용하여, 덕으로서 갖추지 않은 바가 없으며, 삼라만상(森羅萬象)의 모든 현상을 다 나타내지 않은 바 없는 원만(圓滿)한 모양을 진여해(眞如海), 진여의 바다라고 한다. 또 그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바로 이것이 극락세계다.

죄악이 깊은 우리 중생, 번뇌, 망상의 뭉치에 허우적거리는 우리들 중생을 극락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아미타불(阿彌陀佛)에게 지성으로 절한다는 것이다.

至心歸命禮 大智文殊菩薩大行普賢菩薩摩訶薩

큰 지혜를 가지고 있는 문수보살(文殊菩薩), 이 문수라는 것은 만슐세리라는 범어(梵語)를 중국 말로 번역한 것이며, 이미 이것은 우리말이 되어 있으므로 문수보살로 하자.

그런데 보살로는 다음에는 보현보살(普賢菩薩).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 해동교주 원효보살(海東敎主元曉菩薩)하는 여러 보살이 나오므로 개별적인 성격은 나중에 들기로 하고 먼저 보살의 일반 개념을 풀어

>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을**
> **다 나타내지 않은 바 없는**
> **원만한 모양이 '眞如海'이며**
> **그것을 열반이라 하며**
> **바로 이것이 극락세계다**
>
> **보살은 불방일 · 여실수행자**
> **지혜 · 덕행 공덕 우주에 가득**

보기로 한다.

보살(菩薩)은 범어로 보디사뜨바 마하사뜨바인데 보디는 깨친다, 사뜨바는 생명있는 사람 이라는 뜻. 이를 중국어로 번역하면 각유정(覺有情)이라고 하였다. 무릇 모든 행(行)의 덕(德)을 닦고 이루어 그 낱낱이 닦은 행은 저 우주와 같이 한량이 없으며, 공을 쌓아 얻은 바도 또한 한정할 수 없어, 그 행과 덕이 인간으로서 닦아서 세울 구경(究竟)까지 이른 사람이다.

보살은 알차게 수행하는 사람 여실수행자(如實修行者)다. 〈보성론(寶性論)〉이라는 데에 이 말이 있다. 지혜(智慧)와 덕을 얻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행을 닦는다. 그리하여 얻은 바가 전 세계에, 전 우주에 꽉 찰 수 있는 행동이다.

〈보성론〉과 같은 말인데 〈법집경(法集經)〉에는 우리들의 일체 만행을 통털어 두 마디 말로써 포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실수행(如實修行)이고 또 하나는 불방일이다. 알차게 수행하는 동시에 무엇이건 방심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무엇이나 그만 함부로 헝덩헝덩 보내버리는 것을 방일이라고 한다. 애써 노력하고 전진하는 것은 불방일(不放逸)이다.

여실수행한다는 것은 알차게 실답게 수행하는 것은 무엇을 이루느냐하면 우리가 부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성취시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 수행과 더불어 타인에게 자꾸 덕을 베풀어 주는 보시(布施)하는 일을 가리키고 있으며, 부단히 노력, 전진하므로서 도통하는 데에 이르게 된다. 도통한 만족한 행을 계속 자꾸만 전진하는 것이므로 공덕(功德)은 더욱 깊어 간다.

그러므로 불방일은 불구보(不求報)라고 하여,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그만큼 보수해 달라는 과보(果報)를 바라는 생각은 조금도 없다. 보살이 여실수행과 불방일이라는 이 두 가지 규범(規範)으로써 이룩하는 행동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계(戒)라고 일컫는 것이다. 청정(淸淨)하다든지 또는 인욕(忍辱), 욕된 일을 잘 견디고 계를 지켜 우리들이 어떠한 곳, 어떠한 일에든지 용하게 참아 나간다면 이것은 무생인(無生忍)을 얻었다고 말하게 된다.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러한 인(忍)을 얻어야 한다.

그리하여 무생인을 얻으므로서 모든 선(善)의 뿌리가 묻어지고, 이에 권태감(倦怠感)이나 염증이 나지 않으므로 자꾸만 참아나간다는 것을 무유피렴(無有疲厭) 싫증이 없다고 이른다. 일체의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내가 뭐 잘 했다느니 뭣을 어떻게 했다느니 그런 자부심을 버리고 끝내 착실한 안정감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新 영성(정신성) 향상법
수련회원 모집 (제3기)

회원대상 영성(정신성)의 수준을 높여 生死一如와 무주처 열반의 경지에 살면서 더욱 높은 과학적 포교에 힘쓰려는 스님, 재가자 특히 재발을 두려워하는 암환자 분들 환영

수련기간 **2014년 3월 6일(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 하루 3시간씩 (오후 2 ~ 5시) 2개월.
회비 30만원. 수료증 수여. 인원제한 있음.

수련학습 내용
영성의 중심기둥 세우기 수련
브라이언 박사의 스트레스 힐링(듣기명상) 수련
프랭크 킨슬러 박사의 순수자각과 유필링(행복감) 수련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과 초월적 성장론
윤회전생과 카르마 (자기동일성)의 영속성
영적 존재 화이트 이글과 실버버치의 영적 가르침
운명을 개척하는 유전자 활성화법
뇌에서 스트레스를 지우는 종합기법
아리타 히데호 교수의 세로토닌 신경 활성화 걷기법 등
감동뇌, 공감뇌를 활성화하는 매일매일의 생활법 등

「레이키(氣치료법)」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레이키교육 단체
현 대 생 활 레 이 키 연 구 회
02)720-5682. 010-8392-2557
www.reiki.co.kr

제 3기
영남범음범패 학인모집

▣ **개 강 일** : **2014년 3월 4일** 화요일 오후2시
▣ **기본과정** :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사물다루는 법
▣ **중급과정** : 시다림,49재의식, 천도재의식, 점안의식
▣ **고급과정** : 오공양무,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교육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6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음
▣ **강 주** : 상일 스님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향 운 / 교육부장 상 일 합장

◈ **장소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 2리 376~3 (고왕사)**
◈ **전화 : (총무원) 052) 262-6857**
010-9707-8850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 패 소 리 명 상 힐 링 연 구 소 (소장 : 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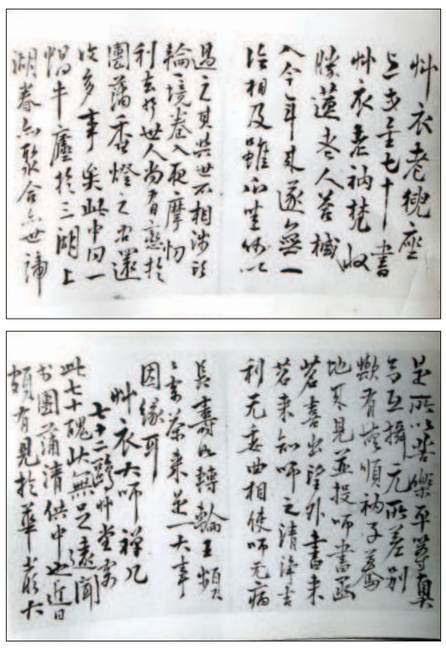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무병장수… 자주 차를 보내주오”

추사가 제주 적거에서 해배 소식을 들은 것은 1848년 12월19일 경이다. 하지만 그는 이듬해 2월 26일에야 배를 타고 제주를 떠난다. 이후 소완도를 거쳐 이진(梨津: 해남군 북평면)에 도착한 것은 2월 27일이다. 이런 사실은 그가 1849년 2월 28일, 이진에서 용산 본가로 보낸 편지에서 확인된다. 아울러 대흥사로 초의를 찾아간 사실도 드러난다. 해배 이후, 그는 삼호(三湖)에 살았다. 삼호는 지금의 마포이다. 이 편지는 추사가 유배지에서 돌아와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았던 삼호 시절에 보낸 것이라 짐작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의 노스님의 편지를 받고, 승련노인(勝蓮老人)이 답장하다.

금년 들어 마침내 편지 한 통이 서로 오지 않았습니다. 비록 막혔다 하더라도 무슨 허물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과는 두륜산을 경계로 서로 건너가지 않고, 야마도리천에 들어가 끊어 버린 것인가. 세상 사람은 오히려 수행하는 것을 그리워하니 도리어 다시 일이 많고 바쁩니다. 이런 중에 집 없는 달팽이 같은 (내가)삼호에 오두막을 지어 삼호에 권속이 모두 모였으니 또한 세속적인 입장에서 고통과 즐거움은 평등한 것입니다. 참으로 차별하는 바 없이 번갈아 들어오는 것을 알겠는가. 덕순 스님이 갑자기 와서 만났고, 아울러 그대의 편지와 차를 전해 받았는데, 바라지도 않던 편지와 차가 당도하니 기쁩니다. 그대도 청정하고 길하고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편지를 가져온 스님에게 그 곡절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대는 전륜왕처럼 무병장수하여 자주자주 차를 보내주십시오. 이는 일대사의 인연일 뿐입니다. (艸衣老衲梵



유배지에서 돌아와 썼던 추사의 편지

收 勝蓮老人答 槭 入今年來 遂無一信相及 雖爪哇何以過之 其與世不相涉 頭輪一境 卷入夜摩摩利去耶 世人尙有戀於團蒲香燈之間 還復多事矣 此中同一蝎牛 廬於三湖上 湖眷亦聚合 亦世諦是所以苦樂平等 眞知互攝无所差別歟 有德順衲子驀地來見 ㅍ¥投師書函茗 喜出望外書來茗來 知師之淸淨吉利 无委曲相使 師无病長壽如轉輪王 頻頻寄茶來 是一大事因緣耳)

추사가 ‘금년 들어 마침내 편지 한 통이 오지 않았다’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들은 한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던 듯하다, 이 편지에서 추사가 말한 ‘금년 들어’ 란 언제일까. 대략 1850년경이라 짐작된다. 이 무렵, 그의 일상도 어느 정도 여유를 회복했던 가 보다. 이는 그가 고통과 즐거움이 ‘참으로 차별하는 바 없이 번갈아 들어오는 것을 알겠는가’ 라고 말한 점이나, ‘비록 막혔다 하더라도 무슨 허물이겠습니까’ 라는 느긋함에서도 느껴진다. 하지만 벗의 소식이 못내 궁금했던 그였기에 ‘세상과는 두륜산을 경계로 서로 건너가지 않고, 야마도리천에 들어가 끊어 버린 것인가’ 라고 반문한다. 추사의 해학적 언어 구사는 이런 대목에서 빛난다.

그에게 벗의 편지와 차를 전달해 준 덕순 스님에 대한 고마움도 ‘갑자기 와서 만났고’ 아울러 그대의 편지와 차를 전해 받았다’ 한 것에서 또렷하다. 실제 덕순 스님의 내력은 자세하지 않지만 추사와는 면식이 있었던 사이로, 초의와 관련이 깊은 대흥사 승려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추사는 그리도 잊지 못하던 초의차가 당도했는데도 ‘바라지도 않던’ 것이란다. 하지만 ‘그대는 전륜왕처럼 무병장수하여 자주자주 차를 보내주시오’ 라는 말이 추사의 솔직 담백한 심정이었다. 아울러 이 일이 일대사의 인연이라니 이는 초의에게 보인 추사의 깊은 속내였을 것이다. 따라서 추사에게 초의는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 같은 존재였고, ‘초의차’ 는 추사자신을 교화하는 방편이었음이 분명했던 것이라 하겠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불교국 각나라 승가회 대표들의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로
세계불교법왕 및 승왕 추대 의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전에 부끄럽지 않는 불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실
각 종단 종정예하 총무원장님들을
법왕청 중앙정부에 모시고자 초대합니다

[2월 18일 화요일 11시 임시 각료회의 개최]

10월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의 세계불교법왕 및 승왕 추대위원회 출범식을 성대하고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동참해주신 대덕 큰스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정각회 국회의원님들과 불교국가 대사님, 미얀마 연방 정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축하사절로 종교성 부장관의 참석,연방 승가회 회장스님의 축사, 120여 각 종단 대표 스님들의 동참
그리고 연합뉴스에서까지의 보도 등 전례가 없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세계불교법왕청은 전세계 모두가 공감하여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들이 역시 그분이라면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불교의 최고의 어른을 선정 추대 하고자 극비밀로 은밀하게
움직여 놀라운 큰 성과를 거두어 출범 일주년 무렵에는 장엄한 국제 추대의식 행사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社團法人 世界 佛教 法王廳
세계불교 고승 및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 1080인 委員會
법왕청산하 소속 350여 종단 및 단체 총연합 협의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위원장 대승정 목 탁 - 혜 은 합장
02-733-5665. 011-229-6061



〈2014년 (불기2558년) 주요 행사〉
1. 각료 임명식 : 임명식 행사의 건 의견 청취
2. 출범핵심 각료 선정 (특명대사) : 중국.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일본 등
3. 대외 활동 홍보 및 고유 의식으로 중국 지장도량 및 관음도량 성지순례 및 단합대회
2014년 5월 9일 지장도량, 관음도량 6일 성지순례 및 임원진 단합대회 개최. 세계불교법왕, 이 회의에서 승왕 추대 명단 확정하고 취임식 준비에 따른 의견 청취. 세계불교 법왕청과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이름으로 고승단 및 임원진 高僧. 대종사 품수 추대의식 봉행. (경비 없음) 선착순 108명 접수
4. 법왕추대의식 및 장소, 법왕청 준비.
5. 1080인 고승단 및 세계불교지도자 인명 대사전 발간 (경비없음)

『세계불교법왕청』이란 명칭은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정식 등록 허가된 곳은 목탁스님이 주관하는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뿐입니다.

‘직지인심’ 포교는 자신 낮추는 수행

곽명희 (제 8대 포교사단장)

‘마하 반야바라밀~’

가사에 맞춰 흥겹게 리듬을 타는 나무젓가락이 장단을 맞춘다. 음정도 고르지 않고 제멋대로지만 어쩐지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흥이 노래에 실려 있다.

“아버님 뭐하세요? 누가 반야심경에 곡조를 붙여 부른대요?”

“이렇게 하니까 외우기도 편하고 안 신나냐. 듣는 부처님도 신날 거다.”

올 1월 1일 제 8대 조계종 포교사단장에 취임한 곽명희(법명 문수행.58) 단장이 옛날을 회상했다.

포교대상 1호는 시아버지

“아버님 많이 아프세요? 같이 반야심경 할까요?”

고관절이 깨진 후 앓아눕게 된 시아버지를 일으키던 문수행 보살이 그의 등을 어루만지며 장단을 맞추기 시작한다. 시아버지가 즐겨 부르던 예의 그 곡조다.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심경 관 자재 보살~”

며느리의 손장단을 박자삼아 270음을 다 부른 시아버지가 다시 자리에 눕는다. 다음날 새벽, 시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아버님이 불교신자는 아니셨지만 적적하실까봐 사경을 추천해 드렸죠. 그 후로 노인정에 있으시다가도 사경이 하고 싶으신지 집으로 오시곤 하셨어요. 그 정도로 신심이 강하셨죠. 신문지를 공책삼아 연습한 걸로 따지면 아마 한 트럭은 족히 넘을 거에요.”

나이 여든에 시작한 사경에 재미를 붙인 시아버지는 금강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등 사경하는 경전마다 모두 외워버렸다. 그날 읽은 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공부를 점검해주는 등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누구보다 대화를 많이 했다. 모든 일상 대화에 경구가 녹아 있을 정도였다.

떠나기 전 며느리 품에 안긴 시아버지는 연신 고맙다고 했다. 이리저리 불교 공부하러 다닌다고 많은 시간을 시아버지 곁에 있지 못한 며느리는 해드린 것이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다리 한 쪽이 짧은 장애를 갖고 계신 시아버지였지만 불편한 몸을 이끌고 부지런히 집안일을 도와주시려는 모습은 그대로 며느리에게 경책이 됐다. 농으로라도 남이 들으면 섭섭할 소리를 전혀 입에 담지 않으셨던 너그러운 성정 또한 본받을 덕이었다. 돌아보니 부처님과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처님이 맞는 말씀만 한다”며 고개를 끄덕이던 시아버지 모습이 눈에 선하다는 문수행 보살은 시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불교공부를 되돌아보게 됐다. 기도입재를 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나갔다는 것만으로 뿌듯해 했지만, 정작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절에 다녔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아버지는 불교를 알게 되어 생긴 즐거움을 돌아가실 때까지 지녔던 분이었다. 문수행 보살이 포교사가 된 후 처음으로 불법을 전해준 사람은 시아버지였던 것이다.

최초의 여성 포교사단장 되다

곽명희 제 8대 포교사단장은 최초의 여성 포교사단장이다. 앞으로 2년 동안 서울, 부산, 전북, 강원 등 전국 지역단 13곳과, 5천명의 포교사들을 지휘하는 책임을 맡게 된다. 꾸준히 불법 홍포에 헌신한 것 외에도 포교사단의 활성화를 위해 힘쓴 공로가 인정되어 임명됐다.

“조직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이 자리는 몸소 앞장서서 실천해 보여주는 자리지, 명예를 좇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터뷰를 위해 만난 곽명희 단장은 조직의 수장이라는 ‘권위’ 보다는 인정많은 이웃집 아주머니처럼 수더분한 모습이었다. 한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사람들에게서 흔히 느껴지는 고집이 우연찮게라도 말에 묻어나오는 법이 없었다. 말은 유순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정갈했으며 표정은 편안했다.

어떻게 평범했던 주부가 전국 단위의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을까. 곽 단장이 본격적으로 불교 포교활동을 시작한 것은 조계사 불교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다. 마흔이 돼서 불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자 마음먹고 들어간 불교대학과정을 이수하고 난 뒤, 자신도 깨닫고 타인도 깨달음으로 인도한다는 자각각타(自覺覺他)의 마음으로 포교사 시험을 쳤다. 2000년, 포교사단이 출범한 해였다. 그는 그 해 포교사 품수를 받았다. 재미있는 우연이었다.

조계사 신행상담실에서 상담활동을 시작한 지 1년 남짓 되었을 때 조계종 포교사단에서 활동하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했다. 불교를 모르는 이들에게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불법을 전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포교사단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상담팀에 있으면서 청소년 교화시설에 다녔다. 감수성 예민한 10대 청소년 아이들이라 말 붙이는 것조차 어려웠다. 인사만 하고나면 그뿐, 잘 지냈냐는 물음에도 묵묵부답이기 일쑤였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불법을 전해준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었다.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가며 절의 ‘ㅈ’ 자를 꺼내기까지 1년이 걸렸다.

“어느 날 두 명의 친구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에요. 씩씩거리며 제 분을 못 참는 아이가 좀 진정되는 듯하자 다가가 슬쩍 말을 걸었죠. 화를 내니까 자기도 더 화가 나고 타인도 화나게 하는데 그렇다면 화를 안 내는 쪽이 더 낫지 않냐고요. 아이는 ‘그럼 화를 어떻게 푸냐’ 고 물었고 저는 살아보니까 절을 하는 것이 화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대답했죠.”

아이들의 사회적응 훈련과 취업훈련을 돕는 교정교화 시설이었기에 간간이 아이들이 제빵공장에 취직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곽 단장도 소식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다. 옆에서 아이를 지켜보고 응원하는 것이 당시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누군가의 마음을 진심으로 어루만지는 일이라면 부처님 또한 환영했을 것이다. 지금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좋았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한 번이라도 곽 단장의 말을 기억해낼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렇게 곽 단장은 한 올 한 올 세상에 불연의 실을 꿰고 있었다.

“어렸을 때는 말수도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그대로 컸으면 상담팀에서 봉사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겠죠. 절에 다니면서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곽 단장의 고향인 동해 집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대원사라는 절은 곽 단장 인생에서 결정적 장소가 되었다. 불연을 맺은 것도, 성격이 바뀌게 된 것도, 남편을 만난 것도 바로 대원사에서였다. 열 살 무렵, 스님이 귀엽다며 주는 과자를 받아먹으러 다닌 것이 계기였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학생법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당시 대원사는 다양한 행사 개최를 비롯해 학생법회는 물론 합창단도 운영하고 한문도 가르쳐주는

어릴 적 맺은 불연이후 줄곧 불교 수행
조계사 불교대학 다니며 신행상담 시작
포교사단 출범한 2000년 포교사 품수

이후 상담팀에서 활동하며 홍보팀 조직
홈페이지 개설하는 등 홍보 기틀 닦아
‘좋은인연’ 봉사하며 노인복지 힘써

등 교외활동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을 때였다. 강원 지역 사찰들이 모여 합동체육대회를 할 때면 일일이 편지를 써서 인편에 전달하고는 했는데 당시 고등학생이던 남편은 곽 단장이 쓴 우편물에 몰래 편지를 끼워넣곤 했다. 인연을 이어준 곳이니 더욱 신심이 깊어질 수 밖에 없었다. 결혼 후 남편이 청년회 회장을 맡으면서 주말이면 아들을 데리고 대원사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됐다. 아이는 신도들이 봐주고 남편과 곽 단장은 열심히 절일을 거들었다. 곽 단장은 서울로 이사 온 후에도 10년 동안 집 근처 관음사에 부지런히 새벽기도를 다녔다. 아직도 반야심경을 아침마다 염송하는 곽 단장은 불교를 접한 이후로 한 번도 공부를 놓아본 적도, 쉰 적도 없다.

2000년 이후 곽 단장은 본격적으로 중앙 포교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포교, 환경, 복지, 문화 등 14개 분야에서 팀이 꾸려지는 동안 포교사가 뭐하는 직업이냐고 묻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군대, 경찰은 물론 통일, NGO등 여러 곳에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이를 모른다니 아니다 싶었다. 포교사단 내 홍보팀을 꾸렸다. 홈페이지도 만들고 자비로 구입한 카메라로 활동모습을 찍은 사진을 불교 언론사 등에 보내며 포교사들의 활약상을 불자들에게 알렸다. 또한 전국의 지역단마다 2명의 홍보위원을 두어 활동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재, 서로 포교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는 포교사 커뮤니티를 구축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포교사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월보와 뉴스레터



곽 단장의 가족사진. 가운데가 곽 단장의 시아버지이다.



곽명희 단장은 … 1955년 강원도 동해시에서 태어났다. 2000년 포교사 5기로 품수했고 조계사 신행상담실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2003년 동국대 불교대학원21기 불교학과 2년을 수료했고, 2004년과 2010년 포교사단 부단장을, 2006년과 2012년 수석부단장을 지냈다. 2007년 사단법인 좋은인연 사무국장에 취임했으며 2013년에는 좋은인연 이사장이 되었다. 서울시 환경감시원, 서울시 성북구 복지위원을 지냈으며 사회복지사 2급과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마하 반야바라밀~'

가사에 맞춰 흥겹게 리듬을 타는 나무젓가락이 장단을 맞춘다. 음정도 고르지 않고 제멋대로지만 어쩐지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흥이 노래에 실려 있다.

"아버님 뭐하세요? 누가 반야심경에 곡조를 붙여 부른대요?"

"이렇게 하니까 외우기도 편하고 안 신나냐. 듣는 부처님도 신날 거다."

올 1월 1일 제 8대 조계종 포교사단장에 취임한 곽명희(법명 문수행.58) 단장이 옛날을 회상했다.

포교대상 1호는 시아버지

"아버님 많이 아프세요? 같이 반야심경 할까요?"

고관절이 깨진 후 앓아눕게 된 시아버지를 일으키던 문수행 보살이 그의 등을 어루만지며 장단을 맞추기 시작한다. 시아버지가 즐겨 부르던 예의 그 곡조다.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심경 관 자재 보살~"

며느리의 손장단을 박자삼아 270음을 다 부른 시아버지가 다시 자리에 눕는다. 다음날 새벽, 시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아버님이 불교신자는 아니셨지만 적적하실까봐 사경을 추천해 드렸죠. 그 후로 노인정에 있으시다가도 사경이 하고 싶으신지 집으로 오시곤 하셨어요. 그 정도로 신심이 강하셨죠. 신문지를 공책삼아 연습한 걸로 따지면 아마 한 트럭은 족히 넘을 거에요."

나이 여든에 시작한 사경에 재미를 붙인 시아버지는 금강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등 사경하는 경전마다 모두 외워버렸다. 그날 읽은 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공부를 점검해주는 등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누구보다 대화를 많이 했다. 모든 일상 대화에 경구가 녹아있을 정도였다.

떠나기 전 며느리 품에 안긴 시아버지는 연신 고맙다고 했다. 이리저리 불교 공부하러 다닌다고 많은 시간을 시아버지 곁에 있지 못한 며느리는 해드린 것이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다리 한 쪽이 짧은 장애를 갖고 계신 시아버지였지만 불편한 몸을 이끌고 부지런히 집안일을 도와주시려는 모습은 그대로 며느리에게 경책이 됐다. 농으로라도 남이 들으면 섭섭할 소리를 전혀 입에 담지 않으셨던 너그러운 성정 또한 본받을 덕이었다. 돌아보니 부처님과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처님이 맞는 말씀만 한다"며 고개를 끄덕이던 시아버지 모습이 눈에 선하다는 문수행 보살은 시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불교공부를 되돌아보게 됐다. 기도입재를 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나갔다는 것만으로 뿌듯해 했지만, 정작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절에 다녔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아버지는 불교를 알게 되어 생긴 즐거움을 돌아가실 때까지 지녔던 분이었다. 문수행 보살이 포교사가 된 후 처음으로 불법을 전해준 사람은 시아버지였던 것이다.

최초의 여성 포교사단장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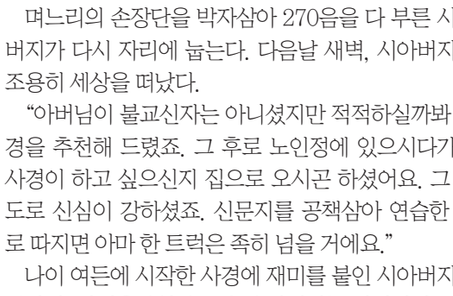
곽명희 제 8대 포교사단장은 최초의 여성 포교사단장이다. 앞으로 2년 동안 서울, 부산, 전북, 강원 등 전국 지역단 13곳과, 5천명의 포교사들을 지휘하는 책임을 맡게 된다. 꾸준히 불법 홍포에 헌신한 것 외에도 포교사단의 활성화를 위해 힘쓴 공로가 인정되어 임명됐다.

"조직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이 자리는 몸소 앞장서서 실천해 보여주는 자리지, 명예를 좇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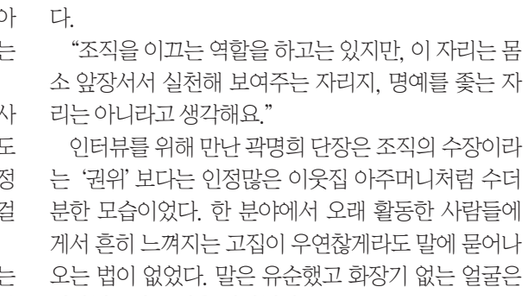
인터뷰를 위해 만난 곽명희 단장은 조직의 수장이라는 '권위' 보다는 인정많은 이웃집 아주머니처럼 수더분한 모습이었다. 한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사람들에게서 흔히 느껴지는 고집이 우연찮게라도 말에 묻어나오는 법이 없었다. 말은 유순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정갈했으며 표정은 편안했다.

어떻게 평범했던 주부가 전국 단위의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을까. 곽 단장이 본격적으로 불교 포교활동을 시작한 것은 조계사 불교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다. 마흔이 돼서 불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자 마음먹고 들어간 불교대학과정을 이수하고 난 뒤, 자신도 깨닫고 타인도 깨달음으로 인도한다는 자각각타(自覺覺他)의 마음으로 포교사 시험을 쳤다. 2000년, 포교사단이 출범한 해였다. 그는 그 해 포교사 품수를 받았다. 재미있는 우연이었다.

조계사 신행상담실에서 상담활동을 시작한 지 1년 남짓 되었을 때 조계종 포교사단에서 활동하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했다. 불



곽 단장은 매주 성북구 안암동 '노인의 집'에 가서 반찬 만들기 봉사를 한다.



올해 1월 부터 제8대 포교사단장이 된 곽 단장이 포교원장 지원 스님으로부터 단기를 전해받고 있다.

전법일기

'초코파이' 보다 맛난 '부처님 법과(法菓)'

2012년 말 TV에서는 초코파이 광고가 흘러나왔다. 교회에 간 군장병이 줄을 서서 초코파이를 받는 장면이었다. 초코파이를 나눠받은 그 병사가 목사에게 고백한다. '저 사실 불교에요…'

얼마나 장병들이 간식을 좋아하면 간식에 따라 종교를 선택하는 모습까지 TV에 나올까. 교회에서 초코파이를 받은 장병들은 광고 후반에 '성당은 두 개를 준데…' 라며 좌절하는 유머러스한 장면을 연출하기까지 한다.

사실 바깥 군것질 거리를 접하기 힘든 훈련병들에게 종교행사 이후 맛볼 수 있는 간식은 생각보다 더 큰 관심사다.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초코파이 광고처럼 간식에 따라 군대 내에서 종교를 선택하는 장병들이 다수 있다.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군대의 훈련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친 장병들을 위로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먹거리기에 각 종교들마다 종교행사 후 지급되는 간식에 많은 신경을 쓴다.

그러나 간식에 대한 비용을 각 종교시설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종교마다 재정형편에 따라 간식의 양과 질이 큰 차이를 보인다. 때문에 군대 내에서는 소위 '간식전쟁' 이 벌어진다. 간식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배급하는 것까지 종교간 경쟁이 일종의 전쟁과 같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이러한 '간식전쟁' 은 문제가 많다. 종교적 가르침과 예례를 통한 마음 수양이라는 종교행사 본연의 모습을 퇴색시키고 종교행사를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입이 즐겁기 위한 형식적인 행사로굳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군종장교들이 모여 군종부 차원으로 간식을 통일한 적이 있다. 훈련병들에게 각 종교행사 이후 초코파이 두 개와 음료수 한 개로 통일한 것이다. 물질적인 면보다 종교 본연의 모습과 의미에 충실하기 위함이었다. 업체도 통일해 공동구매를 실시했다.



그림 · 박구원

효과는 컸다. 병사들에게 주는 먹을거리가 다소 줄긴 했지만 간식에 대한 경쟁이 줄어들자 자연스럽게 종교행사 콘텐츠를 충실히 하는데 힘을 기울이게 됐다. 훈련병들이 간식에만 매달리지 않고 법회와 법문 내용에 집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간식 경쟁을 줄인 것은 훈련병들에게만 일어난 변화가 아니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법회의 콘텐츠와 법문 내용을 더욱 충실히 준비하는 계기가 됐다. 먹거리만이 아니어도 내용으로서도 병사들에게 또 다른 위안과 즐거움을 줄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작년 여름의 일이다. 최전방 사단에 오자마자 격오지에 근무하는 병사들을 만나고, 지형과 특성을 익힐 겸 사단의 전 GOP와 GP를 돌았다. 이곳에 근무하는 병사들은 소위 '황금마차' 라고 불리는 이동식 PX를 제외하고는 간식거리를 접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군종장교들은 여러 가지 먹거리를 사들고 위문을 하곤 한다.

위문품은 '설레임' 이라는 아이스크림. 작년 여름은 어느 해보다 더웠다. 더위도 더위지만 이른바 황금마차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희귀 품목이 바로 아이스크림이어서 인기가 좋았다. 병사들에게 "법사님이 너희들을 만나러 설레는 마음을 안고 설레임을 사왔다"고 농담으로 교육을 시작했던 것이 기억난다.

하지만 법회를 진행하다보니 간식보다 부처님 가르침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병사들이 많았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이들에게는 먹는 간식이나 부처님 법이나 접하기가 어려운 것이 매한가지이기 때문이었다. 그때 나는 손오공처럼 몸을 여러 개로 나누어 이곳 저곳에서 힘들어하는 장병들 앞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엉뚱한 상상을 하기도 했다.

힘든 군생활에서 간식은 간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병사들이 휴대하기 편하고 울할 때 먹으면 기분전환에 도움이 되는 초콜렛이 함유된 초코파이가 절대적인 인기를 얻는 것이 그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장병들이 힘들 때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감로수와 같은, 초코파이보다 더 달고 오래가는 '마음의 간식' 을 마련하는데 더 정성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싶다.



여정 군승 법사(5사단 사령부 광복통일사)



대만, 기도보다 봉사에서 佛法 찾기 '열풍'

인도주의 불교 확산…
"기도보다 소외이웃 돕기 나설 것"




① 대만의 불교단체들이 불우이웃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은 대만의 정년퇴직자 불자들이 추 치 재단(Tzu Chi Foundation)의 무료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모습. ② 불광산에서 마련한 합동결혼식 모습. '생활 속의 불교'를 강조하는 불광산은 가정을 신행의 터전으로 삼고자 '합동결혼식'을 진행하는 번거로움도 마다하지 않는다. ③ "불교란 기도하는 게 아닌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샤오(Hsiao · 63) 씨. 그녀는 매일 추 치 재단(Tzu Chi Foundation)의 재활용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대만의 샤오(Hsiao · 63) 씨는 정년퇴직한 신심 깊은 여성 불자다. 그런데 그녀는 퇴직 이후 사찰에서 기도하기 보다는 추 치 재단의 재활용센터에서 일하는 시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기도보다는 실천에서 더욱 분명해진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대만 불자들의 '신심 경향'을 분석한 BBC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샤오 씨의 말을 인용, "대만 불자들이 재활용센터 등 봉사 현장에서 불우 이웃을 돕는 데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대만 불자들은 타인을 내 몸처럼 아끼는 과정에서 불법의 진리를 찾는 '인도주의 불교(Humanistic Buddhism)'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 같다"고 평가한 BBC는 "이러한 경향이 향후 대만 불교계를 선도하는 신행 주류로 나서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불자들의 변화는 장례식장에서도 나타난다.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예전처럼 과도하게 지전과 향을 태우지 않는다. 만약 그런 불자가 있다면, 다른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까지 '인도주의 불교'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기 자신을 아끼듯 다른 사람도 아껴야 한다'는 것에 충분히 담겨 있다"고 강조한 신 바오(Hsin Bao · Fo Guang Shan) 스님은 "대만 불교계에서 '보다 많은 사람을 돕는 게 자신의 고(苦)를 벗는 길'이라는 생각이 전례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BBC, 대만 신심경향 분석
환경보호 · 타인배려 하는
부처님 가르침 실천 나서며
대만불교 파급력 해외에서 높아져

추 치 재단의 경우, 10여 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 놓고 재단의 단복인 파란색 셔츠와 흰색 바지를 입고 도심 곳곳에서 플라스틱 병을 모으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플라스틱 병은 재활용 공장에 파는 데 수익금 전부 독거노인, 불우이웃, 결손가정, 이재민 등을 돕는 데 사용된다.

또 다른 영향력 있는 불교 단체인 달마드럼 마운틴(Dharma Drum Mountain)의 경우, '불교 101(Buddhism 101)'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대만 불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일상에 접목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시험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는 양 페이(Yang Pei) 법사는 "최근까지 약 200여 명의 국내외 불교심리학자와 불교철학자들이 초빙되어 청중과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과 그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불광산(Fo Guang Shan)의 경우 성장이 어린이를 위한 '청소년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쿠오 쳉 티안(Kuo Cheng-tian,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교수는 "이 캠프에서는 스님의 삶보다는 재가자의 삶의 중요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며 "불광산은 재가자들이 연민과 자선에 더 큰 가치를 둘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BC는 "대만 불교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게 분명하다"라고 전제하고, 추 치 재단을 예로 들어 "세계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불교 재단이 태풍으로 집을 잃은 필리핀 5만 가구의 재건축 비용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84개 나라의 불우이웃을 돕는 사례는 찾을 수 없다"며 "이는 대만 불교를 '인도주의 불교'로 부르기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BBC에 따르면 추 치 재단에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약 200만여 회원을 포함해 현재 약 700만여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불광산의 경우, 유럽 지역에 20개, 미주 지역에 24개 사원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200여 개 사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달마 드럼 마운틴은 세계 125개의 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레시아에서만 10만여 회원이 늘어날 정도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샤오(Hsiao · 63) 씨는 "그런데 그 '마음의 매듭'이란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 특히 어려운 이웃의 마음에 있는 '매듭'이었다"고 주목하고, "정년퇴임 후 자녀들과의 경제적 갈등, 여기에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이 겹쳐 무척 힘들었는데, 재활용센터 자원봉사에 열중하면서, 서서히 풀어갈 수 있었다"며 "나의 고통과 타인의 고통이 다르지 않고, 타인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게 자신의 고통을 푸는 열쇠였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잠파 스님, 美 순회강연 열어

첫번째 순회강연 열린 록 아일랜드…300여 대중 동참



미국 일리노이와 아이오와 주에서 순회강연을 펼치는 잠파 스님.

미국인 스님이 일이노이 주와 아이오와 주의 4개 도시에서 '명상'을 주제로 순회강연을 시작해 주목된다.

〈콰드 타임즈(Quad-Times)〉 지가 "동부 지역 불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겐 켈상 잠파(Gen Kelsang Jampa · Kadampa Meditation Center · 텍사스 소재) 스님이 지난 3일 일리오니 주의 록 아일랜드(Rock island)를 시작으로 일이노이 주와 아이오와 주의 4개 도시에서 순회강연을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잠파 스님의 순회강연은 일이노이 주의 몰라인(Moline), 록 아일랜드(Rock island)와 아이오와 주의 데븐포트(Davenport), 비턴돌프(Bettendorf) 등 일명 '콰드 시티(Quad-City)'를 대상으로 기획됐다.

〈콰드 타임즈〉 지에 따르면, 지난 2일 콰드 시티 식물원 대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2시간 남짓 진행된 잠파 스님의 순회강연에는 300여 명의 대중들이 참석할 정도로 지역 불자들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바쁜 것은 미덕이 아니다'를 주제로 대중 강연을 시작한 잠파스님은 콰드 시티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기인 '슈퍼볼' 경기를 빗대기도 하고 유머를 던지기도 하며, 콰드 시티 시민들의 '닫힌 마음'을 여는 한편 명상을 체험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하는 등 시민들에게 불교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이날 '바쁜 것은 미덕이 아니다'라는 주제에 대해 콰드 시티의 한 시민은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에 쫓기는 것은 모두 살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고, 잠파 스님은 "우리의 큰 문제는 휴식조차도 마치 경주를 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데 있다"며 "우리들이 만약 야생 코끼리와 같은 마음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잠파 스님은 "마음 챙김은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행복을 찾는 부처님의 혜안이 담긴 방편"이라고 강조하고 "그렇게 담금질 된 마음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도 싹틀 수 밖에 없는데, 이를 '미덕'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잠파 스님의 책만 10여 권을 읽었다"는 에린노르 디스메트(Eleanore DeSmet) 씨는 "불교에 관심은 있었지만, 이렇게 대중 강연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라며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잠파 스님의 강연은 마음의 문을 열고, 불법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콰드 타임즈〉 지는 "이번 순회강연은 명상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한껏 고조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록 아일랜드에서 시작한 순회강연은 오는 5월까지 콰드 시티에서 10여 차례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日, 12C 막부시대 부처님상 발견

가슴에 수정장식 희소성 높아




12.8㎝ 길이의 어른 손보다 작은 부처님 열반상이 일본 정토종 사찰에서 발견되었다(사진 왼쪽). 이번에 발견된 열반상은 부처님 가슴에 수정이 박혀 있다는 것이 특색이다(사진 오른쪽).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요시노리 미즈노

12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손바닥 크기의 부처님 상이 일본에서 발견됐다.

2월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발견된 아담한 크기의 부처님 상은 카마쿠라 막부 시대(1192~1333)것으로 추정되며 12.8㎝ 길이로 어른 손보다 작은 크기다.

석가모니 열반 당시를 표현한 와상으로 가슴에 수정이 박혀있다는 것이 특색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반짝이는 수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태까지 부처님 상에 쓰인 수정은 눈, 손끝, 이마 등에 쓰인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크기 또한 길이 2㎝, 너비 1㎝에 지나지 않았다.

열반상은 일본 오츠시 정토종 사찰인 신지온인(新知恩院) 창고에서 발견되었으며, 오동나무함에 보관되어 있었다. 함 뒤편에는 절대 장소를 옮기지 말라는 문구가 적혀있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일반적이지 않은 크기와 귀한 수정이 박혀있는 것으로 보아 불상의 소유주에 관해서도 관심

이 집중되고 있다. 몇몇 전문가들은 정토종 개조인 호넨(法然,1133~1212) 스님의 개인 소유물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열반상은 당시 불상제작의 거장으로 꼽혔던 카이케이(快慶,?~?) 스님의 작품일 것으로 추정된다. 카이케이 스님은 운케이(運慶,?~1223) 스님과 함께 일본 나라시 도다이지사(東大寺)에 있는 8.5m높이의 금강역사상을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1203년 조성된 금강역사상은 생동감과 역동성이 살아있는 목조 조각상으로, 두 스님이 2명의 불사(佛師)와 함께 75일 만에 완성했다.

이번에 발견된 열반상은 오츠시 역사박물관에서 2월 8일부터 3월 16일까지 일반인에 공개된다.

배현진 기자

'찬불가' 때문에 호텔 투숙객과 마찰



팝스타 보이조지

'불교 찬가'라도 장소와 사람에 따라 소음이 될 수 있다. 미국 케이블방송 FOX29는 7일 "뉴욕 한 호텔에서 불교 찬가를 열창하던 팝스타 보이 조지(Boy George)가 호텔 투숙객들과 마찰을 이르켰다"고 전했다.

1980년대부터 자신의 직선적인 성품을 다스리고 약물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명상 실수를 해왔던 보이 조지는 '2012년 티베트 불교로 개종한다'고 주변에 밝힌 바 있다.

FOX29는 보이 조지와 마찰을 일으킨 투숙객의 말을 인용, "그의 불교 찬가는 가수의 노래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거슬리는 소리였다."고 전하고, "공공 장소에서는 명상을 하듯이 불교 찬가를 불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2014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6기 수강생 모집 안내문

그동안 **제1기에서 제5기**까지 전국에서
7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
2 사찰에서 스님을 도와 신도 관리를 하는 총무보살

◆교육기간 : **2014년 3월 초부터 6개월간**
◆수 강 료 : 6개월 교육 전기간 무료
◆개강일자 : **2014년 3월 4일(화요일) 오후 1시**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후로 자세한 안내문 보내드립니다)
◆책 자 : 책자는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이며,
책자대금은 별도입니다.
본회의 사주명리학 강의는 초보자라도 6개월간 교육을 마치면 누구나 적중률에서 일인자가 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의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배우시고 나면 큰 보람을 느끼십니다.

성 지 관 음 회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
전화 : 031)768-8414~6 팩스 : 031)768-8413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4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 (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39위,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강식 및 수업일시
■ 개 강 식 : **2014년 3월 6일 (목요일)**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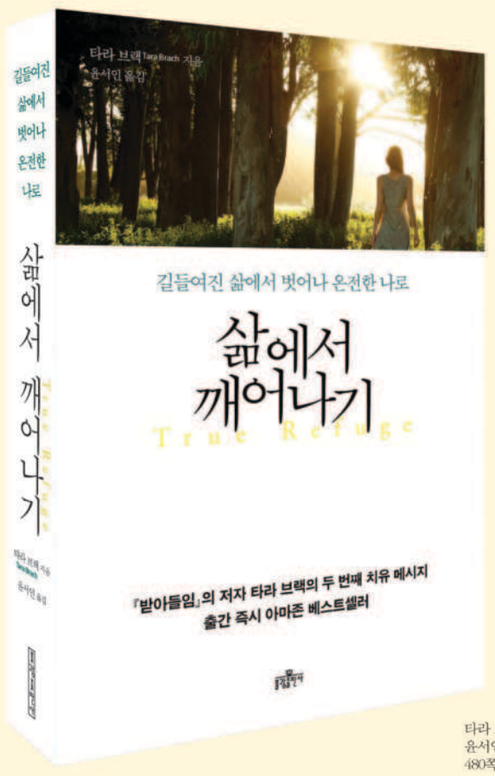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나를 믿고 산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타라 브랙 지음, 윤서인 옮김, 480쪽, 20000원

길들여진 삶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로

삶에서 깨어나기
True Refuge

『받아들임』의 저자 타라 브랙의 두 번째 치유 메시지
출간 즉시 아마존닷컴 베스트셀러!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 흔들리는 인간관계,
위중한 질병,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
외로움과 좌절 앞에 휘청거리는 당신에게 전하는 치유 메시지.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은 이미 우리의 내면에 있으며
'아무리 힘겨운 상황에서도 치유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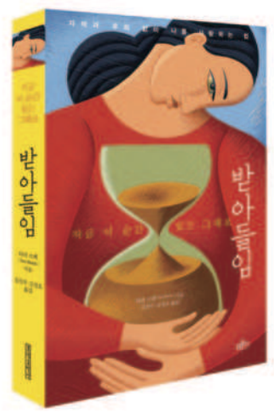


타라 브랙 미국의 저명한 명상가이자 임상심리학자로, 현재 미국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영성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녀가 설립한 워싱턴 D.C. 통찰명상회에서 모임이 열리면 메릴랜드의 유니테리언 교회 앞은 몰려드는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루며, 그녀의 강연 동영상은 매월 20만 회 이상 다운로드되고 있다. 그녀는 서양의 심리치료법과 동양의 불교명상을 결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건져내고 있으며, 다양한 불교 평화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틱낫한, 혜민 스님이 추천한 '치유의 바이블'

자책과 후회 없이 나를 사랑하는 법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타라 브랙 지음, 김선주·김정호 옮김, 456쪽, 19800원

아마존닷컴 심리치유 분야 10년 연속 베스트셀러!

"조금 슬퍼도 괜찮아,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자신을 사랑하면 세상도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거예요."
– 혜민 스님

"명상 책은 나름 여러 권 읽었고 이 책도 비슷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명상 책을 읽다가 눈물을 흘린 것은 처음이었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내 모습이 거기에 오버랩되었다." – 교보문고 독자 서평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

전통 '조왕탱화' '반야용선'



조왕탱화



반야용선

조왕탱화

부엌의 신인 조왕신(부엌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竈王壇)에 봉안된다.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앙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불교에서는 황신(荒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가마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紫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 竈王大神(나무조왕대신)' 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

■ 크기 : 가로 61cm × 세로 91.5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반야용선

어지러운 세상을 넘어 피안의 극락정토에 갈 때 탄다는 배를 말한다. 반야(般若)란 모든 미혹(迷惑)을 끊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힘이나 모든 법을 통달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을 뜻한다. 반야용선도는 망자를 위해 걸었던 그림으로, 그림에는 보통 좌로부터 극락의 주인인 아미타부처, 극락으로 인도하는 깃발을 든 인로왕보살, 반야용선과 망자가 표현되며 슬픔에 젖은 유가족이 그려지기도 한다. 즉 반야용선이 그려진 것은 망자가 아미타부처가 계시는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往生)하기를 염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크기 : 가로 90cm × 세로 130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한 탱화 수강 신청안내

불모의 도움을 받아 한 탱화 조성 과정(1.출초 2.배접 3.아교포수 4.도채 5.바림 6.문양 7.금니 및 황선쫓침 8.금박붙이기 9.상호 10.틀 싣기 11.발미)을 통해 탱화의 기초와 기능을 함께 배우면서 완성도 높은 예배용 탱화의 완성이 목표

– 모집분야 : 한 탱화과, 기초기반(도안)과, 교육 민화(단청)과
– 모집인원 : 서울 (한 탱화과 20명 / 교육 민화 단청과 20명).
경주 (한 탱화과 10명 / 기초기반 도안과 10명). 부산 (한 탱화과 10명)
– 교육장소 : 서울 –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한국전통채색학교
경주 –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1008-16 한국전통채색학교
부산 – 진구 연지도 부산시민공원 인근 한국전통채색학교
–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 교육일정 : **2013년 10월 16일 – 2014년 3월 16일 (5개월)**

성유불화원 금어 조성철 합장
문의 051)332-0045 / 010-9216-0988

KS정품 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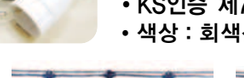


연등전선 전문 생산업체인 삼정전기산업(주)와 계약 체결로 KS정품 연등전선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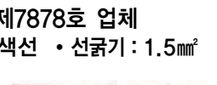
• 의장등록 제175460호
• KS인증 제7878호 업체
• 색상 : 회색선 • 선굵기 : 1.5㎟



방수전선-22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8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1.5m / 6cm연등



방수전선-25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8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2.5m / 8cm연등



방수전선-30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8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5m / 8cm연등



방수전선-50cm
할인가 70,000원 (5줄이상)
정 가 9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25m / 13cm연등



방수전선-1m
할인가 90,000원 (5줄이상)
정 가 10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50m / 야외용



방수전선-2m
할인가 90,000원 (5줄이상)
정 가 100,000원
• 방수전선 1줄 : 25구
• 길이 : 50m / 야외용



▲바림등(8cm)

연화만월등 (30cm)▶
판매가 200,000원 (100개)
• 1BOX : 100개 • 등지름 : 30㎝
• 색상 : 주황,빨강,노랑,분홍,초록



할인가 3,200원 (60개이상)
정 가 3,800원
• 1BOX : 30개 • 등지름 : 24㎝
• 빨강,보라,주황,분홍,진분홍,흰색



연등속지 백색 1묶음
판매가 6cm 3,500원
판매가 8cm 4,000원
판매가 10.5cm 4,500원
판매가 12cm 6,000원
※ 1묶음당 100개를 만들수 있습니다.



한지 칼라등지
판매가 8cm 30,000원
판매가 10.5cm 40,000원



한지 칼라등지 완성품
• 색 상 : 진분홍, 연분홍, 빨강, 하늘색, 노랑색, 흰색
※ 1묶음당 50개를 만들수 있음.

양초 할인판매!!



고급 국내산 양초 "무료배송"
• 밀 대 (70개입) @90,000원 (2BOX이상)
• 돈타레 (40개입) @90,000원 (2BOX이상)
• 원기둥 (20개입) @90,000원 (2BOX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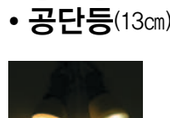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 등 할인가

• 바림등(6㎝) @2,700원 (60개이상)
• 바림등(8㎝) @3,200원 (60개이상)
• 바림등(10.5㎝) @6,000원 (32개이상)
• 바림등(13㎝) @13,000원 (12개이상)
• 바림등(20㎝) @35,000원 (4개이상)
• 바림등(30㎝) @80,000원 (1개이상)
• 공단등(6㎝) @3,000원 (60개이상)
• 공단등(8㎝) @3,600원 (60개이상)
• 공단등(10.5㎝) @7,000원 (32개이상)
• 공단등(13㎝) @15,000원 (12개이상)

• 비닐만월등A형(100개) 160,000원
• 비닐만월등B형(100개) 150,000원
• 비닐만월등(국산100개) 170,000원
• 연화만월등(100개) 200,000원
• 영가만월등(100개) 200,000원
• 장 만 월 등(100개) 200,000원
• 청사초롱등(100개) 250,000원
• 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 등철사(100개)
6㎝ 75,000원 / 8㎝ 80,000원
10.5㎝ 85,000원 / 12㎝ 90,000원



국산 LED전구 100,000원
1BOX : 50개
색상 : 촛불색/주광색

안전 인증 제품



전구(10W/5W) @250원/@350원
1BOX: 100개
제조원: 베트남



연잎(일반)/바림연잎 6,000원/ 7,500원
연분홍/진분홍/노랑/주황/빨강/녹색/흰색



집게부착 / PVC등표(100개) 20,000원 / 12,000원
크기: 8.5×21cm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515-8888-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불교미술 새로운 가능성 여는 '붓다 웃다'

붓다아트페스티벌2014…3월 6~9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제 2회 붓다아트페스티벌 3월 6일~9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 장면.

불교미술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실험하는 붓다아트페스티벌(Buddha Art Festival, 이하 BAF)이 2회를 맞았다. 3월 6일~9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다양한 불교미술 작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다.

올해로 2회를 맞은 BAF2014는 '붓다, 웃다' 라는 슬로건을 걸고 대중들을 찾아간다. 한층 강화된 본 전시와 더불어 불교만화초대기획전 '만화로 만화(卍話)하다' 전', 20만원전을 기획 불교미술의 대중화를 꾀했다. 붓다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불교미술을 어렵게만 느끼던 이들이 일반 미술작품을 감상하듯 편하고 즐겁게 불교미술을 관람하길 바란다. 불교만화전은 불교미술 장르 개척 및 콘텐츠화를 통한 대중화를, 20만원전은 불교미술의 가격적

'만화전' 불교미술 장르 개척

'20만원전' 으로 불교미술 대중화

수익금 일부는 기부 나눔 동참

인 대중화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한다.

본 전시는 불교회화에서부터 조각, 공예, 현대불교미술 등 다양한 장르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 및 갤러리들이 참가한다. 특히 부산의 나무갤러리, 해동불교미술원, 황규철 작가, 예상희 작가, 서칠교 작가, 이정숙 작가는 1회에 이어 2회 역시 참가해 BAF를 더욱 내실 있게 채울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불교만화초대기획전 '만화로 만화(卍話)하다' 는 함축적이면서도 딱딱한 불교의 교리와 사상을 간결하면서도 친근감 있는 그림으로 보여준다. 붓다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참여 작가들의 개성 넘치는 만화 작품을 통해 불교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해 불교문화에 대한 흥미를 유도할 것이다. 또한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는 현대적인 포교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다. 여기에 포토존, 사인회 등도 마련돼 관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만화전의 초대 작가로는 △엉뚱발랄한 캐릭터 어라로 대중들을 찾아가는 지찬 스님 △간결한 그림과 문구로 깨달음을 주는 배종훈 작가 △팔상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양경수 작가 △명상들을 새롭게 전달하는 용정운 작가 △경북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제비원 이야기' 를 연재하고 있는 인기 작가 주호민이 참여 한다.

두 번째 기획전은 '새 봄의 선물, Art Donation Project-20만원展' 이다. 불교와 한국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작품 중 20만 원대의 작품, 혹 그 이하 가격대의 작품만을 전시 및 판매한다. 적정한 가격대의 작품 판매를 통해 미술시장을 활성화하고 예술을 통한 기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이 기획의 취지다.

붓다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가격이 중저가이고 작품성 있는 소품을 선별했다. 불화와 만다라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출품 되며 대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 해설사를 초대 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신진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대중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작가들이 수익금 일부를 기부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한다.



임상진의 '佛' Mixed Media



서칠교의 '지련관음'



임수진의 '만다라-연'



지찬 스님의 어라 캐릭터

20만원전을 통해 불교계에서도 선물이나 상품으로 불교미술작품을 주고받는 풍조를 형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붓다아트페스티벌과 함께 조계종이 주최하는 '2014 불교박람회' 는 3월 6일 ~ 3월 9일까지 4일간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개최되며 불교문화의 전통과 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02)2231-203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불교미술 대중화 선언

김영수 BAF2014기획위원장



2회를 맞은 붓다아트페스티벌은 규모 면에서나 내용면에서나 두 배의 성장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올해 전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기획위원장 김영수 작가(사진)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해 20개 부스에서 올해 40개 부스로 2배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불교 전반적으로 미술축제에 대한 요구가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섹션은 만화전이라고. "인터넷 시대를 맞아 웹툰 시장이 크게 성장한 만큼 만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불교미술 역시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기에 이번 만화전을 기획했습니다."

불교미술은 그동안 미술 시장 보다는 불사를 통해 성장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실속에서 붓다아트페어는 지난해 불교미술의 대중화를 표방하면서 작가와 대중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일반적으로 불교미술이라 하면 사찰 법당에 있는 불화나 불상을 생각하기 마련이죠. 붓다아트페스티벌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 불교미술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앞으로 붓다아트페스티벌은 해외 사례들을 참조해 외연 확대에 나서고자 한다. "불교박람회와 별도로 독립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해외에도 우리 불교미술을 알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찰나 속에 흐르는 삼천년의 혼

국립공주박물관 2014년 특별전시

세계 문화유산으로 기록된 경주 부여 익산의 불교 문화유산을 사진으로 만나는 전시가 마련됐다. 국립공주박물관(관장 정성희)은 2014년도 겨울 특별전시로 '찰나 속에 흐르는 삼천년의 혼,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을 3월 30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일제강점기의 유리건판사진과 문화재 전문 사진작가 7인의 작품, 그리고 문화유산과 관련 있는 대표적인 유물을 선보인다. 또한 2015년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앞두고 있는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 · 부여 · 익산)' 의 사진도 함께 전시된다.

공주박물관은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9개의 문화유산이 등재되어 있다.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고인돌이 밀집되어 있는 고창 · 화순 · 강화 고인돌, 도시 전체가 신라 천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경주역사유적지구, 세계기록유산 대장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 조선시대 왕실과 유

경주 부여 익산 등 불교 문화재

사진작가 7인의 작품에 담아

교사상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종묘부터 안동 · 하회마을까지 각각의 문화유산은 가히 '지붕 없는 박물관' 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고 설명한다.

무엇보다 이번 전시에서는 故김대벽, 김광섭, 백종하, 서헌강, 안장헌, 전성영, 한석홍 등 문화재 전문 작가들의 사진 작품을 만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 익산 왕궁리 5층 석탑, 해인사 장경판전 수다라



서헌강 작가의 '익산 왕궁리 5층 석탑'

장, 석굴암, 정림사지 유적 등을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다.

국립공주박물관은 "세계가 인정한 우리 문화유산과의 만남 속에서 미래를 향한 꿈을 꾸며, 아울러 찰나 속에 멈춘 채 삼천년을 흘러온 우리 조상들의 혼을 느껴보길 바란다" 며 취지를 전했다. (041)850-6364

정혜숙 기자

20년 불화 수행 '공(空)과 허(虛)' 로 표현

한민정 작가 불화 초대전

"어릴 적 어머니를 따라 나서면서 어느 작은 사찰에서 보게 되었던 불화가 제 업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전시는 그간 20년 동안의 작업 결과물입니다. 돌이켜 보면, 이는 단순히 반복의 작업이 아니라, 흐트러진 마음을 다듬고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며 뒤엉킨 문제를 풀어가듯 하나하나 매듭을 짓는 과정이었습니다."

한민정의 '공 과 허' 불화초대전이 2월 12일~18일 인사동 이형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석가후불도, 어람관음도, 정병Ⅱ 등 28점의 불화를 전시한다.

'석가후불도' 는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여의를 지닌 문수보살과 가섭존자 그리고 우측에는 연꽃을 지닌 보현보살과 아난존자가 묘사되어 있다. 토황으로 밑칠을 한 후 가사에는 주조색이 되는 주색을 광물성 합성안료인 진사를 사용해 표현했다. '어람관음도' 는 33관음 중 하나로 나찰, 독룡, 아귀의 해를 제거해 주는 관음으로 물고기가 가득찬 어람을 들고 있는

2월 12일~18일

인사동 이형아트센터

보살도다. 바탕색을 토황으로 밑칠하고 분채로 채색하였는데 회화적인 묘사를 가미해 연잎과 꽃잎 줄기의 묘사로 붉은 색의 선을 긋고 색의 농도를 달리하며 입체감을 표현했다.

작가는 지난날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제자리에 만족해 버리는 안일함이 스스로를 퇴화시키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참회로 '공(空)과 허(虛)' 를 주제로 삼았다고 전한다. "이 작품의 전시회가 끝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가장 절박했던 순간들을 이겨내기 위해 작품에 매진했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20여년 불화 작업을 전시로 회향하고 이제는 비우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또 새로운 작품으로 대중들과 늘 호흡하는 작가가 되고자 합니다" (02)736-4806



한민정의 '어람관음도'

정혜숙 기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63·64번째 저서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신간! 바로보인 간당론(看堂論)

이와 같은 도리에서 적시적소에 맞게 주장자를 쓴다면 반드시 어떤 경우와 어떤 말끝에 치는 주장자냐에 따라 한 번을 쳐야 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와 어떤 말끝에 치는 주장자냐에 따라 두 번을 쳐야 할 때가 있으며, 또 어떤 경우와 어떤 말끝에 치는 주장자냐에 따라서 세 번을 쳐야 할 때가 있다. 그러한 법리를 모르고 주장자를 친다면 눈먼 주장자라 하는 것이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4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4권 출간! 운문 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대원 문재현 선사가 일체 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 보였다.

현재 32종 64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바른북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국 내 산 (청도 불광사 사찰 內 재배)
'적하수오 된 장' '적하수오 고추장' 판매

■ 적하수오, 적하수오 된장 필하신분 연락바랍니다.
• 하수오 된장 : 1 kg 5만원 • 하수오 고추장 : 1 kg 5만원
• 하수오 건조분말 판매 개시(kg당)

하수오 된장, 하수오 고추장은 청도 서룡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하수오로 만듭니다.



1.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모종을 예약 분양합니다.
2.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서룡 농장 :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묘목 재배
계좌번호 :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김남필
인터넷 검색 : 하수오 남서

문화人

“대중에게 받은 큰 사랑 국악으로 보답하고 싶어요”

UN공공행정포럼 홍보대사 위촉된 국악소녀 송소희

“공공행정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행사인 UN 공공행정포럼 홍보대사가 되어 정말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이름만 홍보대사가 아닌 좀 더 공부해서 이 행사를 잘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소녀 송소희 양이 2월 5일 UN 공공행정포럼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밝힌 소감이다. 이제 막 18세의 나이에 접어든 소녀가 밝히는 소감치고는 너무나 당차고 똑부러진다. 이날 송 양은 홍보대사 첫활동으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복주머니를 시민에게 직접 배포했다. 앞으로 홍보모델은 물론 로고송 제작, 문화공연 출연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송 양은 2004년 전국 시조 경창대회 대상과 2008년 KBS전국노래자랑 연말결선 대상 수상, 2009년 SBS스타킹 등에 출연하면서 대중들에게 주목을 받아왔다. 또한 수덕사 홍보대사,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 등을 맡으며 불교계와도 꾸준히 인연을 이어왔다. 그리고 지난해 KT광고에서 국악 소녀로 출연해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하지만 송 양은 자신은 스타나 연예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악인이라고 강조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방송 출연이 많은 건 아니에요. 예능은 ‘1박 2일’과 ‘남자의 자격’ 정도만 출연을 했고 대부분이 공연 프로그램에만 나갔죠. 저는 국악인이니까요. 학교와 병행해야 하니 월 3~4회 정도만 방송을 출연 해요.”

자신의 본분은 어디까지나 국악과 우리의 전통을 알리는 데에 있다고 말하는 송소희 양. 그러고 보니 그녀의 공연 경력은 매우 화려하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 국립국악관현악단, 충남국악관현악단, 청주시국악관현악단, 충주시국악관현악단, 용인시국악관현악단, 대전시국악관현악단, 숙명가야금 연주단 등 다수의 국악관현악단과 협연 하며 국악인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해왔던 것이다.



송소희 양은 우리의 국악과 전통을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진=박재완 기자

“수덕사에 가면 마음이 편해요”
대중적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악 알리는 일에 ‘최선’
한국의 전통 홍보에도 매진

“과목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한국사에요. 부모님께서 국악을 하려면 한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전통을 기본으로 하는 음악이 국악이니까요. 앞으로 저는 이런 국악을 대중들이 친근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너무 전통에 치우치지도 않고 국악의 본질을 깨지 않는 선에서 대중들이 국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신실한 불자인 아버지 덕분에 수덕사에서의 추억이 많다고 송 양은 말한다. “아빠 따라서 수덕사에 자주 갔어요. 새해마다 세배 드리러 가곤 하죠. 전 주지 옹산 스님은 출판 기념회 때 찾아가 노래를 불러 드릴 만큼 각별한 사이지요. 수덕사 산사음악회 때 공연도 했는데 스님들이 노래 잘 한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많은 스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절에 가면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아요”

송 양은 올해 안으로 국악 앨범을 낼 계획이다. “아직은 앨범을 내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성장 과정의 목소리를 담은 앨범을 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 그렇게 결정 했어요. 기본을 탄탄히 해서 깊이 있고 세련된 국악을 대중들에게 들려 드리고 싶어요.”

이번 앨범에서는 창작곡 두 곡을 포함해 기존 민요를 편곡한 곡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대중들과 음악으로 만나는 시간도 활발히 펼치고자 한다. 단독 콘서트는 물론 러시아, 미국, 인도 등의 해외 공연도 펼칠 예정이라고.

한때 남과 다른 학교생활 때문에 진로에 대해 고민도 많았던 송소희. 하지만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금 그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자 한다. 그래서 송소희 양은 국악과 전통을 알리는 국악인으로 동서양을 아우르는 음악가로 그간 받은 사랑을 세상에 회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국악과 우리문화 전통을 알리는 것이 본분이라는 송소희 양이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다.



UN공공행정포럼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웃고있는 송소희 양.

운수의 정신 송학의 자태로다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⑦ 권문해와 용문사





용문사는 예천 지역을 대표하는 절이다.

천년 세월의 기이한 흔적

예천 용문사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윤장대(보물 제684호)가 있는 절로 유명하다. 1173년(고려 명종3년) 처음 지어진 것으로 전해지는 대장전(보물 제145호) 안에는 윤장대와 아미타후불목각탱(보물 제989호)과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물 제989-1호)이 모셔져 있다.

서기 870년(신라 경문왕 10년) 두운(杜雲) 선사에 의해 창건된 용문사의 사명(寺名)과 관련, 고려 태조 왕건이 신라를 정벌하러 내려가다 이 사찰을 찾았으나 운무가 자욱하여 지척을 분간치 못했는데, 어디선가 청룡 두 마리가 나타나 길을 인도하였다 하여 용문사라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한다.

두운암반월색한(杜雲岩畔月色寒)
문설정기과차산(聞說旌旗過此山)
천재삼기유승적(千載三奇留勝跡)
연거래주구망환(憐渠來住久忘還)

두운암 가에 달빛은 시린데
듣자니 왕의 행렬이 이 산을 지났다네.
천년의 삼기는 뛰어난 자취 남겼는데
가련타 그이는 와서 머물며 오래도록 돌아감을 잊었네.
–권문해 〈초간일기〉 1581년 1월 4일.

예로부터 예천 지역을 대표하는 큰절이었던 용문사에서 10여리 떨어진 죽림리에는 초간정(草澗亭)이라는 정자가 있다. 거대한 암반을 휘돌아 가는 물길을 굽어보는 이 정자를 지은 사람은 권문해(權文海 1534~1591)다. 그가 죽기 전 10여 년 동안 기록한 일기가 〈초간일기〉인데 보물 제879호다. 필사로 기록된 이 일기는 임진왜란 직전의 조선사회를 연구하는데 귀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권문해가 51세 되던 해 1월 4일자 일기에 적혀 있는 위의 시 앞에는 ‘용문사의 승려 신징(信澄)이 와서 시를 구하기에 판서 정약포의 시에 차운하여 써 주었다’ 라고 적혀 있다. 권문해는 어려서 용문사에서 먹고 자며 글을 읽으며 심신을 수양했다. 그래서 용문사 승려들과 교분이 두터웠고 그의 사상도 매우 개방적으로 형성되었다. 개방적인 그의 사상은 가정적인 자상함에서 민족적인 웅혼함이 두루 융화된 ‘큰 그릇’ 이었다. 그가 남긴 저술과 시편들이 그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다.

권문해는 퇴계 이황의 문하에서 공부했으며 유성룡 김성일 등과 인간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친교가 깊었다. 무엇보다 독서량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권문해는 송나라의 음시부(陰時夫)가 편찬한 일종의 백과사전인 〈운부군옥(韻府群玉)〉을 본 따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을 편찬했다. 단군시절부터 선조 때까지의 역사 인물 지리 문학 식물 동물 등을 총망라하여 운별(韻別)로 분류한 〈대동운부군옥〉은 20권 20책의 방대한 저술로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이다.

17세에 향시에서 장원을 하고 27세에 별시(別試)에 급제하며 벼슬에 나간 권문해는 58세(1591년)로 생을 마치기까지 30여년 벼슬살이를 했다. 내직(內職)으로는 성균관과 춘추관에서 여러 보직을 수행했고 외직으로는 안동부사 공주목사 대구부사 등을 역임했다.

산사에서 과거 준비하던 추억

권문해의 문집 등에는 모두 293수의 시가 전한다. 벼슬살이로 고향을 떠나 있을 때에는 고향을 그리는 사향시(思鄕詩)를 짓고, 벗과의 풍류와 이별 등에서 느끼는 감흥을 드러낸 시, 가족과 친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도 많이 지었다. 민족의 자주성을 일깨우고자 편찬한 〈대동운부군옥〉과 실생활에서의 감흥과 애환, 목민관으로서의 고뇌 등을 시편에 녹여 낸 권문해의 사상과 문학은 조선 후기 실학의 태동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권문해는 소백산 줄기의 웅혼한 기상이 서린 용문사에서 책을 읽으며 세상을 보다 넓게 인식하는 안목을 길렀다. 불교는 물론 도가와 민간의 여러 신앙을 배척하지 않았고, 신분을 초월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유한 그의 행적은 한 시대의 지식인이 갖춰야할 덕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용문산하쇄선비(龍門山下鎖禪扉)
운수정신송학자(雲水精神松鶴姿)
급억석년천탑일(伋憶昔年穿榻日)
영거야야점등시(令渠夜夜點燈時)

용문산 아래 선방은 굳게 닫혔는데
운수의 정신은 송학의 자태로다.
문득 옛날 공부하던 날을 생각하니
그대에게 밤마다 등불을 밝히게 하였지.
–권문해 ‘차약산운제징상인시축’ 〈초간집〉

그가 용문사에서 공부하던 시절을 회고하며 신징 스님에게 써 준 시다. 〈초간집〉에 실린 권문해의 연보 24세 조(條)에는 ‘밤부터 새벽까지 등잔기름이 여러 번 끊어짐에 승려 신징이 도와주었다’ 고 적혀 있다.

27세에 별시에 급제하기 전 용문사에서 과거준비를 했는데 등잔의 기름을 채워 넣으며 밤 새워 공부했고, 그의 곁에서 등잔 기름을 채워주며 공부를 도왔던 이가 신징이라는 스님이었던 것이다. 앞에 보인 〈초간일기〉에 수록된 시도 신징 스님의 요청에 의해 써준 것이고 보면, 권문해는 일생동안 신징 스님과 깊이 교유했음을 알 수 있다.

시를 보면, 권문해는 신징 스님을 송학과 같은 고고한 운수로 표현하고 있다. 과거 시험을 준비 하느라 밤샘 공부를 하는 자신을 위해 등잔 기름을 갈아 주던 스님에 대한 각별한 정을 그렇게 비유하는 것이다. 운수는 참선 수행을 하는 선승의 이칭(異稱)이니 신징 스님은 선승이었던가 보다.

무엇보다 결구에서 ‘그대에게 밤마다 등불을 밝히게 하였지’ 라며 직설적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절제미가 아름답다. 별다른 수식 없이 그저 과거의 어떤 사실을 들춰내는 것만으로 그 시절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순수하게 피어오르는 것이다.

권문해에게 용문사는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었을 것이다. 그가 만년에 쓴 〈초간일기〉에도 자주 용문사를 찾은 기록이 보인다.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9 ~ 2/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알고 보면 괜찮은	마가	불광출판사
3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4	비울수록 가득하네	정목	쌤앤파커스
5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청전	한겨레출판사
6	어느 불교무신론자의 고백	스티븐 배철러	궁리
7	능가경 강의	남회근	부키
8	공 – 공을 깨닫는 27가지 길	용타	민족사
9	화내지 않는 43가지 습관	마스노 순묘	담앤북스
10	선설장론	쫑카파	운주사



일체 고뇌 벗어나는 길 27가지



공(空)–공을 깨닫는 27가지 길
용타 스님 지음
민족사 펴냄
1만원



'고통' 벗어나려면 '공' 깨달아야
'공' 깨닫는 접근법(空理) 27가지
'연기법' 고통받는 '구원해탈론'

"왜 공(空)을 깨닫고 체험해야 할까?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눈앞에 전개되는 세상에 대하여 곧장 '있다!'는 관점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있다고 여기는 대상을 분별 시비 집착하면서 갖가지 고뇌를 만들어 냅니다."

책의 목적은 '공(空)'을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다. 불교의 근본 가르침과 선불교, 현대 심리학, 상담학 등을 받아들여 '동사섭'을 창시한 용타 스님〈사진〉의 〈공–공을 깨닫는 27가지 길〉이다. 책은 저자인 용타 스님이 연기(緣起), 무아(無我)와 아울러 불교의 핵심 사상인 공을 깨닫는 길 27가지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해놓은 것이다.

인류의 삶은 크고 작은 고뇌로 점철되어 있다. 죽음에 대한 고뇌, 병에 대한 고뇌, 늙음에 대한 고뇌, 원하고 원치 않는 것에 대한 고뇌, 만족할 수 없는 욕구에 대한 고뇌 등 인간의 삶이 그러함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필자는 "인류 역사는 한쪽으로 이러한 고뇌의 늪에 빠져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러한 고뇌를 해결하고자 애씁니다. 음지와 양지의 시소게임이지요. 그나마 착한 마음으로 양지 놀음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양지 놀음까지도 결국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고 말한다. 전 인류의 삶에 만연해 있는 일체 고뇌를 원천봉쇄하고 발본색원해 버릴 수 있는 길을 없을까? 필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위시한 조사와 선각들이 제시하는 '공(空)'에 있다고 말한다.

책의 주제는 공리(空理–공의 이치)이다. 불교를 공문(空門)이라고도 하는 것은 공(空)이 불교의 가르침의 전부라고 할 만큼 공을 중시한다는 뜻이다. 필자는 대학 2학년이던 1963년 반야심경의 색즉시공을 이해하면서 일생일대의 환희를 체험했다고 한다. 그 이래로 공은 그의 삶의 나침반이 되었다. 자연히 공의 이치에 대해서, 공의 이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삶을 살아온 셈이다. 그 결과, 출가수행 중인 1978년즈음 공을 깨닫는 접근법 20개를 정립했고, 그 후로도 접근법을 하나씩 더 보태어 모두 27개가 되었다. 그 27개의 접근법이 책이 소개할 공의 이치(空理)이다. 그리고 그 27개의 공리는 현재 필자가 운영하는 동사섭 수련회 고급 과정에서 교재로 쓰이고 있다.

용타 스님이 창시한 동사섭은 정체(正體), 대원(大願), 수심(修心), 화합(和合), 작선(作善)이라는 삶의 5대 원리를 바탕으로 한 마음수련프로그램이다. 천하의 주인인 내가(正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大願) 먼저 마음을 닦아 스스로가 행복해지고(修心), 주변과 평화롭게 지내며(和合), 세상을 위해 역할을 잘한다(作善)는 것이다. 동사섭은 일반과정, 중급과정, 강사과정, 지도자과정, 청소년행복캠프 등을 통해 그동안 2만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특히 고급과정에서 '돈망(頓忘)'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 지고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한다. 책은 동사섭 고급과정의 교재로서 내용을 음미하여 스스로 체득하여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독자들에게 공을 깨닫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용타 스님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고통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 고통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해탈해야 하고, 해탈을 위해서는 '없는' 것을 '없다' 고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 이 책자는 그 없음의 이치, 곧 공리를 깨닫게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을 통해 완벽하게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음을 역설한다.

"모든 개체는 연기적 존재이므로 비실체요, 무실아요, 무아요, 비아요, 공이다. 즉 존재계는 모두가 한 덩어리 유기체로 그 어떤 개체도 연기의 고리를 끊어내고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어떤 존재를 실체로 여길 때는 그것이 분별, 시비, 집착의 대상이 되지만, 만일 비실체, 곧 공임을 안다면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와 세상이 있다고 여기면 집착으로 인한 괴로움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나와 세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집착할 만한 대상이 본래 없으므로 그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렇듯 이 책의 27가지 공리를 읽음으로써 공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 환희의 대자유와 지극한 행복감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필자는 말한다.

책의 앞뒤로 편집되어 있는 두 편의 해제인 '꼭 먼저 읽을 거리'와 '공의 역사적 의미'는 독자로 하여금 공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달으시고 가르침으로써 비로소 인간의 의식 속에 공이라는 깨달음이 들어서게 되었으니 연기법이야말로 인류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원해탈론임을 명쾌하게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본문 중간중간 편집되어 있는 통칙 스님의 판화는 시각적인 깨달음을 선사한다. 본 책 외에 부록으로 작은 휴대용 소책자도 함께 발행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용타 스님은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 광주고등학교, 전남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동대학원 동양철학과에서 '불교의 선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24세에 청화 대선사를 은사로 득도했으며, 승려 신분으로 10여 년의 교직 생활 후 제방선원에서 20 안거를 성만했다. 현대 성륜불교문화재단 이사장, 귀신사(歸信寺) 회주, (재)행복마을 회주로 있다. 저서로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10분 해탈〉이 있다.

어느 경전에서도 볼 수 없는 철두철미한 문답

능가경(楞伽經) 강의

남회근 지음 | 신원봉 옮김 | 부키 펴냄 | 2만5천원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달마가 심인(心印)을 이조(二祖)에게 전하고서 다시 말하기를, "나에게 〈능가경〉 네 권이 있어 이것도 너에게 주노라. 이는 여래의 심지 요문이다. 이제 여러 사람에게 가르쳐 깨달음에 들도록 하라."고 했다.

선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에 앞서 초기 선종의 소의경전이었던 4권본 〈능가경〉이 번역되어 나왔다.

〈능가경〉은 네 권짜리 말고도 열 권짜리 〈입능가경〉과 일곱 권짜리 〈대승입능가경〉이 있다. 달마대사 생존 시 〈능가경〉은 네 권짜리 말고도 열 권짜리가 있었다. 하지만 네 권짜리를 전한 것은 열 권짜리가 비록 양적으로는 풍부하지만 잘못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네 권짜리 역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심인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빼어난 경전이었다. 단지 문장이 고풍스럽고 간결해 정확한 해독이 어려웠다. 달마대사가 이조에게 소의경전으로 〈능가경〉을 전했지만 후대에 이르러 〈금강경〉에 소의경전의 자리를 내주고 만 것도 이 때문이라고 역자는 말한다. 우리나라 불자들이 〈능가경〉을 생소하게 여기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 경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웠더라면 지금까지도 선종의 핵심 경전으로 널리 읽혔을 것이라고 또한 역자는 말한다.

〈능가경〉의 오묘한 뜻은 본래 성(性)과 상(相)을 융회 관통하여 공(空)과 유(有)가 다르지 않음을 제시한 것이다. 부처님이 〈능가경〉을 설한 곳은 인도 남해 바다 사자국(스리랑카)의 '능가산' 정상이다. 이런 지리적 이해를 넘어서면 '능가(楞伽)'란 보석 이름으로, 달리 도달할 수 없고 들어가기도 어렵다는 뜻이 있다. 실제로도 능가산은 험준해서 사람이 오르기 어려웠기에 그 어려움을 불법에 비유해 '능가경'이라 불렀던 것이다. 이곳에서 비구와 대승 보살도를 닦는 제자 등이 모인 가운데 대중의 상좌 대혜선사의 백여 가지가 넘는 인생, 물리, 우주 등 다양한 질문이 한꺼번에 이어지고, 이어 부처님이 질문을 간략히 요약 반복한 다음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경이 시작된다. 이후 경문은 끝까지 대혜선사와 부처님의 문답으로 이어진다. 때로 게송으로 문답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경과 다르게 부처님에 대한 찬사나 다른 대보살이 등장하지 않고 오로지 두 사람의 문답만으로 마음에 대한 문제를 끝까지 탐구해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능가경〉의 흥미로운 부분이다. 어느 경전도 〈능가경〉처럼 철두철미한 문답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처럼 독특한 구성을 하고 있는 〈능가경〉은 과장이 없이 소박한 경전으로, 다른 경전들처럼 부처님에 대한 찬미의 게송이 반복되거나 부처님이 신통력을 발휘하거나 다른 불보살들의 경외감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다. 또한 〈능가경〉은 수행자를 위한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일관되게 반복하는 것은 '실천'에 대한 강조이다. 자기 마음을 닦아 부처님이 자각내증한 깨달음에 이르라는 것이다. 〈능가경〉은 이론이 분분했던 후기 대승 경전이만큼 여러 외도들의 논점과 그에 대한 비판이 유독 많은데, 경은 대혜선사의 집요하리만치 파고드는 질문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과 외도의 말이 어떻게 다른지 조목조목 짚어준다.

이번 남회근 대사의 〈능가경 강의〉는 4권본을 대본으로 하되 7권본과 10권본을 모두 참조하고 그 장점을 취해 원본의 내용이 잘 통하도록 했다. 간결하고 아름다운 문장이 특징이며 원문의 어투와 경전의 성격을 감안하여 설명이 간결하고 핵심만 짚어준다. 번역문과 그에 대한 사견을 분리해 좋았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구어체를 사용해 해설자를 직접 대면하고 체험을 듣는 듯하다. 원주와 역주 그리고 불교사전에서 정리한 용어풀이를 통해 불교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라도 다른 참고서적 없이도 읽는데 별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박재완 기자

티베트불교의 정수 맛볼 기회

불경의 요의와 불요의를 분별한 선설장론

쫑카빠 지음 | 범천 역주 | 운주사 펴냄 | 1만5천원

〈보리도차제론〉, 〈밀도차제론〉, 〈입중론선현밀의소〉, 〈중론정리해소〉 등과 함께 티베트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학자이자 수행승으로 제2의 부처로 추앙받는 쫑카바 스님의 저서 중의 하나로 평가되며, 더욱이 불경의 요의와 불요의를 구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즉 교상판석의 논서로서 티베트불교에서 유일무이하다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논서다.

이 논서는 티베트불교의 대표적 종파인 겔룩파에서 불교학습과정 중 필수과목이며, 달라이라마가 항상 지니고 탐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논서의 내용은 크게 유식파의 입장(〈해밀심경〉에 의거한 입장)에서 교판한 부분과 중관파의 입장(〈무진혜경〉에 의거한 입장)에서 교판한 두 부분으로 나뉘며, 중관파의 입장에는 또 자립파와 귀류파의 입장이 있다. 이 중에서 티베트불교가 받아들이는 입장은 바로 중관귀류파의 입장인데, 티베트불교에서는 귀류파가 부처님 가르침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논서는 내용 자체가 난해하고 여러 교파들의 각각 다른 주장과 미세한 차이들을 다루고 있는데다 한국의 불자들에게는 생소한 개념들로 논리가 전개되기 때문에 읽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복잡하면서도 치밀하게 전개되는 논리의 향연은 조금만 주위를 흩트리면 그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만든다. 그러면서도 이 논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태도는,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은 어느 누구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부처님의 말씀일지라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다. 티베트불교에서는 교육과정 속에서 이 논서를 읽고 또 읽으면서, 토론하고 논쟁하기를 수없이 거듭한다고 한다. 티베트불교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기회다.

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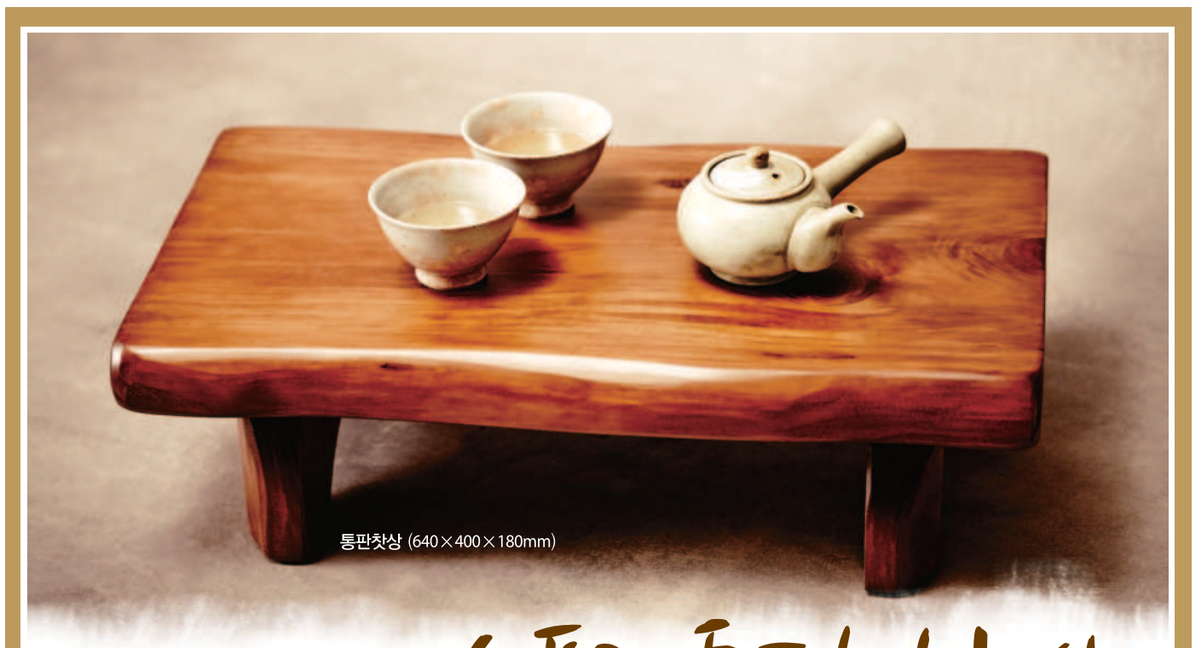
현실 속에서 깨달음의 삶을 펼친 근현대 선사 6인의 생생한 법거량 해설
한국 禪의 중흥조인 경허대사와 수월 · 만공 · 혜월 · 한암 · 용성선사의 사자후!
경허대사와 5대 제자 이뭣고 선지식 총서 ❶
콧구멍 없는 소 김성우 엮음 | 46판 | 218쪽 | 11,000원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보이는 물질이 곧 해인海印이요 들리는 소리가 곧 장경藏經이로다!
"눈뜨고 세상을 보니 우주와 내가 바로 禪" 우리 시대의 大人 성수 큰스님이 남긴 선문답과 법문
성수 대종사 선어록 이뭣고 선지식 총서 ❷
세상선世上禪 산수도山水道 김성우 엮음 | 46판 | | 319쪽 | 12,000원

"전인 미답지가 궁금하느냐? 잔물결 이는 개울로 가서 세수나 하거라!"
화두, 간경, 염불, 보현행원 등 통불교적 수행으로 최상승선 깨닫게 한 정일선사의 사자후!
정일선사 선어록 이뭣고 선지식 총서 ❸
전인 미답지를 일러주마 정일선사법어집편찬위 엮음 엮음 | 46판 | 219쪽 | 11,000원

나고 죽는 이전의 이것은 무엇인가? 존재의 본질을 묻는 근본 질문, "어디서 왔소?"
일상의 선문답으로 自性을 깨닫게 하는 송광사 천자암 조실 활안 큰스님의 사자후!
활안큰스님의 禪법어집 이뭣고 선지식 총서 ❹
어디서 왔소? 김성우 엮음 | 46판 | 309쪽 | 12,000원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아름다운 자연의 향기와 전통가구의 정겨움을 담은 수풀림 통판찻상
100% 국내제작
소나무 원목을 사용하여 전통가구 장인이 전통가구 제작기법으로 제작한 튼튼하고 자연스러운 나뭇결의 아름다운 문양이 살아 숨 쉬는 고급스러운 찻상입니다.
■ 늘 곁에 두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아담한 크기
■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소나무 나뭇결 문양
■ 낙동법을 사용한 전통가구 제작기법으로 제작하여 튼튼한 내구성 보장
정가 150,000원 할인가 90,000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기술이전업체 수풀림숯침대(주) www.supullimbed.co.kr
친절상담 · 주문전화 ▶ 080-999-1080

작은 습관만 바꿔도 우울증 극복 OK



화내지 않는 43가지 습관
마스노 지음
김정환 옮김
담앤북스 펴냄
1만3천원

"화 내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손해일까?" "욕먹는 사람이 일찍 죽을까 욕하는 사람이 일찍 죽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그때그때 달라요' 다. 하지만 화풀이를 당하거나 욕먹은 사람이 되받아치기 전이라면 보통은 화낸 사람, 욕을 한 사람의 신체 변화가 더 급격하다고 알려져 있다. 통상 화 내는 사람은 프로 권투 선수의 강펀치를 한 대 얻어맞은 정도의 신체적 변화를 겪는다고 한다. 화풀이를 당하거나 욕을 먹은 사람이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일으켰다는 보고는 거의 없으나 화를 낸 사람이 이런 이유로 죽었다는 기사는 부지기수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화는 그냥 참아야 하는 것일까? 중국 속담에 "한순간의 화를 참으면 백일 동안의 슬픔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비록 '슬픔' 을 피할 수는 있으나 '스트레스' 를 피할 수는 없다. 그런데 바로 이 스트레스가 '화' 를 불러오는 주원인이다. 화를 참으면 화가 된다는 역설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 우선 첫 처방은 일단 화가 났다면 '그냥 흘려버리는 것' 이다. 화가 난 걸 알아차리고 그 화가 '머리' 로 올라가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것이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화내지 않는 '습관' 을 기르는 것이다. 일본서 선을 수행하는 승려이자 연이은 베스트셀러를 만든 작가, 그리고 정원 설계자이기도 한 저자는 이 책에서 화를 내지 않는 습관을 기르기 위한 '몸가짐' '마음가짐' '생활 습관' 을 제시한다. 모두 43가지인 이 방법들은 우리의 분노와 욕심 그리고 망설임을 효과적으로 줄여 줄 것이다.

선승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저자는 이 책에서 우선 화내지 않는 습관으로 16가지 '마음가짐' , 9가지 '몸가짐' , 18가지 '생활 습관' 을 제시한다.

저자는 우선 화내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분노가 치밀면 그냥 내버려 두고 눈앞의 일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가끔은 내가 '좋은 사람이고 싶다' 는 생각에 집착하지는 않은지 혹은 '완벽을 추구하고' 있진 않은지 점검하라고도 조언한다. 불가항력적인 일에는 흐름에 모든 일을 맡기는 것이 화내지 않는 습관을 위한 '마음가짐' 이라는 것이다. 책에서 저자는 이런 경험도 소개한다.

지난해 늦여름에 출장 갔다가 고속 열차를 타고 돌아오던 중 태풍을 만나 저자는 발이 묶여 버렸다. 차 안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게 됐는데, 예정대로라면 이미 한참 전에 도착했어야 할 시간이지만 열차는 움직일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야" 마침내 승객 한 명이 차장을 향해 큰소리로 불만을 터뜨렸다. 역장은 이해를 구했다. "빨리 목적지에 가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상대는 태풍입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빨리 지나가줄 리도 없고, 열차가 움직일 리도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는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애써 발버둥치는 건 더 큰 화를 불러오는 첩경이라는 것이다.

이어지는 화내지 않는 '몸가짐' 은 우리가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 봤을 만한 것들이다. '배로 천천히 호흡' 할 것을 권한다거나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인다' 는 조언들이다. 저자가 화내지 않는 몸가짐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마음과 몸의 균형이다. 이 둘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쏠리게 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물론 현대인들이 이런 균형을 잡기는 쉽진 않다. 하지만 너무 단순하지만 간과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저자는 직접 들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들려준다.

화내지 않는 습관 16가지 제시
화나면 눈 앞 일에만 집중해라
선가 경구나 일화 섞어 습관 소개

"요즘 들어서 잠이 잘 안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이 완전히 풀리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말을 종종 듣는데 그에게 "잠들기 전에 무엇을 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또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고 했다. "컴퓨터를 했습니다" "텔레비전(또는 태블릿 단말기)을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로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혹은 "동료와 한잔하고 밤늦게 들어와 샤워만 하고 바로 잤습니다" 등등.

일상의 어수선한 상태를 정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잠자리에 들면 머릿속이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잠이 오지 않는다는게 저자의 설명이다. 그리고 저자는 덧붙인다. 스스로 번다한 생활이나 상황에 묻혀 들도록 자신을 끌고 갔으면서 그 후과를 걱정하는 건 결코 문제 해결 자세가 아니라고.

화내지 않는 습관의 마지막은 생활 습관으로 채워져 있다. 대부분 우리가 보내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고' '기상과 동시에 텔레비전을 트는 습관을 버리고' '몸을 단정히 하고' '바쁘다거나 피곤하다는 말을 연발하지 않는 것' 등등이다. 이 장서 저자는 우리가 가장 무의식적으로 하는 습관과 이의 멈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매일 아침에 뉴스나 정보 방송을 보는 이유는 그저 단순한 '습관' 일 때가 많은데 이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인다면 마음이 쉴 틈이 없다는 것이다.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우왕좌왕하거나 필요도 없는 정보에 현혹되기만 한다면 대체 언제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할지 알 수 없게 된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저자가 제시하는 '습관' 들을 풀어 나가면서 선가(禪家)의 경구나 일화들을 섞어 읽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는 것이다. 승려로서 오랜 수행을 한 경험이 책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고된 수행을 하라거나 깊은 명상에 들라고 제시하지 않는다. 일상의 작은 습관들만 바꿔도 우리는 분노나 충동 그리고 우울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불교 TV 명강사 일우 스님 법화경 해설

지금 나의 삶이 영원을 노래할 수 있다면
일우 스님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5천원



BTN 불교TV 〈법화정법〉에서 참다운 불교신앙과 법화신앙의 길, 더불어 생활불교, 실천불교의 길을 제시해 시청자들에게 깊은 호응과 여운을 남겼던 일우 스님이 책을 펴냈다. 역시 법화경 강의다.

〈법화경〉은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고, 누구나 부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경전이다. 독송하는 것을 듣기만 해도 깊은 감응이 있다고 해서 대승불교권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법화경〉은 부처님이 2,500년 전 영산회상서 설법하신 말씀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21세기인 현재에도 그 가르침이 생생하게 느껴질 정도로 현실적이다. 일우 스님은 어떻게 하면 불자들이 이 〈법화경〉을 쉽게 접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불교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이 책은 그 결과물이다. 이 책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밝히고, 법화행자로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쉽고 평이한 언어로 풀어가면서도 핵심을 놓치지 않는 스님만의 화법으로 불자들을 일깨워 참된 불교 신행의 길로 안내한다. 스님은 무엇보다도 부처님을 믿고 의지해서 내 그릇을 키우고 더 크고 넓게 보라고 강조한다. 부처님을 믿고 살다 보면, 불교와의 인연을 바탕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면, 우리의 삶도 자리이타한 삶이 된다고 한다. 동체대비의 삶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고, 그것이 바로 생활 속 불교라고 역설한다. 생활 속 불교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내 삶에 갖고와서 그 속에서 늘 감사함과 행복을 느끼고 사는 것이며 구경에는 내가 사는 곳을 불국정토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스님은 말한다.

〈법화경〉에는 부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기만 해도 일생성불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 우리의 잘못된 버릇과 습관을 버리고 부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일생에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즘 많은 이들이 힐링을 말하는데, 스님은 부처님께 귀의해서 진실로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 바로 힐링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며 지극한 믿음이 우리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원천이고, 그 믿음에 의해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법화경〉은 믿음이 없으면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는 경전이다. 그만큼 법화경을 따르기는 어렵지만, 스님은 진실된 믿음만 있으면 만사만생 하던 삶을 벗어던지고 진짜 만사일생 하는 삶으로 영원을 노래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어두운 곳에서 스스로 불을 밝히면 그게 바로 부처의 자리라는 것이다. 스님은, 스스로 이와 같은 믿음 속에 들어와서 일심으로 부처님에게 향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믿고 의지하고 행하고 이해하는 공부를 하면, 그 속에서 불법의 진리가 생활 속에 들어와서 상락아정의 생활이 되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꽃처럼 피어날 때 우리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많은 사람에게 회향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고 거듭 강조한다.

김주일 기자

▲저자 일우 스님은?
현재 대구 성관음사 주지인 저자는 어려서 33관음을 현몽으로 친견하고 영남의 대강백 능허 의룡 스님을 은사로 16세 때 삼각산 각황사에서 출가 득도했다. 〈법화경〉을 들고 6년여 동안 설악산, 태백산, 지리산 등 전국의 명산을 돌며 만행과 안거를 거듭하며 불법의 진수를 탁마했다. 죽산 미륵당에서 은사 의룡 스님의 인가를 받았으며, 이때 '효동(曉東)' 이라는 법호와 전법게, 의발을 이어 받았다. 저서로는 〈일우 스님의 가피 이야기〉 〈33관음응신예찬품〉 등 다수가 있다.

"매일 밥 먹는 것처럼, 참선도 일상 중 하나라는 자세 필요"

천개의 연꽃잎으로 피어나리라
배광식 지음 | 뜨란 펴냄 | 1만3천원





몸은 출가했지만 탐심으로 가득한 속인처럼 사는 사람을 출가재가자라 부르고, 몸은 세속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진리를 구하며 출가자처럼 청정하게 사는 사람을 재가출가자라 부른다. 의사로, 교수로, 포교사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한 재가출가자가 있다. 사람들은 그를 대승의 보살도를 성취해 출가자와 동일한 종교 이상을 실현하며 살았던 붓다의 걸출한 재가제자 유마힐에 빗대어 '한국의 유마거사' 라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가 바로 이 책의 저자인 배광식 교수〈사진〉다.

고등학교 시절 불교에 입문한 저자는 대학생 신분으로 운허 · 탄허 · 법정 스님 등 당대 선지식들의 법문을 접했고, 서울치대 부속병원 수련의 때와 군 전역 후에는 광덕 스님을 친견했다. 이렇게 불교를 자신의 이상이자 철학으로 받아들이던 저자는 1985년 곡성 태안사서 청화 스님을 만난다. 이 만남은 저자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안겨 주었다.

청화 스님은 일평생 청정하고 철저한 수행자로서 불교계서 존경받는 어른이었고, 참선과 염불을 병행하는 염불선 수행자였다.

엄격하면서도 자상한 스승인 청화 스님을 만난 이후 저자는 서울서 태안사까지 천리 길을 마다않고 매달 한 번씩 열리는 법회에 동참했다. 특히 저자의 온 가족이 매 주말을 스님 곁에서 보낸 일도 다반사였다. '경주(時)' 라는 저자의 법명도 이즈음에 스님이 지어주었다. 청화 스님은 생전에 이미 저자의 수행력을 알아보고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용맹정진 기간에 대중 앞 법문도 맡기었다.

"인류의 안심과 평화를 위해, 일련의 과학과 참선의 접합이 많은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어내어 내관內觀(자기관찰)의 과학을 현대에 널리 전파하고, 인류 모두가 참선수행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우리가 매일 밥 먹는 것처럼 참선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밥 먹고 일하는 일상을 떠난 참선은 있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래서 생활이 참선이 되고 참선이 생활이 되는 생활선으로서의 염불선을 수행하고 그것을 널리 알리고자 애쓴다. 수행하고 전법하는 그의 곁에는 수승한 여러 도반들이 함께하고 있다. 바로 사이버도량 금강카페(http://cafe.daum.net/vajra)회원들이다. 금강카페는 지난 2002년 인터넷 다음 카페에 첫 문을 연 이래 온라인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한편 매달 두 차례의 오프라인 모임도 한다. 한 번은 경전 및 청화 큰스님 법어집을 강독하고, 또 한 번은 전국 사찰을 순례하며 참선과 염불 정진회를 연다. 현재 강독회와 정진회는 각각 100여 회를 목전에 두었고, 금강카페 회원수는 7천 여 명에 이르고 있다.

재가불자들의 자율적 수행모임이 이처럼 오랫동안 아름답게 이어져온 것은, 부처님과 스승의 숨결이 살아 있는 도량을

30년동안 기고한 글 중 48개 추려
사이버도량 금강카페도 운영
1985년 청화 스님 만남 전환점

언제나 구석구석 세밀히 살피며 정진을 멈추지 않는 저자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 책은 저자가 1980년대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 30년이 넘게 여러 매체에 발표했던 글 가운데 48개를 추려서 묶은 것이다. 허투루 사는 법이 없이 매순간 깊이 고민하고, 삶에 대해 진지한 자세를 견지해온 그의 사유의 힘을 짐작할 수 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고, 철학과 과학을 선도하며, 인간의 존엄을 한껏 드러내고 활짝 꽃피게 하는 참으로 쉬운 가르침이다."

의학을 전공한 학자답게 과학과 의학지식을 토대로 불교 교리를 명쾌하게 전달한 부분은 이 책을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인체의 신비를 통해 보살정신과 회향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뇌과학의 비밀을 통해 참선의 유용함을 설파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인간복제 기술마저 불교의 윤회사상과 연결하여 쉽게 설명해준다.

생활인으로서 누리는 부처님의 밝은 가르침을 현대 언어로 풀어 쓰려고 노력한 저자의 수고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8-3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 전화 010-7415-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붓다의 물리학
사대 근본물질 ㊦ (火·風)

"단단함·뜨거움 잘 알아야 현혹되지 않는다"





"
열은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물질에 동반
식물·바위 등 바깥 물질은 열에 의해 생성
외적인 열 성품은 변하기 쉬운 무상한 것

바람성품은 몸 지탱하고 자세 취하게 해
몸에 부딪히지만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돼

우리는 지수화풍 '사대작용'에 의한
몸짓과 말에 현혹되는 것일 뿐
"

열 성품(떼조다뚜)에 관해서 '청정도론'(11, 93)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화대는 뜨거움의 특징을 가지고, 소화하는 역할을 하고, 부드러움을 공급함으로 나타난다."

열 성품은 몸의 감촉에 의해서 지각되며 따뜻함과 차가움으로 드러난다. 차가움은 열이 모자란 것이다. 열은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물질, 몸 안과 밖의 물질에 동반된다. 열 성품은 유지하게 하고 성숙시킨다. 열 성품은 몸의 물질을 만드는 네 가지 요인 중의 하나다. 생의 최초 순간에 과거의 누적된 행위인 업은 재생의식과 물질을 만든다. 재생의식이 생겨난 후 열은 몸의 물질을 만들기 시작한다. 식물이나 바위 같은 몸 바깥 물질은 오직 열에 의해서만 생성된다.

위에서 인용한 경(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긴 경)에서 사리뿟따는 안의 불의 성품에 관해서 승려들에게 이렇게 설명한다.

"…몸 안에 있고 고유한 특성을 가진 것에 속하거나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것에 속하건 간에 열과 온기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를 들면, 사람이 그것에 의해 활력을 얻고, 노쇠하고, 화를 내어 타 버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씹고, 마시고, 먹고, 맛봐서 알맞게 변화시키는 것(소화), 또는 그 외의 어떤 열과 온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안의 (열 성품)…"

이 경을 주석한 '청정도론'(11, 36)에서는 늙어가는 과정을 열 성품으로 설명한다.

"…열 성품 때문에 몸이 늙고 기능이 쇠퇴하며 기력이 없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긴다."

"타 버린다"는 표현은 사람이 흥분하면 내적인 열 성품이 몸을 태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열 성품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기능도 하는데, 그것은 먹거나 마신 것을 "조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음식을 소화하고 흥분하며 화를 내고 두려울 때 몸의 온도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안의 열 성품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열 성품이 일어날 때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것은 '내 몸의 열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물성(루빠)인 열 성품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흥분, 화남, 두려움에 빠지면, 실제로는 단지 여러 가지 마음과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열 성품은 내적 혹은 외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리뿟따는 외적인 열 성품이 변하기 쉽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마을, 도시, 도성 그리고 지방을 불태운 후 연료가 없으면 꺼져 버리는 것처럼 그 무상성을 볼 수 있다. 내적, 외적 열 성품은 무상하고 자아가 없다.

바람 성품(와요다투)인 움직임에 관해서 '청정도론'(11,93)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풍대는 팽창의 특징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전달함으로 드러난다."

우리는 사물의 움직임을 볼 수 있으나 실재의 움직임인 바람 성품인 물성은 볼 수가 없다. 관습적 언어로 표현하는 움직임의 의미는 바람 성품 즉 움직임과 같은 것이 아니다. 지각된 것을 보고 생각하는 다른 순간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움직였다고 판단하지만, 이것은 움직임인 풍대 물성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물질의 성품은 몸 감각을 통하여 직접 경험할 수 있다. 탄성이 있는 몸이나 물건을 접촉하면 움직임이나 압력이라는 특성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람 성품의 특성이다. 또 이것은 진동이나 동요로 나타난다. 정의에서 보았듯이, 바람 요소의 기능은 움직임을 일으키며 이동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걷거나 손을 굽히고 펼 때다. 그러나 몸으로 직접 바람 성품인 물성을 경험하는 것과 관념으로 상상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바람 성품인 움직임은 몸과 몸 밖에 있는 모든 종류의 물질에서 일어난다. 항아리와 같이 생명이 없는 물질에도 바람 성품인 움직임이 있다. 바람 성품은 항아리가 그 형태를 유지하여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한다. 사리뿟따는 몸 안의 바람 성품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존경하는 도반들이여, 몸 안에 있는 바람 성품이란 어떤 것인가? 몸 안에 있고 고유한 특성을 가진 것에 속하거나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것에 속하건 간에 움직임과 바람은 무엇이든지, 예를 들면 위로 향하는 바람, 밑으로 향하는 바람, 내장 바깥쪽 배 안의 바람과 내장 안의 바람, 팔다리 모두에 퍼지는 바람, 들숨과 날숨, 또는 그 외의 다른 움직임, 바람은 안의 (바람 성품)…."

우리는 몸 안에 있는 압력을 알아차릴 수도 있다. 풍대의 특징이 나타날 때 단지 조건 지어진 물성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경전에 있는 "사지에 순환하는 바람"이란 구절을 '청정도론'(11,37)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맥(신경)망을 통해 사지와 온 몸에 순환하며 분포되어 구부리고 펴는 등의 상태를 일으키는 바람이다."

바람 성품은 넘어지지 않도록 몸을 지탱시키는 특정의 역할을 하며, 여러 가지 자세들을 취하게 한다. 자세를 취할 때, 사지를 펴거나 구부리는 것은 바람 성품 때문이다. 팔이나 다리를 구부리거나 펼 때, 풍대는 움직임 또는 압력으로 나타난다. '청정도론'(11,92)에는 다음과 같이 주석했다.

"이 몸에서 사지를 순환하고 움직이고 팽창하는 특징을 가진 바람 성품은 땅 성품에 의지하여 머물고, 물 성품에 의해 결합되고 열 성품에 의해 유지되어 이 몸을 팽창시킨다. 그 바람의 성품에 의해 팽창되어 이 몸은 무너지지 않고 똑바로 선다. 이동시키는 또 다른 바람 성품에 의해 떠밀려 손과 발을 구부리고 펴고 흔들면서 행·주·좌·와의 네 가지 자세를 만들고 몸의 암시를 보인다. 이와 같이 여성과 남성 등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이면서 사대의 작용이 마술의 속임수 같이 계속된다."

우리는 남자, 여자라는 외모에 속아 넘어가서 단지 이 몸이 '사대의 작용'이고, 손발을 구부리고 흔들고 몸짓과 말로 암시를 드러내는 것이 조건 지어져 일어난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청정도론'(11, 37)에는 바람성품과 관련한 들숨과 날숨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들숨 안으로 들어가는 콧속의 바람, 날숨- 밖으로 나가는 콧속의 바람이다."라고 되어 있다. 우리는 평생 호흡을 하고 있지만 대개는 그 실재를 잊어버리고 '내 호흡'이라는 개념에 집착한다. 호흡은 마음에 의해서 생긴 물질이며 숨이 코끝이나 윗입술에 닿는 곳에서 그 자신이 드러난다. 만일 그것을 알아차림 할 수 있다면, 단단함, 부드러움, 뜨거움 또는 움직임의 특성들이 한 번에 하나씩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러나 호흡은 매우 미묘해서 그 특성을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어렵다.

청정도론에서 사리뿟따는 바깥의 바람은 마을과 집을 흔들어 멀리 날려 버린다고 설명하고 있다. 변하기 쉽고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팎의 바람 성품은 다 무상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대성품은 항상 함께 일어나고 그들 각각은 다른 셋을 가까운 원인으로 가진다. 또한 '청정도론'(11, 109)에서는 사대가 서로서로 조건 짓는다고 했다. 땅 성품은 물 성품, 열 성품, 바람 성품의 바탕으로 작용한다. 물 성품은 다른 성품들을 응집하는 작용을 한다. 열 성품은 다른 성품들을 유지한다. 바람 성품은 다른 사대성품을 팽창시키는 역할을 한다.

물 성품인 응집력은 몸의 촉감을 통해서는 지각할 수 없으며 마음의 문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땅 성품, 열 성품, 바람성품은 몸의 촉감을 통해서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땅 성품은 단단함이나 부드러움으로 나타나고, 열 성품은 따뜻함이나 차가움으로 나타나며, 바람 성품은 움직임이나 압력으로 나타난다.

단단함이나 뜨거움과 같은 물성들은 자주 몸에 부딪치지만 우리는 사물이 실제로 무엇인지 잊어버린다. 우리는 사물의 외양에 의해 우리자신을 스스로 속아 넘어 가게 한다. 청정도론(11, 100)에서는 사대는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있다.

"마치 야차녀라 불리는 큰 마귀가 아름다운 색깔의 형상과 몸짓으로 자기의 무시무시한 모습을 숨기고 중생을 속이듯이, 이들도 매력적인 여자의 몸과 남자의 몸의 피부색깔과 마음에 드는 사지의 형태와 마음에 드는 손가락과 발가락과 눈썹의 움직임으로, 견고성 등으로 분류되는 자기들의 역할과 특징을 숨긴 채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자기의 고유성품인 실재를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사기꾼으로서 야차녀의 큰 마귀(마하-부따)와 같기 때문에 큰 성품(마하-부따)입니다."



위오기(공주대 경영학과 교수)

영남범음범패 제3기 학인모집

◈ 실용의식 : 천수경, 상단, 각단예불 천도, 49재, 모든의식
◈ 작 법 무 : 천수바라, 화의재바라 오공양작법 등..
◈ 교육과정 : 6개월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교육대상 : 제한없음
◈ 개강일시 : 2014년 2월 24일 개강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오후 6시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3매
◈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578 대무량사 총무원 (불교회관)
◈ 문 의 처 : 010-5065-5690 011-887-4591

(사) 한국미륵불교 부설
불교대학 범패원

호법봉사단원 모집

삼보에 귀의하옵고
본 대일불교조계종 종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여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제방에 계시는 종단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 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 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며 언제나 법향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대일불교조계종
호 법 봉 사 단
선원장 구룡 합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 스님께 알려드립니다 *
스리랑카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사리구)를 중창불사에 뜻을 두신 스님들께 보시하고자 하오니 인연맺을 스님들을 기다립니다.
대일불교조계종 호법봉사단장 구룡 합장
[010-5367-1340]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

정체 평형 일침요법
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일침법은 단혈요법으로 한 가지 병에 침 하나로 치유되며, 혈명의 통속화로 요통혈(허리), 슬통혈(관절염), 두통혈(머리), 위통혈(위장), 익히기 쉽고 바로 쓸 수 있으며 전통혈의 90%를 감축시키면서도 다양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일병, 일혈, 일침에 의한 쾌속한 효과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임상결과 유효율이 99%이고 현효율이 96.25% 치유율이 86% 그 가운데 일침치유율이 15%임.
(38개의 혈로 248개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

■ 모집인원 : 약간명 수시모집
[공인] - 중국노동사회보장부 발행 평형 침구보건사 자격취득 가능 (중급, 고급)
- NGO. 밝은사회 국제봉사단 회원가입 가능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민간 단체임)

원인 모르는 질병 상담환영

약 사 여 래 도 량
보금정사 주지 혜문 합장
경북 고령군 운수면 화암 2리 1195번지
054)954-7744 / 010-3535-9797

제8기 송강범음범패전승회 수강생 모집

불교의식 관심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육과정 포함사항
□ 상용의식 및 재의식 전반 (시련에서 ~ 봉송)
□ 바라무, 착복무, 법고무
□ 사물 (목탁, 요령, 태징, 북) 다루는 법

● 특 강 : 홍고
● 교육기간 : 1년 과정
● 대 상 : 스님, 법사, 제가불자
● 개강일시 : 2014년 3월 7일 첫째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 오후 4시까지 제공
● 교육문의 : 회장 관희스님 010-8290-6623
● 교육관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보개면 신장리 산 44번지 영평사 (중앙불교대학 3층)
홈페이지 www.송강사.kr

송강범음범패전승회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름답고 바른 말 으뜸이 되고
법다운 말이 그 둘째이며
사랑스러운 말이 그 셋째요, 진실하여
속이지 않는 말이 넷째이니라.
(법구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대웅전 불사 원만 성취 발원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귀장술
초보자 환영
쉽게보는 원판제공
다음. 네이버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외울 필요 없음
010-8558-2345



최면 전생 · 미래 빙의 · 퇴마
- 심리치료, 습관교정, 성격개조 (개인지도 및 직접 상담)
- 최면요법 전과정 7회 완성
1회 무료강의 후 상담접수
- 역학(정통명리) 개인지도
(부산 현불사 최면센터)
010-9342-9794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획기적인 생약개발
관절염 비염 각종통증
옻 안타는 사람
(옻나무+장수버섯)
옻 타는 사람 (함초.우슬 환)
35~40일분 8만원
황보건강 amesil.kr
010-5556-152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688-662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051)633-8445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서울 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행자 인연 찾습니다
(남녀불문, 서울지역)
010-4586-4525

월세 구합니다 산속에 있는 암자나 토굴 구함
(경상남북도 소백산지역)
051)632-5539

1종 면허증 가진 처사1명, 공양주 보살 1명 구합니다
(사찰)
010-3840-4355

인로왕보살은 스님들입니다 춤으로 인도 하십시오
승무 · 관음춤 · 지전춤 · 살풀이 · 오행춤
반야용선춤 · 길배춤 외 기타 의식춤
스님 직강
010-8510-0108 보성 합장

공양주 보살님 운전 가능한 처사님 모십니다
(천년고찰 운흥사)
055)835-8656

부전스님 모십니다
제의식 가능하신 분
(경북 문경)
010-8819-8988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신토불이 천연 약초로 약을 짓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특수한 기도법
•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1-772-4606 제행 합장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 출구

인연있는 분께 미륵불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010-4630-8005

비구니 기도스님 신심이 돈독한 법당보살,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10-2844-6444
010-3579-6444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강력한 삶의 변화 원네스 치유명상
1 가족세우기 지도자 과정 (참관가능)
* 일시: 2014년 2월 22일(토) ~ 23일(일)
* 조상, 부모, 자녀, 부부의 치유
2 원네스 깨어남코스 (무료체험 매달 14일)
*삶의 비밀을 경험하고 풍요,건강,관계치유,
영적성장의 바른길로 안내합니다.
네이버카페 - 원네스 행복한 가족세우기
신청문의 :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10-3189-8745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북한산성 내)
010-8782-3216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화요일 저녁반, 목 · 금요일 오전반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노후를 절에서 사실 분
1인 1실. 신축건물 청정지역
5천만원 시주하시면 평생 생활비 없이 지낼 수 있음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다음카페 "연꽃마을 복지관" 검색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914번지
054) 383-8553 / 010-8585-4908
<혜봉스님 직통>

영가 찾는법 강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고산사
• 주 소 : 전남 장흥군 장평면
용강리 산 29-5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2일
(사)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장 법하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박 경 수	010-9819-83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512-5003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0-8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접수일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가 격 : 1회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안락과 수명을 얻으려거든 의혹이 있을때 의혹을 없애라.
안락과 수명을 얻으려거든 끝내 번뇌의 집착을 없애야 한다.
- 현겁경 -

사 찰 (급) 안 내

아름다운 토굴 안내
- 위치 : 구례군 지리산 온천부근
- 총부지 : 1150평, 도로 : 8m접
- 건물 : 42평, 남향
- 지하 200m 암반수 : 일일 취수량 500톤
- 금액 : 평당 20만원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바다전망 좋은 사찰
- 대지 2700평 • 건물 : 4동 (법당50평,요사채40평,산신각,주지실)
- 텃밭 : 300평
- 가액 : 6억 8천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통 051-863-6622 (대표: 김의순)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만덕동, 다산타워 505호)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양도하실때는이박사에게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인연을 찾아드립니다.(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암자,토굴,포교원,사찰부지,매매임대전문중개사

010-7347-1010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대표:이규철)
010-3426-9393 이박사공인중개사(대표: 이현종)
주소: 강원도 원주시 모래내길 50(성일아파트 상가 108호)
■ 전국사찰.암자.토굴.포교원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시 북구 소재
- 부지 : 500평(종교용지)
- 법당 : 40평(2층, 청기와, 단청)
- 요사채 : 40평(1층 종무소, 주지실)
- 기타 : 산신각, 석탑(15자, 1억원 소요), 석등
- 가액 : 7억원
- 특징 : 신도시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럽풍의 현대식 건물로 불사된 사찰로 포교와 기도도량으로 좋습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소재(댐인근)
- 부지 : 1,500평(대지, 임야)
- 법당 : 40평(목조, 3포7포, 단청)
- 요사채 : 80평(현대식, 단청)
- 산신각 : 10평(목조, 닷집, 단청)
- 기타 : 석불(15자) 연못, 석등
- 가액 : 4억 5천만원
- 특징 : 불사금 20억원이상 투입된 대가람으로 기암괴석과 산새가 어우러진 청정지역의 기도도량입니다.

동진사찰공인중개사 010-5848-0455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공항로 78(복현동 1층) 053)356-658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목조단청 법당
- 삼성각, 종각, 요사채, 공양간
- 전망최고
- 990㎡
- 가액: 15억

(주 금호부동산종합회사부동산중개법인)
051)861-2233 (이찬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절 터 안 내
- 위치: 경북 문경소재 임야
- 낮은 구릉 3만평
- 3천여평 절터흔적 산재
- 약초재배 최적지
- 진입로 구비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345-9666

사찰(급)안내

- 기와법당39㎡ 산신각
- 요사채57㎡, 토지122㎡
- 뒷편은산, 조용한사찰
- 교통편리 지하철부근임
- 가액 : 5억5천만원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포 교 원 안 내

- 위치:부산시 서구 충무동 교차로 주변
- 약 82평(법당, 산신당, 방3개, 공양간1)
- 5층 건물중 2층
- 지하철(자갈치역) 5분거리, 버스정류소 2-3분거리
- 보증금 2천만원 월66만원 시설비 3천9백만원

010-3869-679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건물
- 문화재급 보유
- 요사체 및 식당 : 40평
- 대지총면적 : 450평
- 총양도가액 4억7천만원
- 즉시법회가능,집기일체

017-725-5907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진구 전포동 (놀이터시장입구)
- 2층 건물 2층 법당, 방2개, 20평
- 보증금 6백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
- 위치 좋음, 즉시 법회 가능

051)817-1326
010-8872-1326

사찰 납골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김포,
- 여의도 30분거리
- 대지 : 1304평, 건물 257평
- 납골당 4900기
- 가액 : 30억원

010-4231-067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상가 2층
- 약 60평
- 시설환경 특 A급
- 가액: 보증금 1천 월 45만원
- 시설비 2천 500만원 (조절 불가)

010-5173-335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사직3동 140-70 금정시장 사거리
- 4층중 3층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월세 40만원

010-5656-0445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구포동
- 평수: 대지 47평, 3층 슬라브
- 3층법당 1, 2층 요사채
- 삼존불, 신중, 산신, 칠성탱화, 소불
- 가액: 1억 7천 5백만원 (절충가능)
- 사정상 시세 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기장 시장
- 평수 20평
- 법당, 방, 거실, 화장실
- 주차시설
- 보증금 1천, 월 35만원
- 시설비 1000만원

010-4870-8359

도심속의 암자(급)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역, 나들목, 터미널 10분이내
- 한옥 40평 (문중부지 200평)
- 550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상담후 조절가능)
- 몸만 오셔서 법회가능
- 상담 스님 최상

010-6651-6663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지하철 5분거리에 산속 암자
- 대지 : 300평
- 법당,요사체,산신각,기타 등등
- 가액: 12억

010-3867-4747

포 교 원 전 세

- 위치 : 부산 송정 바닷가 입구
- 평수 : 70평 2층
- 유동인구 많음. 삼존불, 소불
- 가액 : 천만원에 달세 4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신설한지 3개월, 손볼 것없음, 드럼세탁기, 비데
- 몸만 오시면 됩니다. 이민 관계상

031)791-9022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주택 독채
- 대지 80평, 포교원 월세
- 집2채, 방5개, 욕실, 거실, 화장실2, 입식부엌
- 마당에 정원석등 아주 넓음
- 법당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3900만원(청동불상)

010-2251-3378

암 자 안 내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8505-2032

행운의 땅 양도

저는 인연이 다해 복 받을 분에게돌려드립니다
- 위치: 경기도 가평군
- 2,000평
- 가액 : 6억
- 본인직접

010-5414-2643
010-5234-32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
- 대지 800평, 대웅전 20평,
- 산신각 3평, 요사채 20평
- 주차장 100평
- 산세수려하고 기도도량
- 가액: 2억 3천만원

054)782-0659
011-9571-655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 중구(대전역 도보 8분)
- 3층 건물의 3층., 45평
- 법당1, 방2, 화장실2, 주방, 보일러 냉온풍기, 세탁기, 냉장고
- 햇살이 좋은 양택, 살림도 가능
- 보증금 5백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650만원

010-7450-9763

포교원 안내

- 위치 : 마산 3층 건물에 3층 (160평)
- 포교원 10년 한 자리
- 삼존불,후불탱화,법당, 종무소, 방4,
- 화장실(실내 1, 실외 2), 법당과 모든 방에는 난방필름 되어 있음
- 시설완비,불사소임관계 부득이 양도
- 옥상사용 주차장완비 일체민원없고 조용함
- 보증금 : 천만원, 월80만원 / 시설비 협의
- 바로법회가능

055)221-518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 중구(대전역 도보 8분)
- 3층 건물의 3층., 45평
- 법당1, 방2, 화장실2, 주방, 보일러 냉온풍기, 세탁기, 냉장고
- 햇살이 좋은 양택, 살림도 가능
- 보증금 5백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650만원

010-7450-9763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근교 사찰 대지 250평
- 법당, 목조건물 25평, 절경최고건물 4동
- 은행 2억 안고 9억

(주)한길부동산중개 연제구 서보호, 이재무
010-3808-4499
051)925-3800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대지 : 130평
- 법당 : 35평
- 요사 : 40평
- 가액 : 4억 8천
- 위치 : 한강이남
- 부지 : 45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20억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공인중개사 사무소(대표: 김용각)
02)723-4082 / 010-4586-4525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401호) (탑골공원길 21)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종교용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가액 : 8억 8천만원

010-3858-8335

사 찰 안 내

- 재벌을 길러낸터 포교최적지
- 부산시내 전철역세권 노선버스최다.
- 바로옆50m전방 재개발확정, APT2천세대
- 법당30평 부처님5분,천불전불사중 현재소불약300분진행중
- 1층-차고, 창고, 일주문.
- 2층-법당, 방 3개, 공양간, 화장실 2개.
- 3층-방 3개, 산신당, 빈공간 30평, 화장실 1개
- 대지 140평, 건평 107평
- 양도가 12억(융자4억포함) 시세이하가
- 학업관계로 부득이 양도(절충가능) 부동산사절 꼭하실분만

스님직통.010-8634-7851

사찰 기도 터(급)안내

- 팔공산 갓바위 뒷편
- 좌청룡 우백호가 살아 있고, 계곡물이 사계절 흐르는 소쿠리터임
- 논3,000평내 60평가옥1동 화장실 2칸짜리 1동
- 집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 대지조성 완료
- 가액: 6억(상방 협의가 잘되면 5억까지도 가능)

011-9583-3107(철호스님)

신축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임실군 국립 회문산 천마봉 옥정호 섬진강 IC 입구
- 2012년 신축 한옥 법당 2동 (토지매입 3억, 건축비 2억 5천만원)
- 호남 8대 명당터, 전 + 토지 3천여평
- 종교시설완비, 부처님 3분 모셔져있음
- 양도가액: 2억 7천만원 (융자1억포함)
- 인수금 부족시 5년간 분할납부가능

010-9647-0723

사찰(급)안내

- 위치: 포항시 북구 양덕동
- 법당 28평, 단청완료
- 산신각 2평 단청완료
- 요사채 약 80평,(방6개) 심야전기
- 창고3개, 주차 50대이상
- 가액: 7억 5천(조정가능)
- 평수 대지, 개인도로 673평, 답 100평

010-6409-8114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북구
- 약 90평
- 시설완벽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010-8606-791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실평수 40평 (법당23평 + 옥상사용)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정류장앞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5,5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녕군 유어면 내부곡리길 46-19번지 우포늪 부근
- 평수: 전 면적 약 200평
- 법당 삼존불 , 약사여래기도도량 완벽한 법당 시설, 즉시법회 가능
- 몸만 오시면 됨 텃밭, 주차장 시설완비
- 가액: 1억 2천만원(절충 가능)

010-2575-9876

사 찰 안 내

- 대웅전 22평 외 총 3,793평
- 가액 : 15억
- 경남 김해시 상동면(상동IC 5분 거리)
- 목조대웅전 단청완벽, 요사채 2동,
- 종각, 산신각, 용왕각 등 97평
- 종교용지 591평, 주차장 334평, 임야 2,868평

※노인요양복지,연수원, 선원 등 개발 최적지

010-3847-470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연봉산자락
- 대지 400평
- 법당40평, 창고30평
- 불상 및 비품시설완비
- 주차시설용이
- 아늑하고 조용한 남향터
- 가액: 1억4천만원

010-2542-5858
010-3123-3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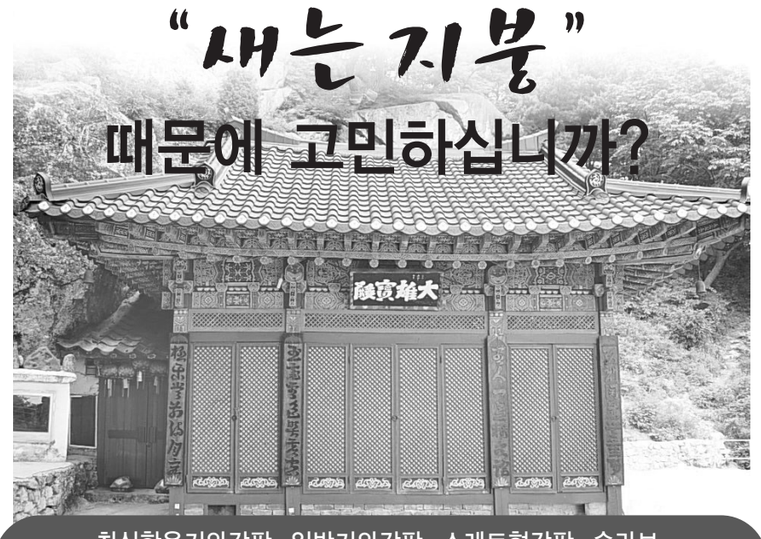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 경상도 : 010-9190-3350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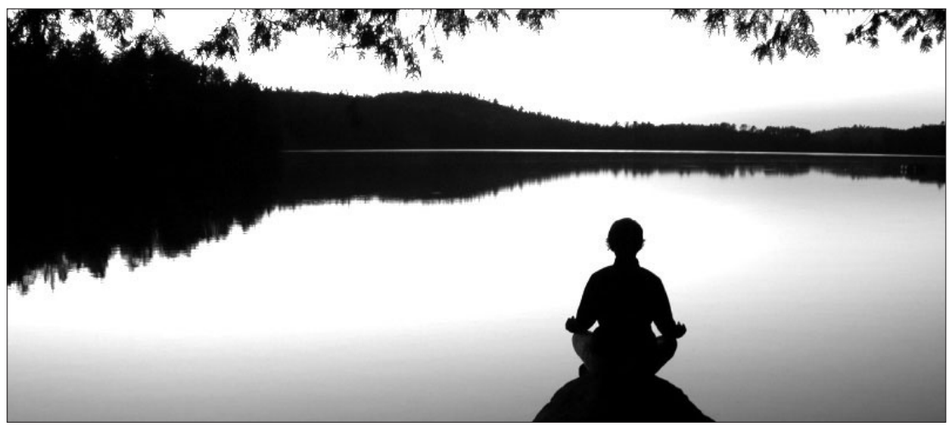
현존수업

마이클 브라운 (저널리스트 · 남아프리카공화국)

〈1〉 현존수업의 원리

현존수업은 당신 안으로 들어가는 내면 여행

현존수업은 모든 존재가 공유하고 있는 현존(PRESENCE)에 다시 자신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안된 과정이다. 이 과정은 부드럽고 안전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또 이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은 매우 실질적이고 그 효과는 지속적이다. 현존을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본지는 〈현존 수업〉(정신세계사 刊)의 내용을 5회 발췌 · 요약해 싣는다. **〈편집자 주〉**



현존 목소리에 귀기울여 내면 깨워라
내면의 힘 개발하고 주의 집중하게 해
현존은 내가 찾고 있는 것 무엇인지 알아
자각의식은 나를 변화시키는 필요한 도구

현존수업은 당신 '안으로' 들어가는 여행이다. 그것은 잊혀진 기억을 통과해 익숙하지 않은 감정 영역으로 당신을 데려간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의 일상에 스며 있는 억압된 두려움과 분노, 슬픔을 통합할 수 있다. 이러한 감정 영역은 처음에는 낯설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을 본연의 순수와 기쁨과 창조성과 재결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잊혀진 에너지 지대이다.

언뜻 보기에는 당신 혼자서 이 여행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 당장은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 방향으로 어떻게 헤쳐갈 수 있을지를 알지 못해도 그것을 알고 있는 당신의 참 존재의 한 측면이 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이 내면을 향한 이 여행길에 오르도록 권유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이 현존은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것을 얻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

현존은 당신의 최고의 친구이자 가장 가까운 벗이며, 또한 당신의 수호자이자 의장병으로서 당신의 깃발과 보급물자를 모두 지니고 다닌다. 현존은 열정적으로 당신을 떠나보내고, 당신이 현 순간의 자각에 다가갈 때 그곳에서 당신을 반가이 맞이해준다.

현존수업은 외면적 '행위'가 아닌 '무위(Not-doing)' 혹은 '원상복구(Undoing)'라는 인식적 응답의 기술을 소개한다.

여기서 '무위'를 불활동성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삶은 행동을 수반하며, 당신을 통해 움직임의 형태로 자신을 표현한다. 그런데 움직임에는 '반응하는'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응답하는' 움직임이 있다. 반응하는 움직임은 통합되지 못한 감정의 에너지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추동되는 움직임으로, 내면의 억압된 불편감에서 비롯한다. 한편, 응답하는 움직임은 내면의 불편감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것을 돌보려는 움직임이다. 응답하는 움직임은 단순히 '그 불편감과 함께하는' 것이다. 아무런 조건도 부여하지 않고 다만 그 불편감이 당신의 자각 속에 온전히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존수업의 맥락에서 행위(doing)란 자신이 느끼는 내면의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불편감을 통제해 진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움직임이다. 반면에 원상복구(undoing) 혹은 '무위'란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느끼는 내면의 불편감에 의식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움직임이다.

현존수업의 틀을 이루는 모든 원리들은 이 '무위'를 지향한다.

예컨대, △당신은 이미 숨을 쉬고 있다. 이 과정은 의식적으로 숨을 쉴 수 있는 힘을 준다. 응답하는 자각의식(responsive awareness)외에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들 위에 어떤 것도 더해지지 않는다.

△당신은 이미 정신적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과정은 당신에게 이로운 사고과정을 의식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응답하는 자각의식 외에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들 위에 어떤 것도 더해지지 않는다.

△당신은 이미 느끼고 있다. 이 과정은 현재 억압되어 가라앉아 있는 것들과 의식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응답하는 자각의식 외에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들 위에 어떤 것도 더해지지 않는다.

△당신은 이미 일상에서 책을 읽으며 산다. 이 과정은 당신의 의식이 현 순간을 향하게 하는 글을 제공한다. 이미 전개되고 있는 현상에 응답하는 자각의식 외에 어떤 것도 더해지지 않는다.

△당신은 이미 인식의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은 통합되지 않은 과거의 경험에서 나온 해석과 신념을 통해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게 하는 도구를 제공해 준다. 응답하는 자각의식 외에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위에 어떤 것도 더해지지 않는다.

현존수업은 물구나무서기처럼 당신 경험의 일부가 아닌 것을 수련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현존수업은 이미 있는 것에다 다만 '자각의식이라는 울림'을 더한다. 자각의식이야말로 당신 경험의 측면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현존수업은 이어지는 열 개의 단계별 훈련으로 구성되며, 각 훈련은 7일 동안 진행된다. 이 7일짜리 10회의 훈련은 당신에게 필요한 경험을 일상생활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준다. 일상생활은 당신이 이 과정을 통해 얻은 통찰을 자신의 것으로 통합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상의 경험을 통해 이 통찰을 확인할 때 그것은 스스로 체득한 지식이 된다. 이 스스로 체득한 지식이 당신의 인식과 생각, 말과 행위의 바탕을 이루는 기본주파수가 될 때 당신은 지혜의 울림 속으로 들어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존수업은 지혜를 일깨우는 체험을 쌓는 공부에 당신을 초대한다.

1주차에 당신은 의식적 연결호흡법(consciously connected breathing practice)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의식적 연결호흡은 당신이 이 여정을 가는 동안 하루 두 번, 15분씩 하게 될 수련이다. 이 호흡 수련은 현존수업의 뼈대를 이루는 것으로, 당신을 시간에 근거한 마음에 갇혀 있게 만드는 에너지 패턴을 통합시킴으로써 현 순간의 자각을 나날이 쌓아갈 수 있게 해준다.

현존수업 과정을 거치는 동안 당신은 주의(attention)와 의도(intent)라는 인식의 도구를 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주의는 정신체(mental body)의 도구로서, '무엇에' 집중하느냐를 말한다. 한편 의도는 감정체(emotional body)의 도구로서, '왜' 집중하는 가를 말한다. 당신은 자신의 모든 경험을 겪고 통과해 빠져나오는 전 과정에 주의와 의도를 활용한다. 평소에 당신은 인식의 도구인 주의와 의도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존수업은 당신이 그것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게끔 만들도록 고안되었다. 당신의 경험의 질은 이 도구들을 얼마나 의식적으로 사용하는가에 좌우된다.

한 주가 지날 때마다 매일의 호흡 수련에 더하여 정신을 명료하게 일깨워주는 선언문이 주어진다. 우리는 이것을 '의식적 응답'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과정에 자극받아 일어나는 나날의 경험에 그 주일의 의식적 응답을 적용하라. 의식적 응답 외에도 당신은 인식의 도구와 통찰이 담긴 글을 매주 읽게 될 것이다. 이 글들을 당신을 무의식적인 행동 방식으로부터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현존수업은 '외부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주의를 '고착시키는' 것이 아니다. 현존수업은 자기 내면의 힘을 개발하는 데에 주의를 집중하게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현 순간의 자각에 다가갈 책임을 스스로 온전히 떠맡는다.

현존수업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그것을 관찰하는 법을 가르침으로써 당신에게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말해 당신의 참 존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이로써 당신은 균형을 회복해야 할 주체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겪고 있는 '경험'의 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렇게 현존수업은, '당신의 본래 모습'과 '현재 경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현존수업이 어떤 과정을 통해, 또 어떤 이유로 효력을 발휘하는가와 관련해서 마술적이거나 신비적인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 현존수업은 단지 인간의 의식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성질과 원리에 맞추어 고안된 인식의 기술일 뿐이다. 현존수업은 원인과 결과라는 매 순간의 흐름을 존중하고, 그것을 활용한다. 이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면 당신은 이 수업에서 배우는 원리와 통찰들이 지당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현존수업이 다른 수행법들과 구별되는 점은, 거기에는 외면적인 의식(儀式)이나 도그마가 없다는 것이다. 현존수업에는 마법적인 힘 같은 현혹적인 장난감이 없다. 현존수업은 어떠한 신념체계도 종교적 관념도 강요하지 않으며, 기존의 철학에 대한 지식도 필요 없다.

참된 현존의 상태는 기쁨과 조화의 상태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상태다. 그러나 이러한 현존에 대한 지속적인 자각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현재의 감정체를 통과해 지나가야만 한다. 그리고 이 여행은 당신을 억압된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으로 데려갈 것이다. 당신은 불편한 감정 상태가 올라올 때마다 무언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불편한 감정 상태는 억압되고 만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호흡에 의식을 두는 것은 현존수업에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호흡은 주의를 현재에 두고자 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현존수업에서 사용하는 호흡법이 호흡 요법이나 재탄생(rebirthing) 요법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현존수업에서 하는 호흡 연습은 호흡 요법이나 재탄생 요법과는 목적이나 용도가 같지는 않지만, 이들과 일치되는 많은 부분이 있어서 마치 이들의 부수물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연결호흡의 의도는 현존수업 고유의 것이다.

또 현존수업은 프라나야마(pranayama, 조식법調息法)이나, 그 밖에 진동체험을 일깨우기 위해 호흡에 대한 자각을 확대시키는 기법들과도 다르다.

현존수업은 호흡을 조절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상적이고 건강한 호흡패턴을 확립하기 위해 호흡에 대한 무의식적인 통제를 내려놓는다.

현존은 당신을 정신적으로 조종하려 하거나 감정적으로 동요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것이 통찰을 식별하는 한 방법이 된다. 현존은 당신을 방해하지(interfere) -두려움에 들게 하지(enter fear)- 않으며,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벌하지도 않는다. 또 당신이 현존의 인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벌하지도 않는다. 또 당신이 현존의 인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벌하지도 않는다. 현존은 드라마를 즐기지 않는다. 현존의 표현은 순수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만을 필요한 때에 전해준다. 현존은 정신체와 다투지 않으며, 정신체보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는다. 현존은 당신에게 장황한 이해 대신 즉각적인 '앎'을 선사한다.

현존으로부터 오는 가르침은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다. 현존이 주는 가르침은 그 자체로 완전한 '앎'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가진 시간중심적 사고방식을 초월해 말하는 현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현존의 말은 당신의 의식적 주의가 시간 속에 닻을 내리고 있는 지점과는 동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많다. 그러니 당신은 통찰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특히 당신에게 일어난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는 더욱 통찰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현존에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현 순간의 자각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이다.

현존수업은 정신체의 끝없는 수다로 인해 만들어진 에너지 장벽을 의도적으로 허물기 위해 나서는 여행이다. 그리하여 현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내면의 귀가 다시 한 번 깨어난다. 통찰을 일깨우는 것이야 말로 모든 것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이다.

정리=이나은 기자

이 글은 마이클 브라운이 쓴 〈현존수업〉(정신세계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마이클 브라운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난 저자는 격통을 수반하는 신경질환에 걸리기 전까지는 음악 저널리스트로서 '무의식적인' 삶을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병에 걸린 후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은 스스로 내적 경험의 질을 변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계속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뿐이었다. 마이클은 9년간의 모험적인 순례여행을 통해 자신의 고통스러운 증상을 받아들이고 통합시킬 수 있었으며 자신의 내적 경험의 질을 스스로 책임지는 방법을 재발견했다. 그 여행의 산물이 바로 이 책이다. 이후로 그는 〈가슴의 연금술〉(ALCHEMY OF THE HEART)을 저술했으며, 현존 포털(THEPRESENCEPORTAL.COM)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해 자신의 작업에 대한 자료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주)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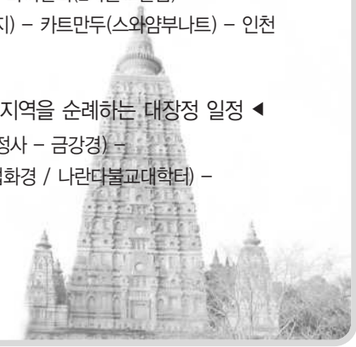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가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팁 포함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 8대 佛教聖地 지역 안내 ▶
❶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❷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첫 설법을 하신 곳, 佛 · 法 · 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❸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 / 능엄경 / 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❹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❺ 바이샬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❻ 쿠시나가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❼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룡못이 있는 곳.
❽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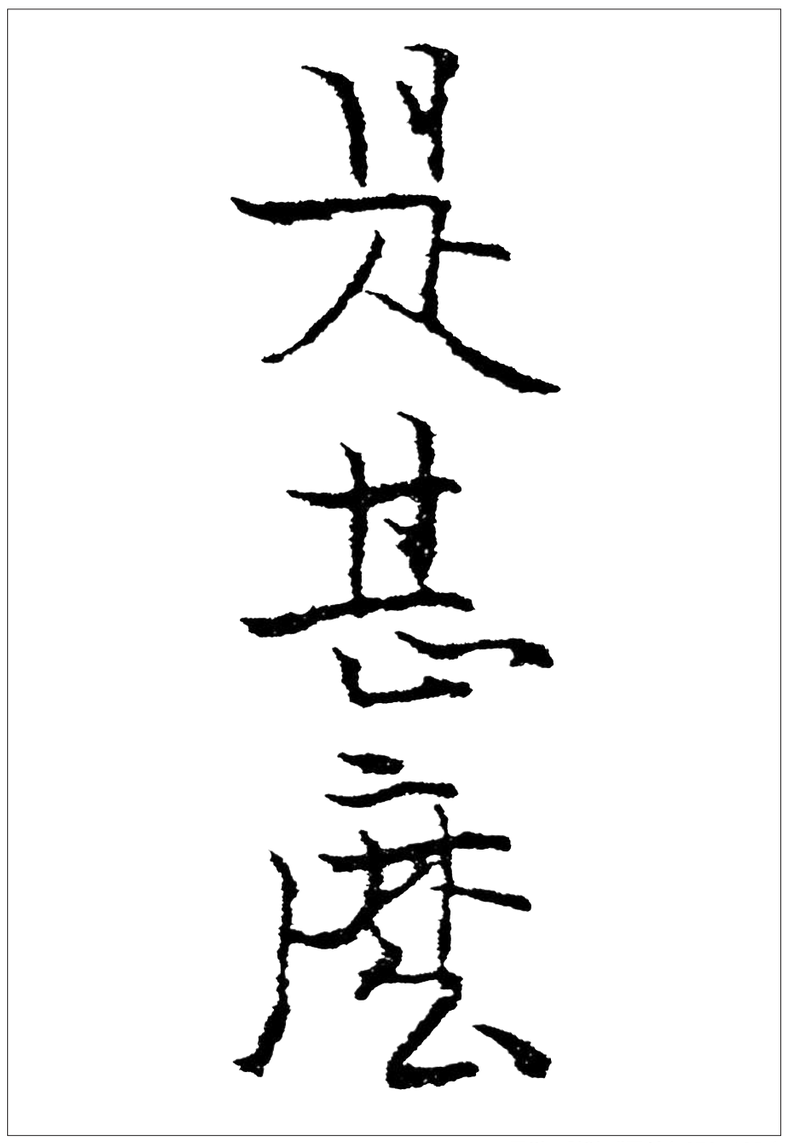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마루 티에스 Maru Tour Service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 김영곤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 maru@maruts.co.kr

갤러리 색즉시공



글씨 · 한암 대종사 (1876~1951)

시심마 (是/　　) "이것이 무엇인가(이뭣꼬)?"

시심마(是甚麼/什　)란 '이것이 무엇인가?' 또는 간단히 '이게 뭐야' 라는 뜻이다. '설봉심마(雪峰甚　) 공안' 에서 시작된 것으로《벽암록》51칙에 나온다. 어느 날 한 납자가 하늘을 찌를 듯한 기상으로 설봉 선사를 찾아갔다. 그때 설봉 선사는 그들을 향해 몸을 앞으로 쑥 내밀며 '시심마(是甚　)',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던 것이다. 이후 시심마는 오늘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뭣꼬' 라는 경상도 버전으로 재탄생하여 한국산 화두 1호가 되었다.

시심마(是甚　)란 '이것이 무엇인가?' 는 곧 '무엇이 부처인가?' '그대의 본래면목은 무엇인가' 하는 화두이다. 그리고 이것은 '너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며, 더 나아가 문제의식을 가리키는 철학적인 주제이다.

2월 14일이면 90일 간의 동안거가 끝난다. 안거 기간 납자들은 하루 열 시간 이상 용맹정진을 하며 기필코 무(無)를, 간시궐을, 시심마를 뚫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화두에 몰입(All-in)한다. 강한 자아의식인 에고(ego)가 사라지고 순백의 의식인 청정한 불성이 독로하는 환희의 순간인 것이다.

또한 안거가 끝나고 해제가 시작되면 납자들은 풍선이 된다. 구름처럼 물처럼[雲水] 걸망을 메고 정처 없이 다닌다. 그것을 행각, 만행이라고 한다. 이것은 곧 입전수수(入廛垂手, 중생 속으로)로 90일 동안 공부한 것을 테스트해 보는 행각의 본래 의미이다.

시심마(是甚　) '하루 10시간씩 앉아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살아 있는 진정한 화두 '오늘의 시심마' 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철학적인 주제이다.



글 · 윤창화 〈민족사 대표〉

늘 가슴저린 이름 '어머니'

자재화보살의 바라밀일기



어머니 생각

오랜만에 서점에 갔다가 눈을 끄는 제목이 있어 시집 한 권을 샀습니다. 박경리 선생의 시집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홀가분하다〉입니다. 그 중 '어머니' 라는 시를 읽었습니다.

시를 읽고 또 읽으면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제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꿈속에서 엄마를 찾아 헤매지 않게 옆에 계셔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뵙고 싶으면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목소리 듣고 싶으면 전화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이 그러하시듯이 자식들 위해 수십 년 거르지 않고 새벽기도 하시는 엄마의 모습은 단아하고 정결하고 거룩해 보이기까지 하십니다. 엄마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큰 아들과 꽃미남 막내아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딸 여섯을 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 엄마 큰아들이 "유학 가서 아주 힘든 상황이었을 때 교회 나오면 힘든 것 모두 해결해 줄 테니 교회에 나오라는 목사님의 말씀에도 절에 가서 기도하시는 엄마의 모습이 떠올라 쉽게 도움받기를 마다하고 더욱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고 말했어요.

학위 받고 귀국해서도 가족들과 해인사에 가서 철야기도 하고 성철 스님 법문도 듣고 신행생활을 하는 당신의 종교를 따라준 큰아들 가족들이 고마워서 무척 좋아하셨지요. 물론 두 가족은 진실한 기독교신자로서 성실하게 하느님 섬김이 좋은 두 권사님도 있지만 서로 종교에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지내고 있는 것도 다행이구요. 왕복 차타는 시간만 4시간이 걸리는 수원을 수시로 오가며 엄마를 만나고 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수원 가고 있어."

"그래 어서와."

전화로 들리는 엄마의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늙은이는 외로운 게 큰 병이야."

한 번이라도 더 같이 있어드리면서 외로움을 달래드리려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또 해도 짜증 안내고 더 들어드리려고 딸들 중에 제일 예쁘고 애교있는 막내가 엄마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엄마 그 소리 한번만 더하면 백번 이거든"하면서로 쳐다보며 "그랬어" 하시면서 한바탕 깔깔 웃으시는 엄마.

"식구들이 모두 출근하고 나면 혼자 밥이 먹기 싫어"

한 끼 밥이라도 더 함께 하려고. 냉장고에 맛있는 반찬이 가득 있건만 밥을 물에 말아서 김치하고 한 술 뜨시고 마는 엄마가 밟혀서 시간만 나면 수원으로 달려가곤 하죠.

가고 있다는 전화만하면 힘드신 줄도 모르시고 더운밥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시고 "어서와, 밥 먹자" 하시면서 맛있게 드시는 엄마를 보면 감사했습니다. 이 연세에도 자식들 위해 식사준비를 손수하시며 즐거워하시는 건강한 모습에 "부처님 감사합니다, 엄마께 건강을 주셔서요" 하고 감사기도 드립니다.

즐거운 시간이 지나면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야 하지요. 그러면 엄마는 서운해 하시며 "에미가야지? 자주 와! 너두 늙은이야 차조심하구"

배웅하시고는 얼른 들어가셔서 베란다에서 내려다보시며 "에미야 잘 가" 손을 흔드시며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계신 엄마를 뒤로 하고는 가끔 눈물을 닦곤 했습니다.

집에 도착할 시간이면 영락없이 잘 도착했는지 확인 전화하시는 엄마. 그러던 몇 주 전엔 손을 흔들고 가는 제 모습을 다시는 못 볼 것만 같아 눈물이 났다고 하시는데 갑자기 가슴이 서늘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동생들한테 전화해 안부전화라도 더 자주 드리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저보다 더 살갑게 살펴드리는 동생들이라 고맙고 든든합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이 절 저 절 모시고 다니며 그 고장의 특색 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는 큰아들 내외를 보고는 "아마 시에미 데리고 이렇게 나들이 잘 시키는 며느리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라." 하시며 만족해 하셨지요. "나는 안 가본 데가 없다. 원 없이 실컷 다녀봤다." 하시며 저한테 자랑하시는 엄마를 보며 큰 동생 내외한테 많은 고마움을 느끼곤 합니다. 집 근처에 살며 가끔씩 이것저것 살펴드리는 착한 막내며느리, 먼 곳에 살면서도 안부 자주하고 이 것 저 것 챙겨 보내는 셋째와 넷째 딸, 어느 자식하나 불효하는 자식 없는 엄마는 행복하십니다.

아버지 생각

조금만 편찮으시면 자기 집으로 모셔가 병수발 맡아하는 다섯 째 딸. 친정집에 들려 이곳저곳 살피고, 때마다 도배장판하고 낡은 커튼 바꾸고 냉장고 침대 바꿀 때 되면 싹 바꾸어 놓고 맛있는 음식 택배로 보내는, 부모님 일이라면 제일 먼저 발벗고 나서는 대전 사는 막내딸내외. 노인들일수록 환경이 쾌적해야 되고 영양공급을 잘 해드려야 된다고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자식들이 모두 잘 해줘서 여한이 없다."고 하셨죠.

오늘은 아버지가 많이 그리워지네요. 시간만 나면 "세상을 혼자서는 못 산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야. 남들하고 절대 척 짓지 말고 살아라.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 못할 게 없어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면 되지.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거라. 콩 한쪽이라도 나누어 먹구.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 집에 찾아온 손님을 맨입으로 보내선 안 된다 차 한 잔, 과일 몇 쪽이라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따끈한 밥 지어 대접해 보내야 하구. 남에게 피해 주지말구 살아야 하구. 시어른 말씀 거스르지 말구 정성껏 잘 모셔라. 부모님께 잘 해야 너희 자식들이 잘 되는 거야 그 분들이 아이들의 뿌리셔, 모든 복은 효에서 나오는 거야" 등 등 이 모든 말씀들이 경전에 있는 말씀들이셨습니다.

조카가 학비 때문에 힘들어 했을 때에도 몰래 엄마 패물을 팔아서 대주셨던 일. 6.25직후 처음으로 털실이 나와 장미표 공작실로 짠 스웨터를 추운 시골에서 고생하시는 작은 고모님께 선뜻 벗어 입혀 보내셨던 일을 지금도 작은 고모는 그 얘길 하시고 또 하시죠.

엄마는 보시를 하셔도 한 바 없이 또 때를 놓치지 않고 하셨어요. 이 또한 부처님 말씀이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식구끼리 살아본 적이 거의 없이 시골 서울에서 항상 친척들이 와서 여관처럼 묵어도 소리 없이 뒷바라지 하셨고 부산 피난 가서까지도 취직시켜달라고 찾아 온 사람들에게 따로 셋방을 얻어서 뒷바라지 해대며 취직시켜서 내보내신 우리 엄마 아버지, 지금 생각하니 정말 보살님들이셨습니다.

당신도 노인이시면서 혼자 계신 두 고모님 모셔다 외롭지 않게 오랜 기간 같이하시며 대접하셨죠. 큰고모님은 항상 "자네는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 어른들 자식들밖에 모르셨어. 아주 많이 아끼시고 예뻐하셨지, 그래서 자식들이 잘 된 거야." 작은 고모님도 "언니 고마워요 우리 부모님께 잘 해드려서요" 시집살이 하셨을 때는 세 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미수가 되신 지금에도 새벽에 세수하고 화장하셔야 기도 시작하시는 습관은 여전하시지요. 평생 화장 안하신 얼굴을 아버지께 보인 적이 없으십니다.

엄마는 한 평생을 육바라밀을 몸소 실천하시면서 살아오신, 살아계신 보살이십니다. 엄마 부부는 칠천 겁의 인연, 부모 자식간의 인연은 8천 겁, 형제 간의 인연은 구천 겁이라지요. 이렇게 지중한 인연으로 만난 우리형제들 서로 소중히 여기며 잘 살아갈게요.

엄마 지금까지 저희들이 잘 못한 일들 모두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곁에 오래오래 계셔주셔야 해요 이제 남은 여생 평안하고 건강하세요. 엄마, 저희 형제들 모두가 엄마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

오늘은 엄마 88세 생신. 미수라고 하죠. 그래서 큰아들이 S호텔에 예약을 해 좋고 부득이 해외출장을 갔는데 생신날이 귀국하는 날이란 걸 아시고는 귀국해서 허덕이고 애쓸 아드님 생각에 완강하게 우기셔서 계획을 몇 번이나 바꾸게 하셔서 결국은 이렇게 단출하게 가까운 친척 몇 분과 가족들만 집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내 욕심보다는 자식들을 먼저 배려하시는 엄마. 한 평생 자식들 위해 헌신 봉사하신 엄마는 그런 호사를 누리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신데. 자식들도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말씀대로 이런 조촐한 상을 차렸지만 엄마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아마 큰 회한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성껏 차린 음식이니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시간 갖으세요.

2009년 엄마 생신날 큰딸 올림.

불편한 다리·허리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영화배우 김 영 인
(現, 한국영화배우협회 상임이사)
실제 체험자로서 적극 추천합니다.

한번만 방문하셔서 체험하시면 본인의 다리 상태를 확인하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됩니다.

강영재한의사의 저서 「경혈자극 해독요법」 중에서

- ☑ 계단을 오르내리기 불편하신 분
- ☑ 퇴행성관절염(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 다리(발가락)가 당기고 저리고 발이 차신분
- ☑ 다리가 부어 부기가 빠지지 않는 분
- ☑ 디스크(협착증) 있는 분
- ☑ 통풍이 있는 분 ☑ 목·어깨·팔 불편하신 분
- ☑ 중풍 후유증으로 재활이 필요하신 분

요법 배워가기 고혈압·동맥경화·협심증·천식·이명·불면증·와사풍·3차신경통·어지럼증·비염·변비

강영재한의사(대만출신:경희대한의대졸)가 서울시 제기동 약령시에 『하지(下肢)전문 케어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도 고치지 못한 다리를 약도 침도 아닌 경혈자극 해독요법으로 건강한 다리로 회복이 됩니다. (지방에 계신분은 한번만 방문하셔서 경혈자극 해독요법의 실제 과정을 배워가세요)

강영재한의사의 하지(下肢)전문 케어센터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1121번지 보생당한의원 빌딩 2층202호
♣위치:1호선 제기동역 2번출구 직진30m 소담떡집끼고 좌회전 약100m전방 우측
☎상담예약 010-8436-9004 예약제로 운영 중입니다. TEL.070-8960-9004

천비록 (하늘·땅·사람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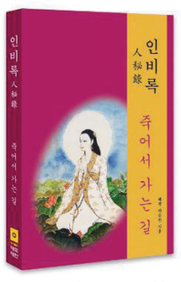
값 15,000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天 秘 錄!"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도서구입문의 : ☎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알라딘/예스24/철도문고/불광문고/대한서림/대동문고/중앙출판/세원출판/홍지서림/영광도서 등 전국 유명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인비록 (죽어서 가는 길)



값 15,000원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웹진 인비록 : http://www.ddblog.co.kr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대행 스님

진짜 100% 인간 될 수 있는 공부가 시급한 시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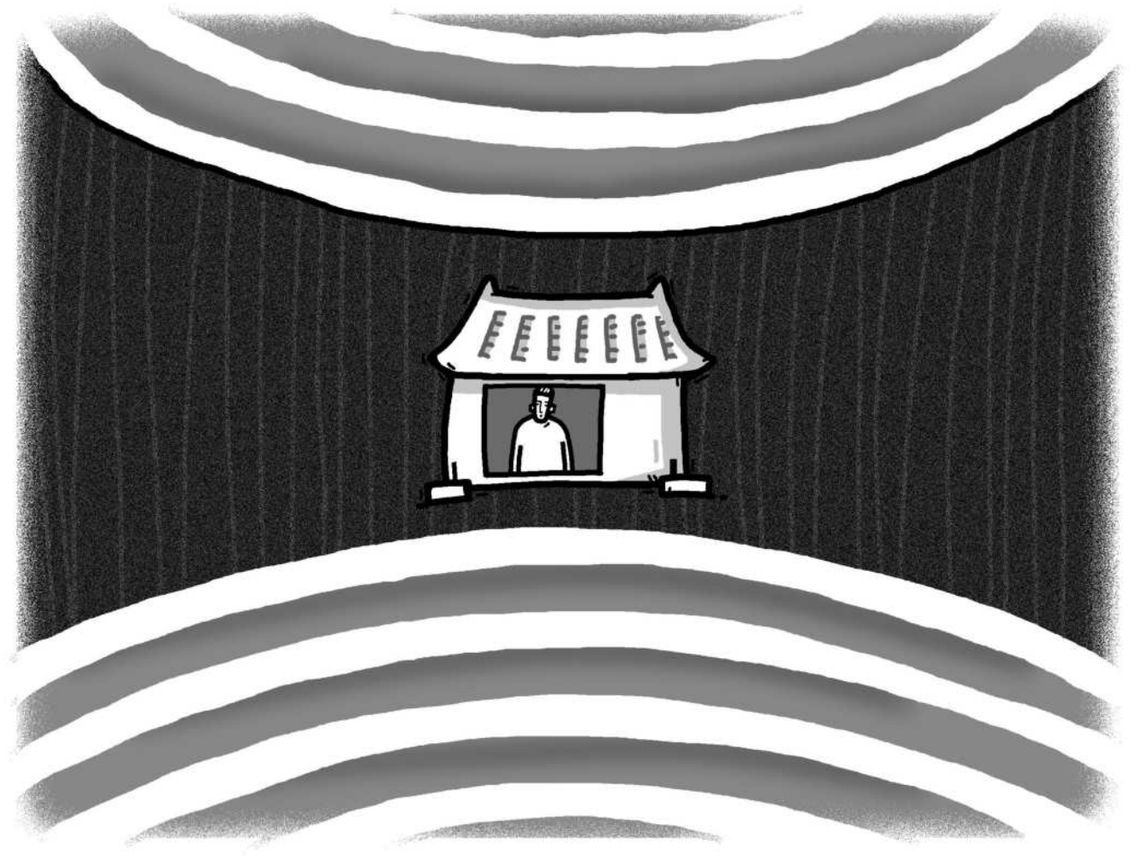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 도량이 비좁아서 여러분이 바깥에 저렇게 전부 서 계신 걸 생각하니 죄송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식당이고 어디고 꽉꽉 들어차면서도 마당에 저렇게 섰어야 하는 여러분께 뭐라고 죄송한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공부 하는 데는 공부라고 하기 이전에 생활이 공부니까 이것 저것을 따지고 자리가 좁다고 해서 안 올 정도라면 그건 공부다했죠. 진짜 100% 인간 될 수 있는 그 공부가 지금 시급한 시대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겁니다.

왜 우리가 정월이면 촛불재를 올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불이 그렇게 귀중하고 그런가 하는 거를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라기보다는 생명체가 생겨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돼 있었을까. 우리가 바람과 흙과 물과 이렇게 지내다보니까 그 속에서 세 가지가 모두 한데 협조하는 바람에 그 가운데서 불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불이 생겨서 곳곳마다 불이 일어나고 그러니 모두가 지수화풍으로 둘러싸이게 돼 있었죠. 그래서 스스로서 생명체들이 생겨나게 돼 있고요. 우리 가만히 보세요. 지수화풍의 수분과 흙과 이 바람과, 바람이라면 즉, 공기와 모든 게 종합되지 않는다면 생명체가 생길 수가 없어요. 모든 게 한데 종합됐기 때문에 흙을 갖다가 그냥 오래도록 쌓아놔도 그 흙 속에서 생명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이 생명체들이 그렇게 해서 창조가 됐다고 하는 거죠.

생명체들이 생겨나기만 했으면 또 뭘 합니까? 생겨나가지고 그 모든 게 조절이 되질 않아서, 크기만 하고 조절을 못하니 차원의 질서가 잡히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뒤죽박죽이 되고 먹히는 놈도 그렇고 잡아먹는 놈도 그렇고 무슨 차원의 질서라든가 이런 게 없이 모든 게 그렇게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말았죠. 이게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 지수화풍도 하나하나가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하나가 그 마음이 있는 거라 모든 게 종합이 돼서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 이건 개벽을 해야만 되겠다.' 말하자면 개벽이 아니라 개혁이죠. 개혁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은 이 생명체들로 하여금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즉 말하자면 개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체, 개혁을 한 거죠.

개혁을 하고 나니까 어떠한 것이 생겼느냐 하면은 질서도 지키게 됨으로써 감각이나 지각이나 시각 · 촉각 · 청각 · 미각 이 여섯 가지에 달하는 문제들이 제각기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차원에 따라서 여섯 가지가 다 등장이 되지 않은 것도 있고 여섯 가지가 등장이 된 것도 있고, 차원에 따라서 세 가지만 된 것도 있고 두 가지만 된 것도 있고 한 가지만 된 것도 있고, 그 차원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개혁을 한 것은 크고 작은 것을 조절하고 제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문에 들게 한 것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생물이 살다보니까 그 때에 태어났던 생명체들이 개혁에 따라서 다시 태어나게 되니까 다시 태어난 짐승들은 모두가 소식(小食)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풀을 먹고 사는 짐승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자기 자신들의 생사를 거론할 수 있게도 됐답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는 생사를 생각해보지도 않았다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실천하고 이러다보니까, 제일 나중에는 사람까지 등장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돼가지고 생사를 논의하게 되다보니까 아, 이 불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중하구나! 이 불성이라는 것도 귀중하지만 최초에 우리가 어디서 생겨났나?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만큼 됐죠. 먼저 태어나서 경험한 사람들은 전부 사람이 살 수 있는 농사일들이라든가, 사람이 살아나가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하는 이 생활 도법을 그대로 익히면서 또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연쇄적으로 차원을 높이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불성이 근중한 줄 알게 됐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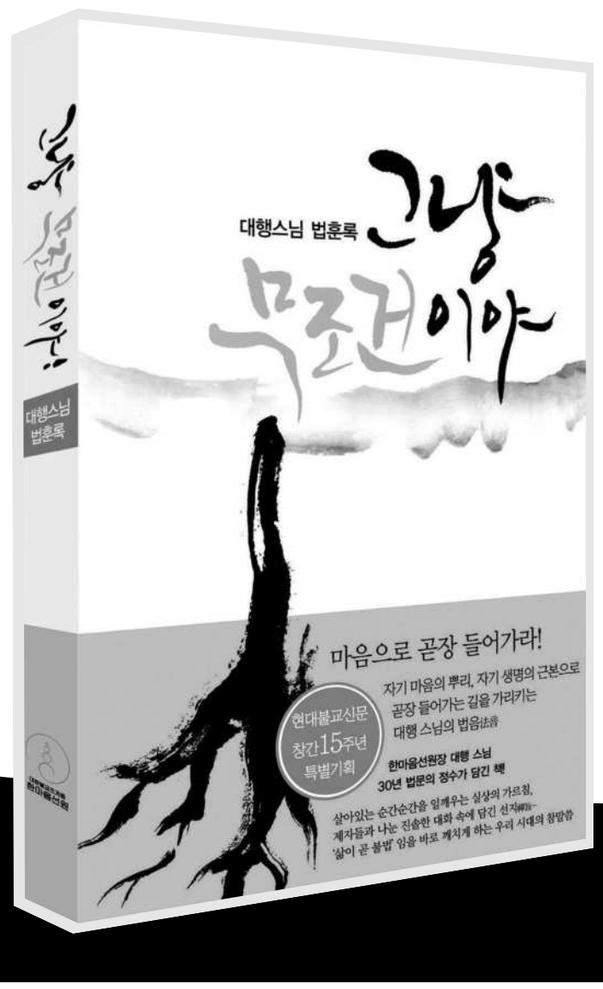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우리 이 불로 인해서 생명체들이 찾아왔다고 그래서 과거 몇 억겁 전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실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지수화풍으로써 뭉쳐서 지수화풍을 또 먹고 살아. 그런데 지수화풍으로부터 와서 지수화풍으로 또 가. 지수화풍으로 또 가면 사대(四大)가 흩어져버려. 지수화풍 자체가 제각기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 소립니다. 즉 말하자면 불바퀴다 불기둥이다 이런다면 불 하나의 기둥에서, 쉽게 말해 그 불바퀴에서 모든 게 마음이라는 입자가 나간다면 그게 바로 또 불바퀴가 되고 또 원자가 됩니다. 그렇듯이 인간의 그 생명의 창조도 역시 마음으로써 그 원자, 근본 하나에서 또 입자로 종자를 만들면은 그 종자가 씨가 되고 씨가 돼서 싹이 되고 싹이 돼서 또 종자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퍼진 겁니다.

이건 한마디 또 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삼천(三千)' 하면은, 즉 말하자면 하천세계 중천세계 상천세계 이거를 한데 합치면 삼천이 됩니다. 고거를 한데 합쳐서 삼천이 된다면 '삼천대천(三千大千)' 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 전체를 합치니깐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평등한 공법(空法)에 의해서 대천세계가 되는 거죠. 이 대천세계에서 우린 한 부분에서, 지구라는 위성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모두들 요새 지구벌레라고 말들 합디다마는 지구가 집이 되고 자기 터전이 되고 도량이 돼서, 그냥 같이 너 나 할 거 없이 한데 싸여서 돌아가면서 살려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전부 필요로 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는 살 수 없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왜 촛불재를 그렇게 하느냐? 귀중하게 해야 되느냐? 이 마음의 촛불재를 하는 것은 방편으로써 마음과 더불어 자신과 즉, '자(自)' 는 이 몸이 되고 '신(神)' 은 자기 불성(佛性)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 신이 다 둘 아니듯이 촛불재를 하는 것도 마음에 없으면 그 촛불을 들 수가 없습니다. 들질 않게 되죠. 마음에 있으니깐 촛불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 가설이 돼 있다고 항상 얘기하죠. 한 가정에 내 자식이다 내 부모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다 가설이 된 겁니다, 그게. 모르는 사람은 전체가 가설이 돼 있다는 것도 모르니 한 가정이라도 그것을 알아야 전체가 다 가설이 돼 있다는 거를 알고 넓고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도 내 마음이 밝혀지면은 그 마음도 밝혀진다는 얘깁니다. 자식을 둔 사람들은 또 자식이라는 가설이 돼 있습니다. 부모라는 가설이 돼 있고. 그것이 자연의 마음의 가설입니다. 우리가 전기 가설을 하지 않으면은 불이 안 들어오듯이 우리가 스스로서 자식이다 부모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간에도 가설이 돼 있는데 형제간에는 부모와 자식보다는 좀 덜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덜 가는 겁니다. 친척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여러분은 정말로 자기 주인공의 불성을 믿어야 합니다

☞ 29면에서 계속

도 손바닥 다르고 손등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촛불 하나 켜는데 돌아가신 부모의 마음만 밝아질 뿐 아니라 자기 마음도 밝아져서 양면을 다 밝아지게 할 수 있는 촛불입니다. 더군다나 조상님들도 지금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그 모습을 쓰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그 모습 쓰고 나온 대로 대접을 받게 돼 있거든. 여러분이 생각들을 잘 해보십시오. 항상 내가 얘기하죠. 개로 태어난다면 개 대접밖에 못 받고 짐승으로 태어난다면 짐승 대접밖엔 못 받는다. 돼지로 태어난다면 돼지 대접을 받을 거고 닭으로 태어난다면 닭 대접밖에 못 받는다. 사람으로 태어나도 천하게 태어나면 천한 대접밖에 못 받는다. 이런 것이 바로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종자는 한 종자입니다. 참외씨를 심어서 씨를 받아서 또 참외씨를 심으니까 그 참외씨 그대로 나오더라는 얘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격으로요. 그러니까 자기 씨를 심어서 싹이 난 거니까 그 종자를 또 열리게 할 수밖엔 없죠. 그러니까 이 촛불 하나가 얼마만큼 귀중한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근본의 내가 탄생한 자리요, 나를 형성시킨 자리요, 또 우리 부모들을 형성시키는 그 에너지가 배출되는 장소입니다.

또 아래로는 자녀들이 말입니다, 나가서 외박을 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외박을 해도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천차만별로 그렇게 부모들의 마음을 썩이고, 손가락질을 받고, 교도소에 가고,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고발하고, 부모를 고발하고 이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촛불 하나가 그렇게 귀중하다는 얘깁니다. 촛불 하나가 그것을 다 대치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빛보다 더 빠른 것이 마음의 능력입니다. 한생각에 찰나에 위성에도 가고, 우주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문지방 너머도 가고, 문지방 너머나 우주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빛보다 더 빠를 뿐만 아니라 빛은 가다가도 중단이 되지만 이것은 물 속이든지 흙 속이든지 어디든지 높고 낮음이 없이, 가고 옴이 없이 오고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촛불 하나를 진짜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진짜로 믿고 아주 가긍하게 실천을 하기 위해서 진짜로 믿고 하나를 들고 그렇게 위 아래를 껴잡아서, 둥글게 껴잡아서 자기와 더불어 같이 한 방에서 밝게 된다면 벌써 차원이 달라져요. 그래서 나가서 그런 어지러운 일들을 저지르지 않게 돼요. 이런 얘기를 듣고 무시하면 무시한 대로 자기네들이 무시를 받게 되는 거니까 뭐 나는 하등 상관이 없어요.

어느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들이 나가서 외박을 하고 이코에다 뭐 대는 거 있죠? 그거 뭐야? 허허허. 응? 본드가? 난 이름조차도 모릅니다. 그거를 하고 노오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다니더랍니다. 그러니까는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학교에 가서 만날 빌고 그래도 만날 선생님들은 퇴학시킨다고 그러고, 그러자 이거는 한이 된 거죠. 그것도 3대 독자라는데 말입니다. 허, 이거 이럭하니 정말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오게 돼서 오로지 그냥, 오로지 그냥, 그저 자나깨나 자나깨나 아마 진실로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넉넉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점을 치고 온통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고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공부는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허허허.

오직 그렇게 되니까 어느 날 하루는 뎃정이가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그놈이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믿음! 이래야만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는 것만치 되는 것이지, 누구한테다 항의를 합니까? 나도 주인공을 찾았는데 왜 안됩니까? 아, 잘되다가 안됩니다. 잘되다가, 잘되니깐 마음이 헤벌레해졌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할 탓이지 나한테다 항의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부처님께서 잘 아시고 "너희 자체에다 제각기 컴퓨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될 테니깐 너희 맘대로 해라.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차곡차곡 입력이 돼서 차례차례로 나오느니라. 그러니깐 그 입력이 돼서 나오는 데다 되 입력을 한다면 그 앞서의 입력된 게 없어질 수 있지만 그 나오는 자리에다 되놓지 않는다면은 그 입력된 업보성 유전성 인과성 윤회성 세균성 영계성, 이 모두가 없어지기커녕 점점 차곡차곡 더 쟁여지니 그거를 없애려면 그것이 나오는 구멍에다가 다시 놔서 입력이 돼야 그 앞서에 입력된 게 없어지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 드리는데도 모른다면 난들 어떡합니까? 응?

그래서 우리 이 도량에서도 행자들이 들어오면 잘못됐건 잘됐건, 잘했건 못했건 모든 게 내 탓이다 이거야. 내 탓! 내 탓! 잘해서 칭찬을 받았으면 그것도 내 탓, 잘못해서 꾸중을 들었어도 그것도 내 탓. 누구를 나무랄 게 없어. 모두가 제 탓이기 때문에, 제 탓인 그 자체 내에서 꼭 누(累)를 끼치지 말아야 하고 질서를 지켜야 하고, 벌써 누를 끼친다 하면 자기가 누가 되기 이전에 벌써 이 전체가, 부처님 법이 그냥 누가 되는 거죠. 오는 것도 막지 말고 가는 것도 잡지 말고 즉,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 도량에 누가 소를 한 마리 잡아왔다 하더라도 돼지 한 마리를 잡아왔다 하더라도 공손히 마음으로 지극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이 그게 부처님 진짜 법입니다. 하치않은 거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진실한 정성이기 때문에 그걸 하치않게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소립니다. 하다못해 사탕 한 봉지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에이, 이까짓 거를 가져왔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옛날에 원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집은 가난하기 짝이 없고 애는 여덟이나 낳았는데 어머니는 그냥 불불불불 떨고 밥도 못하고 몇 해를 두고 그렇게 사는 집이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남편이 군인이었는데 셋방에 들어있고 가져올 게 없으니깐 사탕 한 봉지를 가져와서 우리 부인하고 자식들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觀)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사탕 한 봉지로 천도가 됐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6·25 때 부모들이 치마를 둘러 쓰고서 그냥 총을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치마를 둘러쓰고 그렇게 됐으니까, 그 부인이 총 맞은 형세를 하고는 눈도 안 보인다고 그러고 그냥 이러고 헤매니 그거, 그거 난처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너무 지극한 마음으로 남자가, 부처님도 안 계신데 방석에다가 그냥 절을 너무 곱게 삼배를 하기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하치않은 그 방석에다가, 거기다가 저렇게 지극하게 남자가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그 정성이 돈으로 치면 억만금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집안이 이제는 씻은 듯 부신 듯 나아서 그 애들이 대학, 대학원을 다 다니게 됐고 남편은 승진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가 여기를 오게 돼서 우리 남편이 승진을 또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제는 집도 있고 다 잘사니까. 그래서 승진이 안되는 것도 법이고 되는 것도 법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만 정성을 백일을 두고 들였어요. 그랬는데 그만 승진이 안됐거든요. 그러니까 승진 안됐다고 그냥 아주 안 나오는 겁니다. 허 참!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공부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중에도 마음공부 하나도, 몇 해가 돼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안 오더니만 언젠가 한번은 와서 턱 달겨들어요. 그러고는 "스님, 죄송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나한테다 왜 죄송하다고 그러느냐. 난 하등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아빠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아빠 대신 승진이 돼서 월남에 간 사람이 그냥 해골만 왔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후퇴하는 것도 법이고 전진하는 것도 법이라고 그러시더니 만약에 우리 아빠가 그때 승진을 해서 월남에 갔으면 어떡할 뻔 했느냐. 그렇게 우리 아빠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 부처님 법이 얼마나 묘법입니까? 부처님 법이 묘법이라 하니까 저기 앉아 계신 (등 뒤의 부처님을 가리키시며) 부처님만 부처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더불어 같이 모두 부처입니다. 내가 항상 그러죠. 저 부처님의 형상은 바로 여러분의 형상이고, 부처님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이고, 부처님의 법이 여러분의 법이라고. 우리가 떠나면 부처님도 없으실 거고 부처님이 떠나면 우리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깐 더불어 같이 사는 그 가운데서 묘법이 나고 또 부처님의 천차만별의 그 법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귀중하게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불이라면 마음내는 거는 바로 바퀴입니다.

또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부처님 모셔놓고 문수 보현 이렇게 모셔놓죠? 그렇게 모셔놓은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뜻을 깨달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내지 않으면 부처고, 마음을 내면은 법신이 되는 겁니다. 문수가 법신입니다. 법신이 생각을 했다 하면은 보현이 됩니다. 남을 위해서 모두 움죽거리는 거 말입니다. 나와 더불어 같이 위해서, 나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보현이 화(化)해서 즉, 화신(化身)이 돼가지고 응신(應身)이 된단 말입니다. 부처님 속에서 수천, 아니 헤아릴 수 없는 그 응신이 탄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차만별의 보살들이 다 부처님 속에서 나온다 이런 거죠. 이러니 천차만별로 화해서 변하고, 화해서 찰나찰나 나투면서 어느 중생에게 아니 응하는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짐승한테 들어가도 짐승과 둘이 아니게 돼주셔서 건지시고, 사람한테도 그렇고 천차만별로 화해서 건져주시니 말로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부처님이란 이름은 모든 일체가 다 종합된 공심(共心)입니다. 공심·공체(共體)·공생(共生) 또는 공용(共用)·공식화(共食化) 하고 돌아가는 이 거대하고 광대무변한 자체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오는 것 막지 말고 가는 것 잡지 말고
아무리 우리 도량에 누가 소 한 마리를 잡아왔다 하더라도
공손한 마음으로 지극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이
그게 진짜 부처님 법입니다.

※위 법문은 1995년 2월 19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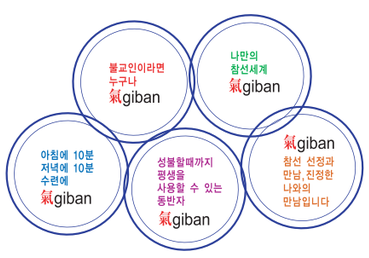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 30,800원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염주세트에는 주머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크기 : 직경 10mm

※염주세트에는 주머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 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불자 세상보기

일본 우익, 화쟁의 패러다임을 배워라



이 도 흠
한양대 국문과 교수

아베 정권의 우경화가 심각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900여 명이 사망하고 국토의 70%, 국민 대다수가 방사능에 오염되고 있음에도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위안부를 부정하고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에 명토박으며 군국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왜 아베는 이런 노선을 강화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일본 국민이 우경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 및 이에 대한 일본 민주당의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다.

자민당이 추구한 신자유주의의 결과, 2,800만 명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전락하였으며 중산층이 대거 몰락했다. 근로격차가 소득과 자산의 격차, 교육격차와 건강격차를 야기하며 미래세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홈리스, 일용파견, 네트카페 난민이 증가하고 자살과 범죄율이 치솟았다.

이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던 자민당 대신 복지우선과 격차해소를 정책으로 내건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바람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간 나오토 정권은 882조 엔에 달하는 막대한 정부부채만 남긴 채 몰락하였다. 대중들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아베와 우경화 정책을 지지하였다.

지금 일본 국민들은 정리해고, 실업, 비정규직 등의 공포 속에서 권위에 의존하여 이 공포를 해소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고, 이를 아베 정권이 잘 이용하고 있다.

다음의 이유는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때문이다. 오바마 정권은 미국 외교 중심축을 아시아로 옮기는 전략(Pivot to Asia)의 일환으로 일본과 연합하여 중국을 압박하려는 정책을 추구하며 일본의 군국화와 재무장을 은근히 지원하고 있다. 이런 구도 속에서 아베는 계속 영토분쟁을 일으켜 일본 국민을 민족주의적 선동에 동원하는 한편, 내정의 모순을 은폐하고 있다.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 남북한이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에 이슈를 만들지 않는 것이 최상의 전략인데, 이명박은 20%대에 그친 지지율을 민족주의적 선동을 통하여 만회하기 위하여 직접 독도를 방문해 일본의 우익이 연대하고 국민을 동원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주었다.

이러자 남북한의 우익들은 '적대적 공존'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일본에서는 연이어서 독도 관련 정책과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시민들은 이에 집회와 반한운동으로 화답하였다. 남한에서는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나 친일파들,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극우세력들이 이들과 보조를 맞추며 교과서를 왜곡하고 있다.

이런 행위들에 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남북한 사이의 냉전과 대결이다. 남북한은 작년에 전면전의 직전 상황까지 갔었다. 다행히 전쟁의 위기는 넘겼지만, 지금도 남북한 사이의 대결의 파고는 높다.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국민들이 동일성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동일성은 '차이'를 포섭하여 이를 없애거나 없는 것처럼 꾸민다.

동일성은 인종, 종교, 이데올로기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동일성에서 분리하여 타자로 규정하고 자신과 구분시키면서 '배제'하고 이에 '폭력'을 행사하면서 동일성을 강화하기 마련이다.

이처럼, 여러 원인이 결합된 것이기에 일본의 우경화 및 군국주의화에 제동을 걸기는 쉽지 않다.

우선 동일성을 해체하고 서로 눈부처를 바라보는 화쟁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한국과 일본, 중국 시민들이 연대하여 자유로운 개인의 합리적인 성찰과 화쟁적 소통을 바탕으로 한 공공영역을 증대하면서 동아시아사회포럼을 조직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교과서를 만들고, 지역에 기반을 두면서도 글로벌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는 공동의 안보협력체, 경제협력체, 문화협력체, 환경협력체를 만들고 이를 통해 상품에서 지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동아시아의 연대와 평화를 강화하는 평화의 선순환체제를 구축한다. 어느 정도 조건이 성숙하면 동아시아 시민의회, 공동 정부, 공동 사법부와 군대를 구성하여 화쟁의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사부대중 칼럼

뒷돈 받고 빌려주는 문화재보수자격증



황 평 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문화재 전문위원
육의전박물관장

문화유산은 다음세대까지 잘 보존해서 물려줘야 한다. 즉 당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만이 소유와 보존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화재와 관련해서 일부 전문가들만의 독식과 그들만의 카르텔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문화재 관리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관심 있는 시민과 학생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재계는 비밀주의가 난무하고 '문화재 마피아'가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들 마피아 집단에 들어가야 연구에 참여할 수 있고, 사업 이익도 챙길 수 있는 구조다. 서로 보호하고 특정집단의 비호도 받는다.

이런 식이라면 문화재의 원형 보존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제대로 남아 있을 문화재가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문화재의 보수와 보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종속돼 있다. 특히 보수기술자 자격증을 고액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일부는 자격증을 처음부터 부업형태로 빌려주기 위해서 취득한다. 일부 사업자들은 현행법을 피해 편법을 동원, 자격도 갖추지 않고 나라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수·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우리나라 문화재 보수기간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짧은 것도 문제를 낳고 있다. 문화재보수 공사에 공사 기간을 두는 것은 문화재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자료와 문헌이 남아 있지 않은 문화재 공사를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수시로 발생한다. 완벽하게 보수공사를 진행하려다 보면 공사기간과 공사비 때문에 대충하고 넘어가기 마련이다. 현실성 없는 공사 기간으로 부실을 야기하고 있다.

다른 큰 문제는 언론이다. 일부 한 두 개의 언론을 제외하고, 나머지 언론들은 이 들 마피아가 발표하는 것을 확인과 비판 없이 그대로 전달하기 급급했다.

이 중에는 문화재청 내부의 기득권 세력과 일부 업자와 이를 비호하는 언론권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라면, 문화재 보수면허 대여업자 같은 사회적 악인을 비호해주기도 하고, 이념과 사상이 다른 자들과 합종연행하며 개혁 세력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다.

복구공사 중 검증을 통해 비판하거나, 숭례문 완공 후 부실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과 전문가들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비난을 하고, 오히려 이들 마피아와 비리 집단을 비호하는 또 하나의 마피아를 자처하는 것이다. 이런 언론사 기자는 문화재의 악이자 사회의 악이다.

훼손된 문화재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원인조사와 관련 기관끼리 공문을 주고받는 데 몇 달 걸리고 여름에 설계하면 가을에 확정되고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 공사를 시작해 연말에 공사를 마쳐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산판에서 좋은 육송을 구입할 시기는 지나가고 결국 수입목재를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된다. 또한 목재와 흙을 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현실로 볼 때 찬바람 부는 시기에 문화재 공사를 해서 이로울 것이 없다.

따라서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현행법상 보수업체 등록조건인 문화재기술자 4명, 기능인 6명 보유라는 규정을 폐지해야한다.

다시 말해 개별 문화재 보수 공사마다 보수기술자가 직접 현장에 참여해서 마칠때까지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개선 해야한다.

장기적으로 문화재 보수는 국가가 직영 또는 관리공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수기술자들을 팀으로 구성해 문제가 있는 문화재에 국가(문화재청)에서 직접 한 팀을 파견해 처음부터 끝까지 그 팀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시킨다. 팀의 구성은 오래된 경험자와 신참으로 구성한다. 국가가 직영하면 입찰의 비리와 소수 업체의 독식, 자격증 대여 비리, 자본적 보조 사업의 비리는 없어질 것이다.

또한 팀으로 구성되면 공사 실명제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며 오래된 경험자들로부터 기술 전수도 쉬워질 것이다. 문화재계 병이 너무 깊다.

지금 개혁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이번에는 반드시 문화재 마피아를 뿌리 뽑아야 한다.

社說

한국불교, '신뢰도 2등' 극복하자

앞으로 한국 사회를 짊어지고 갈 10, 20대 청소년과 청년들의 불교에 대한 신뢰도가 전 연령을 통틀어 가장 높게 집계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는 2월 5일 발표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의 201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기초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가장 신뢰하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 만19세~29세의 33.4%가 불교를 가장 신뢰한다고 답했다. 가톨릭은 50대에서 32.4%로 가장 높은 신뢰도를 자랑했다.

이는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2012년 11월 발표한 '한국의 사회 · 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와도 동일하다. 당시 조사에서도 한국사회에서 가장 믿음이 가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 20대의 26%가 불교를 가장 신뢰한다고 꼽았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전체적인 신뢰도가 가톨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봉사활동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고 실질적 도움을 주는 종교로는 개신교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은 것은 불교의 사회 참여는 갈 길이 멀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은 30대 포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최근 불교가 적극적으로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사회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법륜, 마가, 혜민, 정목 스님 등이 한국 사회의 힐링 열풍을 주도하며 국민 멘토로 자리매김한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스님이 SNS 스타로 거듭날 수 있는 시대다. 깨어있는 스님들의 한 발짝 앞선 시도가 불교를 'SNS 시대에서 가장 수혜 받은 종교'로 만들었다. 어려운 불교보다는 감성과 소통의 불교가 청년들에게 먹히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이들을 불교 안으로 포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표교 방안이 요구된다.

'문화재 자격증 장사' 불교성보 멈든다

소문으로 떠돌던 문화재 복원 전문가들의 자격증 임대 장사가 꼬리가 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월 4일 돈을 받고 문화재 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과 이들로부터 자격증을 대여 받은 보수건설업체 대표 등 34명을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문화재 수리기술자들은 문화재 보수건설업체에 자격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각각 1100만~3500만 원 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대구지방경찰청도 지난 1월 28일 자격증을 빌려준 단청 기술자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역시 자격증을 대여하고 1년에 1200만~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들이 유명 문화재보수에 참가했다는 점이다. 한 예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입건된 사람들은 예산 수덕사 대웅전, 순천 송광사 대웅전 등 전국의 국보 · 보물 · 중요민속문화재 155건의 보수공사를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무자격 의사가 환자를 돌본 것과 같은 의미다.

이참에 문화재 전문가들의 자격증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놓은 국가 지정문화재의 관리를 문화재청과 같은 전문 기관이 맡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한 중요 유적지의 문화재 복원을 할 때도 문화재전문위원들이 자문만 할 것이 아니라 심의 의결하게 해서 실질적인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재의 정비와 복원을 전문으로 하는 문화정비복원공단과 같은 전문 기구의 설립도 고려해야 볼 만 하다. 재차 강조하지만 문화재 관련 정부 조직의 정비와 행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는 물론 제도적인 보완책이 시급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2014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법어가 담긴 # 도자기 에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 류	컵 종 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 낱개 5,000원 • 2개 SET 9,000원 • 3SET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